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106 한국어판

NO. 106

ISSN 1346-0382

제 72 회 SGRA 포럼

제 8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 · 미디어 · 연구



제8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미디어·연구

■ 개최 경위(상세 내용은 12쪽을 참조)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 간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7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2021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를 세 차례 시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제8회를 맞이한 이번 대화는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고, 온라인으로도 참가 신청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 유행 이전과 동일하게 한중일 3편씩, 총 9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했다.

■ 개최 취지

2016년부터 시작된 ‘국사들의 대화’ 목적은, 한중일 ‘국사(國史)’ 연구자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지(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3국 간에 가로 놓여 있는 역사인식문제 극복에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기원은, 20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한일,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개별적 역사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는 있으나,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큰 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종종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는 이유의 하나로, 상대방의 ‘역사인식’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후 동아시아는 냉전, 화해,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 중국의 대두 등 수차례 복잡한 변화를 경험했다. 각국은 각자의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국사의 문맥에 기반한 역사관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보급해 왔다. 전후 각국의 역사관은 대체로 폐쇄적인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각국의 역사인식 형성과정, 내재하는 논리, 정치와의 관계, 국민 속에 확산되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는, 동아시아 역사가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은, 이와 같은 정보의 결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국민의 역사인식은, 국가의 역사관, 가정교육, 학교 교육, 역사가의 연구와 사회적 발신, 미디어, 문화·예술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역사가의 연구가 국가의 역사관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가가 전후 어떻게 역사를 연구해왔는가’다. 전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격렬한 정치 변동이 발생했고, 역사가의 역사연구와 역사인식도 커다란 동요를 경험했다. 역사가의 연구와 사회적 발신의 궤적을 되짚어 가는 것은 각국 역사인식의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영화·TV 등 미디어도 국민의 역사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후 각국은 각자의 역사관에 서서, 전쟁과 식민지에 관계된 작품을 다수 창작해왔다. 이 같은 작품이 국민의 역사인식에 준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디어 교류가 진행되는 속에서, 다수의 영화와 TV 드라마가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국민 서로가 이러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역사 대화를 해왔다. 각국의 문화, 사회 환경이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 이 역시 이번에 확인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이 발생하면, 상대방 역사해석과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발생한 정치, 사회 변동으로 유발된 역사인식 대립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인식하는 과정은, 자신의 역사인식을 되묻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제8회 국사 대화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였다고 하겠다.

SGRA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SGRA)는 선량한 지구시민 실현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SGRA는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고 아쓰미 장학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외국인 및 일본인 연구자가 중심이 돼,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연구와 제언을 포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학제적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 연구자가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고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 8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 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 교육 · 미디어 · 연구

일 시	2023년 8월 8일(화)~9일(수)
장 소	와세다대 14호관 및 온라인
주 최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공동주최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 ·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조 성 금	다카하시산업경제연구재단



제 1 세션	[사회: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개회사】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 5
【개회취지】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7

제 2 세션	부주제: 교육 [사회: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발표 1 (한국)】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탈식민 담론과 역사서사 구성의 변화 14 김 태웅 (金 泰雄, 서울대)
【발표 2 (중국)】	역사 기억 전쟁과 역사 글쓰기 윤리—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전쟁 28 탕 샤오빙 (唐 小兵, 화둥사범대)
【발표 3 (일본)】	일본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다 38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교토대)
【토론·질의응답】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50

제 3 세션	부주제: 미디어 [사회: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발표 4 (중국)】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 (偽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 59 장 페이 (江 沛, 난카이대)

【발표 5 (일본)】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	70
	후쿠마 요시아키 (福田 良明, 리쓰메이칸대)	
【발표 6 (한국)】	현대 한국 미디어의 식민지, 전쟁 경험 형상화와 그 영향 ·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79
	이 기훈 (李 基勳, 연세대)	
【토론 · 질의응답】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92

제 4 세션	부주제: 연구 [사회: 송 지용 (宋 志勇, 난카이대)]	
【발표 7 (일본)】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	99
	야스오카 겐이치 (安岡 健一, 오사카대)	
【발표 8 (한국)】	‘발전’ 너머,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	108
	양 지혜 (梁 知惠,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9 (중국)】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116
	천 홍민 (陳 紅民, 저장대)	
【토론 · 질의응답】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129
	논점정리: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	

제 5 세션	지정토론/전체토의 [사회: 정 순일 (鄭 淳一, 고려대)]	140
	논의를 시작하며: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지정토론자 (발언순)	
	김 헌주 (金 憲柱, 국립한밭대), 위안 칭핑 (袁 慶豐, 중국미디어대)	
	요시이 후미 (吉井 文美,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시 보공 (史 博公, 중국미디어대)	

제 6 세션	지정토론/전체토의 [사회: 평 하오 (彭 浩, 오사카공립대)]	161
	지정토론자 (발언순)	
	장 샤오강 (張 曉剛, 장춘사범대), 김 호 (金 濤, 서울대),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昇, 가나가와대)	

【폐회사】	조 광 (趙 珧, 고려대 명예교수)	186
	8회 국사 대화를 돌아보며 향후에 대해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강연자 약력	191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전남대)	193
	참가자 목록	199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이혜리 (한국외대),
안영희 (한국외대)한국어⇄중국어:
김단실 (통번역자),
박현 (교토대)일본어⇄중국어:
딩리 (베이징대),
송강 (베이징외대)

※소속 · 직함은 포럼 개최 시점

개회사

류 지에

와세다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 홍용일(도쿄대)]



이번 회의 주최 측 일원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국사대화 상황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20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입니다. 이 주제를 결정하기까지 실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 망설였습니다. 대화의 주제 또한 긴 토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렇게 길게 망설였던 이유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확장부터 시작하여, 17세기와 19세기 문제들에 대해 토론한 후, 이번에는 20세기로 넘어가 20세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주제 자체가 매우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한몫 했습니다. 과거 진행한 여러 국사대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세기 동아시아의 형성’ 을 주제로 한 번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20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를 주제로 국사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화의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대화를 시작하려는 걸까요?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동아시아 세 나라 간의 역사인식 문제가 국민들 사이 감정 대립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아는 그래프입니다. 이 조사는 상대 국가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중국과 일본 간 조사입니다. 일본인 중에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90%에 달하고, 중국인도 일본에 대해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여론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선을 보면,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이 과거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본 쪽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이유를 살펴보면, 왼쪽에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많은 일본인들도 역사인식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중국이 역사인식 문제를 들어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사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일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역사인식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역사 대화를 해야 하는 좀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주로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공동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른바 ‘대화’ 는 여전히 비교적 생소한 일입니다. 공동 연구를 할 때, 모두가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을 찾고 차이를 인정한다)’ 라는 공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찾고 차이를 인정한다’ 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인식을 최대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공동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한 쪽에 미뤄두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양국 사이 가장 먼저 큰 규모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7년, 즉 항일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실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결과적으로 ‘구동존이’ 의 성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처럼 ‘공통점을 찾고 차이를 인정한다’ 는 접근은 우리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화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제 생각엔 역사인식 문제가 정치와 외교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단순히 ‘공통점 찾기’ 를 넘어서 진지한 역사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대화는 대부분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우리 쪽의 역사인식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 주장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국경을 넘는 역사 대화’ 라는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국경을 넘는다’ 는 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국경을 없애고, 마음속에 국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역사와 정치 사이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역사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지식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몽골 제국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점부터 대화를 시작해, 우리 대화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지금 우리의 역사 대화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동아시아의 역사학자들 사이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공유 지식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우리는 예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들 사이의 역사인식 차이와 갈등이 단지 서로 간의 대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차이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역사인식의 다양함에서 더 많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듣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역사인식 문제, 국내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인식 문제를 단지 상대와의 차이로만 몰아가지 않고, 상대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건 역사 대화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발표될 각각의 논문들을 살펴보니, 제가 말한 바로 그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 대화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연 (릿쿄대)]



좋은 아침입니다. 류지에 선생님 이야기에 보충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는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 류지에 선생님과 이마니 시 씨가 먼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하려는 대화가 가장 진행해보고 싶은 주제였는데, 갑작스레 시작하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회 작전을 선택해 아득한 옛날 몽골습격시대부터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져 드디어 본래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그 세월 동안 여러 변화가 일어나,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와세다대에서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어 저희들은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보충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의 이 역사 대화에 관한 경험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전부 말할 기회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략만이라도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고, 배경에 있는 일본과 이웃 나라 한국,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대화에 대해 제 나름대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전문은 19세기 일본사, 특히 메이지 유신과 그 정치 외교사입니다. 거기에 더해 19세기 동아시아 전체 관계나, 혹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은 세계 최대 혁명 중 하나였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17세기 영국 혁명부터 금세기 초 이른바 ‘아랍의 봄’ 까지, 8개의 혁명을 비교하는 작업을 국내외 연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세 후반 일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역사 대화의 원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20세기 전반 역사입니다. 제 전문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솔직히 19세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20세기 전반 문제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연구자로서 자주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 사정으로 발을 들이게 돼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처음 제가 그것을 의식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요? 잊어버렸지만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외국 선생님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은 도쿄에 여러 외국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나라 역사 교과서가 일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쭙보고, 여기는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예를 들어 태국이나 미국이 있었고, 그중 한국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회의를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한국측 핵심 인물이 정재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거의 같은 세대로 서

로 젊었을 때였는데,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재정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 일부는 외국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 그렇구나’ 하고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 소위 식민지가 된 시대를 말씀하신다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만약 일본이 그와 같은 상황이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은 학부 졸업논문으로 ‘만주국’ 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나 식민지 지배는 ‘사실’ 로서는 알고 있던 셈입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식민지로 떠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 이것저것 알아보거나 책에 써 있기는 했지만, 그때 지배당한 분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읽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천학(淺學)의 소치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본인의 시점에서 자잘한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즉 외국분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르면, 식민지 지배나 전쟁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때 겨우 깨달았습니다. 대체로 40살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비록 20세기가 제 전문 분야와 다르다 해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금세기 첫 해인 2001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익계 단체가 만든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제도를 통과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에도 불뚝이 튀어, 한국과 중국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고, 3월부터 7월 정도까지 이 논쟁은 맹렬한 기세로 일본 안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서점 매대에도 관련 책이 다수 진열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국내외 학자 주최 회의에 나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무관심했던 각 나라 역사학자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본사 관계자나 국제관계가 전문인 사람들은 일본에 관심이 있지만, 자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일본 역사 따위 관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런 큰 정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곳곳의 대도시에서 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베이징, 서울, 물론 도쿄, 그리고 미국 도시에서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원을 정부 및 민간 단체가 한 것은 왜였을까요? 이는 관련된 3국 정부가 모두 이 역사 문제를 정치·외교에서 격리시킨다는 방침을 공통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본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제관계가 금세기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 혹은 미래를 고려한 경제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일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정부로서 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학자에게 해달라고 하자’, 이것이 당시 각국 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대화에 많은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정부가 직접 후원한 일한, 일중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저 자신은 이유가 있어서 정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정부는 전혀 아니지만, 학자로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민간에서 하는 일에는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를 끌어들인 장본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류지에 선생님입니다. 류 선생님과 일중 관련 일을 했지만, 일한에 관해서는 같은 와세다대 이성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번 봄 정년으로 퇴임하셨지만, 이 분들이 저를 끌어들여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저는 일중, 일한과도 민간 차원에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점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성과는 류지에 선생님과 저, 그리고 미국 워싱턴대에 계신 양다칭(楊大慶) 선생님이 편집한 ‘국경을 넘는 역사 인식’ (도쿄대출판회, 2006년)입니다. 류지에 선생님은 신진 연구자들을 모아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일중관계의 민감한 부분,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쓰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 분들을 불러 대화를 반복해 마지막에 책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베이징의 출판사에서 중문으로 출판되었고, 후에 양다칭 선생님 덕분에 영어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한국 학자들과의 첫 대화는 두려웠습니다. 류지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였는데, 참석한 저는 무서워서 건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역사대화 모임에 얼굴을 내민 적이 있었는데, 대체로 일본측이 혼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말을 하면 정말 큰소리로 혼납니다. 그걸 보고 있었으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류지에 선생님 모임은 그렇지 않았고, 일단 사료를 서로 가지고 와서 제대로 논의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양다칭 선생님이 오셨을 때 주제는 난징대학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는데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학자 간 대화라면 잘 통한다는 것을 알고 공포심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체로 관촬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의에서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갑자기 화가 나는 일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거듭하던 중, 2008년 제가 우연히 머물렀던 하버드 대학에 류지에 선생님, 이성시 선생님, 그 밖에 많은 중국과 한국 선생님들이 오셔서 큰 공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역사대화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2010년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은 한순간에 악화되었습니다. ‘당하고만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감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14년 이전까지의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바꾸고, 예를 들어 이전까지 ‘이웃나라 역사인식을 배려하라’ 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이

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본 측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 이웃나라와도, 국내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일단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쓰미재단 이마니시 씨, 류지에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못해 참가했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지금까지 무관심해 보이던 신진 학자들이 참여하게 돼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편 그와 별도로 지금까지의 역사 대화는 매우 아슬아슬한 정치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본격적인 학술연구 수준으로 신진 학자가 교류회를 갖는 일도 생각했습니다. 와세다대, 상하이 푸단대, 그리고 서울대 세 곳을 돌며, 푸단대의 장상(張翔) 선생님과 서울대 박훈 선생님의 협력을 얻어 신진 학자들의 큰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후에 두꺼운 책, 일본어판을 낼 수 있었습니다(미타니·장상·박훈 편 ‘울려지는 동아시아사’ 도쿄대학출판회, 2019년). 이 책은 나중에도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의 절반입니다. ‘역사인식’은 일본어로 말하면 보통명사일 텐데, 동아시아에서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일본에 의한 이웃 나라 침략이나 가해’를 말합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항상 20세기 전반 일본인이 우리 조상에게 한 일을 ‘일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옵니다. 일본은 이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20세기 전반 일본의 선조가 한 일을 직시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통 일본인에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이라고 말해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로서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지배는 36년, 일본에 의한 중국 침략전쟁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를 은폐하려고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 우익 중에는 작은 사건을 거론하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일본의 중국 침략 전체가 없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수가 통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보통의 일본인에게 납득시킬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이웃나라 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 즉 일본의 침략이 끝나고, 제국이 무너져 식민지지배가 끝난 지 78년이 지났습니다. 3세대, 4세대를 지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의 가해국, 예전의 피해국 국민이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충분히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 일까요? 일본이나 일본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항상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치문화는 지속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은 논의를 싫어하는데, 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대한 태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번 조선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중국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만주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해 도쿠가와 가문은 274년간 완벽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대외 전쟁뿐만 아니라 내란도 없습니다. 이는 세계사상 드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벽한 평화가 있는 후, 일청 전쟁부터 일본인들은 다시 매우 호전적이 됩니다. 51년간, 1945년 미국에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후 완전히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7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대외 행동은 일관성이 없고, 반대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앞으로 일본이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갔으면 좋겠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서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웃나라 분들이, 전후 일본인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제 지인인 중국인에게 말했더니, “그건 일본인이 반성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커다란 미군기지가 7곳이나 있어서 일본이 미국에 반항하려고 하면 반드시 압도당하고, 그게 무섭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떻습니까?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때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전쟁 따위는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 갔을 때 고등학교 동창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라 했더니 다들 “그래, 맞아” 라 대답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른바 우익적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랬다” 라 답했습니다. 그렇게 전후 일본인들은 경험을 공유해 온 것입니다. 이를 이웃나라 분들이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 갈 것이라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대화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때 자신의 발표가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에 귀 기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주의하며 ‘왜 의견이 다를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종합토론을 하는데, 그때를 위해 오늘은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내일 그에 대해 발언할 메모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가 걸어온 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공간’ 혹은 ‘지(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창출해 동아시아에 제공하자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 연구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국의 다양한 ‘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를 발표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모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3 회 대화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9 명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의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한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로 계승하기 위해, 와세다대가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 년 1 월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중일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 5 회 대화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2021 년 1 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 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 회의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했지만, 결

과적으로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제6회 대화는 아시아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을 주제로 제5회에 이어 온라인(3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수(교토대)는 문제제기에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이동이 국가주권체제 및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의 세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을 주제로 하여 하루를 소비한 다소 실험적인 구성이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제7회 대화는, 2022년 8월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 역사학”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한성민 연구교수(고려대)가 평소 한국 역사학자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역사대중화’ 문제를 제기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역사학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의 하나로 ‘공공역사’를 제안했다. 그 뒤, 각국의 다른 상황을 바탕으로 ‘역사의 대중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포럼, 세션의 대화뿐만 아니라, 3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 배부와 메일 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6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340명 이상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제 2 세션
교육

발표 1 (한국)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탈식민 담론과 역사서사 구성의 변화

김 태웅

서울대

1. 서 언

해방 후 현재까지 한일관계는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처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탈식민화와 냉전 질서를 거치는 가운데 분단과 전쟁, 산업화, 민주화, 남북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와 달리 급격하게 변동하였으므로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예견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일관계에 잠복되었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 대한 재조명이 한일 양국 학자들의 자료 발굴과 정리에 힘입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국 관계의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자국내 역사 서술의 구성 및 한국사/동아시아사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탈식민을 바라보는 시대적 상황과 집권층의 시각, 그리고 식자층의 한일관계 인식 등이 당대 국내외 당면 과제와 맞물려 결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권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교육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밀어넣곤 하였다.

이 발표는 한국 정국의 변동과 탈식민화의 과제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서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의 재구성과 그 의미를 추적하였다. 특히 역사 교과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이들 역사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역사서사의 구성을 내장할뿐더러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탈식민 담론의 등장과 역사서사의 재구성: 1945~1948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한국인은 신국가를 건설하고 자신의 문화를 재건하며 빼앗긴 역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

< 표 1> 『국사교본』(1946)과 『중등역사 2』(1944)

국사교본 (1946)	중등역사 2(1944)
제1편 상고(태고, 삼국시대)	제1편 태고(天照大神부터 다이카 개신까지)
제2편 중고(신라 통일기-고려)	제2편 고대(다이카 개신부터 헤이안시기까지))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제3편 중세 (가마쿠라 막부부터 에도 막부이전까지))
제4편 최근 (국기 4243-4278년, 서기 1910-1945년)	제4편 근세(에도 막부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제5편 현대(메이지 유신부터 국제연맹탈퇴까지)

었다. 이른바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대다수 식자층은 신국가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술·교육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일제가 구축한 식민 문화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적 경험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것은 탈식민을 위한 역사서사의 재구성이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다¹. 그래서 역사서사는 민족적 수난 및 침략적 역사의 청산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민족 국가를 구상하고 피압박민족들의 연대에 입각한 윤리적 아시아를 전망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역사서사는 허구적 상상에 기초한 문학과 달리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하여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서사의 이러한 구성과 재생산은 학계보다 교육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신국가건설의 문화건설과 집단 기억의 재구성은 학문적 성과에 앞서 국민교육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어와 일본사에 부속된 한국어와 한국사의 분리·독립이 급선무였다.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가 각각 1945년 12월과 1946년 5월, 『초등국어교본(初等國語敎本)』과 『중등국사교본(中等國史敎本)』을 간행했다. 후자의 범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 문화·국가사회의 변천발전의 대요를 될수록 간명히 서술함에 힘썼”다. 그리고 ‘국사학습의 의의’를 “우리 민족 및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민족성의 본질을 체득하여 건전한 국민정신과 국민적 도덕 및 정조를 배양함”이라 규정하였다. 즉 역사교과서에 깔린 서사는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존의 일본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주체는 한국인의 역사로 바꾸었지만 시기 구분과 내용 구성은 『국사교본』과 『중등역사』가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한국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사의 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 역사서사는 문학 및 신화와 달리 1차 사건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을 의미한다. 다만 역사서사는 문학이 개발한 플롯 유형을 취하고 한 문화가 수합한 과거 사건들에 형태를 부여하여 2차 의미 유형으로 변환시킨다. 이에 관해서는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외 공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137~138쪽; 梁豪煥, 『歷史敎育의 立論과 構想』, 책과함께, 2012, 193~207쪽 참조.

2 하신애, 「해방기 역사서상의 탈/식민성과 新生 아시아의 상상—金東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1, 2020.

< 표 2> 『중등역사(中等歷史) 1』(1944)

서설 : 皇國과 東亞 및 世界	
전편	후편
1. 고대의 아시아	1. 상고의 구주
2. 아시아 諸民族의 교섭	2. 歐洲社會의 성립
3. 아시아 諸文化의 興亞	3. 歐洲의 전환
4. 아시아 諸民族의 활약	4. 近世 諸國家의 발달
5. 근세의 동아	5. 歐洲의 혁신
	6. 歐洲의 세계 정책

반면에 동·서양사를 담고 있는 1944년도판 『중등역사 1』은 <표 2>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동·서양사는 일본사를 염두에 가르쳤다.

『중등역사(中等歷史) 1』의 서설인 ‘황국과 동아 및 세계’에는 다음과 같이 학습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동아 및 세계’의 역사는 이것을 동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전편에서 황국 이외의 대동아의 역사를 배우고 다음 후편에서는 주로 구미의 역사를 배운다. 게다가 양자를 밀접한 관련을 근간으로 학습할 때 세계에 동아의 과거와 현재는 적확하게 파악되어 황국진전(皇國進展)의 배경 또는 선명함을 얻을 수 있다. 황국민은 동아 및 세계의 역사를 배울 때 항상 이 학습목적에 잊어서는 안 된다³.

이를 통해 동·서양사를 다루는 학습목표가 ‘황국진전’ 즉 대동아전쟁의 배경과 그 당위성을 아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국의 역사에는 조선사도 포함된다.

역사교과의 이러한 삼분주의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교수요목 시기 이전이라 할 긴급조치 시기에 저술된 김상기·김일출·김성철의 『신동양사(新東洋史)』(1948)는 그러한 동아시아사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머리말에서 서사 구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사(國史)에서 관련된 사실은 할 수 있는 대로 상호관계에서 자세히 서술하여, 국사와 동양사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힘썼음⁴.

3 文部省, 『中等歷史1』,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昭和19年(1944)8月13日, 4~9쪽.

4 김상기·김일출·김성철, 『新東洋史』, 同志社, 1948, 머리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양사에서 일본사는 제외되어 있다. 동양사의 의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동양사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서 밝히는 것이다(국사에 관한 사실은 다만 이웃 나라와 관련을 가진 것에 한하여 들게 됨).

그리고 동양사의 지리적 범위는 대개 시대를 따라 넓어져 가므로, 일률적으로 들기 어려우나, 대체로 보아 인도로부터 중앙아세아 동남부에 이르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동쪽에 뻗어 있는 대륙 일대와, 태평양 방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나라들을 이 범위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⁵.

차례를 보면 동양사 교과서임에도 중국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인도와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아메리카와 일본’, ‘淸日戰爭(청일전쟁)’, ‘俄日戰爭(러일전쟁)’에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명말 시기 북로왜란을 언급하면서 ‘동양(東洋)의 왜란(倭亂)’이라는 소주제 단원에서 왜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동양의 삼국을 뒤흔든 장본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 전근대를 포함한 통사라기보다는 일본의 침략에 초점을 두고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해방 후 탈식민과제 속에서 한국의 역사학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일제가 자신을 동양평화의 수호자로서 주조한 틀을 깨뜨리고 일본을, 동양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서사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최남선이 저술한 『중등국사(中等國史)』, 『조선본위중등동양사(朝鮮本位中等東洋史)』 등이 이광수의 『문장독본(文章讀本)』과 함께 문교부로부터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⁶.

물론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⁷. 1949년에 출간한 『이웃나라의 생활: 역사』의 경우, 중국의 상대화가 두드러졌다⁸. 그러나 탈식민이라는 긴급한 과제에 비준다면 일본사의 비중을 높일 수는 없었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는 『이웃나라(동양사)』, 2학년에서 『먼나라(서양사)』, 3학년에서 『우리나라(국사)』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최남선의 『이웃나라 역사』의 경우, 중국사 중심의 개설서나 다름없었다. 해방 직전의 동양사가 일본 중심의 동양사였다면 이제는 중국 중심의 동양사로 변환한 것이다. 즉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형 연대론에 입각한 동양사에서 이제는 중국 위주의 위계질서형 문화론에 입각한 동양사

5 위의 책, 1쪽.

6 「문교부, 전국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친일파 교과서 사용금지 등을 지시」, 조선일보 1948.10.12. : 「敎科書와 風紀取締 등 學制最後決定」, 朝鮮日報 1948.10.12.

7 손진태·이해남, 『이웃나라 생활(역사부문)』, 탐구당, 1952, 머리말. 이와 관련하여 유용태,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역사교육』 107, 2008, 140~143쪽.

8 유용태, 위의 논문, 142~143쪽.

로 바뀐 것이다⁹. 나아가 동양사는 고등 예비고시 필기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서양사와 함께 시험과목에 포함되었다¹⁰.

이제 일제 기존 역사교육의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삼분주의를 이어받되¹¹ 일본이 주류를 차지했던 기존 역사서사의 구성에서 일본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사를 대입·배치하였을뿐더러 동양평화 담론을 피침략자의 처지에서 재정립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러한 서사 구성은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던 일국 중심의 역사서사를 기축으로 형성된 삼분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승계된 결과이다.

3. ‘중공’ 담론과 이분주의 구성의 등장: 1949~1964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이 사건은 일제의 패망에 못지 않게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후일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전쟁의 기원이 여기서 마련된 것이다. 물론 냉전질서의 등장과 심화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과 이어진 좌우 갈등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과 중국공산당의 승리는 냉전질서 고착화 이상으로 전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중국을 한국의 북진통일을 가로막은 ‘중공 괴뢰’로 호명했다. 반공주의와 북진통일론에 입각한 ‘중공’ 담론이다¹².

그리하여 한국 정부의 집권층은 중국에 대한 이중의식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륙을 점령한 ‘중공’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전통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며 타이완에 대해서는 반공의 보루로서 연대하는 가운데 타이완과 전통 중국을 연계시켰다¹³. 역사서사의 재구성이 공간과 시간의 분리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중국 대륙은 역사와 분리된 채 타이완으로 표상되는 동양사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1950년대 사회과학계 자유주의 계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류문화”에의 공헌과 “후진성의 극복”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동양담론이 주류로 올라섰다. 그것은 후진적인 동양이 문명사적으로 선진적이었던 과거와 현재의 자유건설의 중심이라 할 서양을 따라 배움으로써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사회학자 이상백의 경우, “서구화가 곧 현대화”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동양담론에서도 일본 한 나라는 겨우 후진성을 면한 나라라고 평가하였다¹⁵.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적 정체성으로 연결되었다. 심지어 경제학자 배성룡은 비트포겔(Karl August Wittfogel)의 영향을 받아

9 전시체제기 지식인의 동양담론에 관해서는 윤상현, 「1950년대 知識人들의 民族 談論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36~40쪽 참조.

10 「考試委員會, 국가 고등고시 실시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 『東亞日報』 1948. 10. 11.

11 대한제국 시기 정부는 본국사와 만국사라는 이분주의에 입각하여 역사서사를 구성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46~49쪽 참조.

12 김태웅, 「1950년대 李承晩 政府의 錯綜된 중국 이미지」,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비교 분석 국제학술회의발표자료집』, 2022.

13 위와 같음.

14 윤상현, 앞의 논문, 91쪽.

15 윤상현, 앞의 논문, 140~144쪽.

‘중공’과 소련을 동양적 전제정치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역사학자 김용덕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국가권력의 특성으로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해 정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⁶.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경제사학자마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수용하고 있었다¹⁷. 그 결과 이러한 동양적 정제성론은 탈식민 담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개조의 필요성(후진성)을 역설하기 위한 수사적 방법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훗날 중국사 연구자 일각에서는 전통 중국과 현실의 중국을 연계시키며 내재적 역량을 중시하는 흐름도 나타났다¹⁸.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근대화의 실패가 아닌 ‘중국적 근대화’의 실현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이런 흐름에서 일본사의 내재적 발전을 중시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동양적 전제주의 이론이 후진성 이론과 결합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찻잔의 미풍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자유당 정권 내부에서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계열인 족청계가 제거되면서 주도권은 유럽 중심의 역사 인식을 견지한 자유주의 계열에게 넘어왔다²⁰. 이러한 정국 변동은 서구 중심의 역사서사가 주류로 부각되면서 탈식민 과제도 민족 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제성장·근대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동양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은 역사서사 자체의 모순을 담지하고 있어 동양사는 1955년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자적인 교과서로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세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여 보다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객관화하여 심화,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다²¹. 그러나 동양사 즉 중국사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역사적 맥락은 다르지만 대한제국기 이분주의로 돌아간 셈이다. 그리하여 중국 중심의 동양사는 『세계사』에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서구중심적 관점이 심화되었다²². 다만 일본사 중심의 동양사가 한편으로 존속하였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역사교육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사가 독자성을 상실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역사서사 구성이 독점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술량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동양사 분량이 30퍼센트에 불과한 데 반해 서양사 분량은 70퍼센트를 상회했다. 이러한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취지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서구중심적 관점에 입각한 세계사에 중국사는 하위 구성으로 들어갔다. 물론 일본사도 이러한 세계사 서사의 하위에 배치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세계사 구성에서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아시아 세력의 팽창과 유럽 사회의 형성

(1)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6 김용덕, 「국사의 기본성격-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思想界』 1953년 9월호, 53쪽.

17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 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98쪽.

18 정문상, 『중공, 자유중국 그리고 중국-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혜안, 2019.

19 전해중·민두기, 『日本史』, 지문각, 1964.

20 藤井たけし,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2008, 140~142쪽.

21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96~97쪽.

22 남한호, 「제1차 교육과정 세계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역사와교육』 22, 2016, 143~145쪽.

- (2) 당, 송 시대는 어떠했는가?
 (3) 몽고와 일본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5. 근세 동양은 어떠했는가?

- (1) 명, 청의 중국은 어떻게였는가?
 (2) 서남 아시아의 변동은 어떠했는가?
 (3) 서양 세력은 어떻게 아시아에 침입하였는가?
 (4) 근세 일본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5) 동양 각국의 서로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고등학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록 일본사의 분량이 중학교에 비해 늘어났지만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 속에서 중국사의 하위 범주로서 단편적인 시대 개관이 뒤따랐다²³.

그럼에도 이러한 자유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맞서 4·19혁명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적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그것은 후진성론에 근간하였기 때문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재차 제기된 탈식민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사 내부에서도 식민사관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종래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사관으로 왜곡 해석된 것이 많았다는 인식 아래, 1958년 말 이승만대통령의 지시로 국사상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1집에서 6집까지 발행되었다²⁴. 집필은 고대(단군조선-신라) 이흥직, 중세(고려시대) 김상기, 근세전기(조선 태조-선조) 신석호, 근세후기(광해군-철종) 이병도, 최근세(고종-8·15해방) 이선근이다. 식민사관 문제를 최초로 다룬 일련의 특집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언론을 제한하고자 하여 1958년 11월 개악된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식민사관 문제제기는 위기 국면을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야당을 대변했던 『경향신문』은 12월 21일자 사설에서 신국가보안법 투쟁을 두고 “왜정식민정책 하에도 우리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살신성인한 애국우국지사를 따라 투쟁할 것을 역설했던 것이다²⁵. 또한 1950년대 말 일본 정부가 취한 재일조선인 복송 방침과 연계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과 체제 경쟁에 돌입했던 이승만 정부로서는 일본정부의 이런 방침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다.²⁶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식민사관 극복 요구는 1950년대 일제강점기 연구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전후하여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3 이해남, 『고등학교 사회과 세계사』, 1959, 탐구당; 김성근, 『고등 세계사』, 교육사, 1961.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國史上의 諸問題』 1, 1959, 1~2쪽.

25 「사설「마음의 조국」을 이 땅 위에 성취하자」, 『경향신문』 1958.12.21.

26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106~110쪽; 신재준, 「1959년 이승만 정부의 대일통상 중단조치와 미국」, 『역사비평』 115, 2016, 373~377쪽.

4. 한일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한국사의 체계화 문제: 1965~1981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군사 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 무렵 미국은 북방사회주의권에 대항하는 친미 반공의 방과제를 구축한다는 동북아 지역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강력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려면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부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한일국교정상화가 필요했다.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정책으로 일본은 동북아에서 지위가 높아졌으며 한국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또 군사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개발에 들어갈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군사 정부의 이러한 대일정책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3세계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로스토우 근대화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²⁷ 한국사학계를 중심으로 한일 회담을 전후하여 일본의 재등장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1965년 7월 9일 한국사학회의 대표간사가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여러 역사관련 학회에서 한일협정 조인을 백지로 돌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일협정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선 조약이 아니라고 못박았다²⁸. 그 결과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국문학, 국사학의 독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서양사 위주의 세계문화사가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사 연구자의 양성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²⁹.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서 제2차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합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³⁰. 통합사회의 원리에 따라 사회 교과 속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시켰을뿐더러 세계사의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가 국사에 첨가되는 형태여서 중국사는 물론 일본사 역시 그 꺾임을 면치 못했다. 가령 일부 교과서는 ‘근세 세계의 생활’이 60쪽에 불과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단 6쪽에 지나지 않았다³¹. 여기에는 명의 흥망, 명대의 문화, 청의 통일과 발전, 청대의 문화, 인도의 국내 대립, 일본의 바쿠후 정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사학의 주류가 여전히 식민사관에 의해 체계화되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었으며³² 1967년 12월 한국사연구회가 발족되었다. 발기 취지문에서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고, 아울러 한국사로 하여금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그 정당한 위치를

27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2004, 156~159쪽; Michael E. Latham, 권혁은 외 옮김,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2021, 95~97쪽.

28 「역사연구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비준반대성명」, 『동아일보』 1965.7.10.

29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 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578~582쪽.

30 康宇哲 외, 「지상좌담 개정된 교육과정과 역사교육의 제문제」, 『역사교육』 9, 1966, 167~169쪽.

31 박성봉 외, 『새로운 사회』, 홍지사, 1970.

32 金哲堧, 「국사교과서는 바뀌어야 한다」, 『새한신문』 1968.11.11.

차지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³³. 이어서 1969년 12월 이기백, 이우성, 한우근, 김용섭이 문교부에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하여 국사교육의 개선을 역설하였다³⁴. 이는 한국사가 세계사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자기 모색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서양사 중심·중국사 부중심의 세계사와 함께 독자적인 한국사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서사의 한축을 이루었던 한국사는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선포와 1972년 10월 유신체제 기점을 전후하여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내세워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되었지만 세계사는 여전히 사회과 속에 편제된 가운데 한국사는 정권에 의해 ‘강요된 중시’를 당했고 국사와 세계사의 간극이 벌어졌다³⁵.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든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동양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해종의 경우,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일본사에 대한 무지와 파편화된 인식을 비판하면서 1964년 민두기와 함께 『일본사』를 출간하였다. 한국인이 최초로 저술한 일본통사였다. 전해종은 다음과 같이 출간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대 이래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이후의 일본의 식민지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쓰라린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일본을 이웃한 우방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를 자문해 볼 때, 상식 이상을 안다고 대답할 수 없다. 해방이 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본사를 한 책도 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학계의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역사책을 저술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본사를 알아야겠다는 의욕에서 이 책을 엮게 되었다.

요즈음 한일 국교 문제로 어느 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독자에게 일본의 여러 분야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본 후에 올바른 일본관을 가지기 바라는 바이다³⁶.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식민사관 극복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 시대구분은 ‘고대일본’ - ‘중세일본’ - ‘근세일본’ - ‘근대일본’ - ‘현대일본’ (제1차 세계대전부터)으로 구성하였다. 일본 내부의 발전 과정에 입각하여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나아가 전해종은 ‘주체성’과 ‘민족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비판하면서 동양사와 국사의 연관성을 넘어서서 동양사도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이루어져야

33 한국사연구회 홈페이지 <https://www.hanguksa.org/front/introduce/history/view?id=102&page=3>.

34 이기백·이우성·한우근·김용섭,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969, 문교부연구보고서, 4쪽.

35 김태웅,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 선인, 2014, 23~25쪽.

36 전해종·민두기, 『일본사』, 지문각, 1964, 1쪽.

한다고 주장했다³⁷. 또한 민두기의 경우, 동양사회(중국의 경우) 근대화가 서구적 충격에 피동적으로 끌려감으로써 전통의 단절을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신사계층이 서구의 충격에 대결, 전통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창조해낸 자생적 과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³⁸. 황원구의 경우,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는 동양사학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본 또는 중국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역사가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의 단절이 아니며 자생적이라는 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³⁹.

따라서 유신체제 하에서 역사서사는 국사와 세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사는 서양사 중심과 중국사 부중심으로 고착화되었다. 특히 한국사는 ‘한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사’, ‘세계사적 차원의 인식을 통한 민족사적 특성 파악’ 등 ‘민족사관 교육’을 지향하는 일반 목표와 달리, 학년 목표와 단원 목표에서는 국난극복의 민족정신만이 중시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사, 일본사 등의 연계성은 오로지 전쟁을 매개로 이루어졌다⁴⁰.

5. 한일 역사갈등과 민주화운동의 연쇄: 1982~2001

역사서사의 이원적인 구성은 1982년 한일간의 역사 갈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86년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검정결과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3·1운동을 ‘폭동’으로 바꾸는 등 표현이 수정되고 3·1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가 7,000명이라는 부분도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일본에서 보도되었다⁴¹.

그러나 5·18민주화 운동을 압살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로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보도를 통제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군부 정권의 희망과 달리 신군부 정권에 ‘안보경제 협력 차관’을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오면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이에 신군부 정권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전면화시켰다. 7월 하순부터 한국은 중국의 언론들과 함께 일제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검정 결과가 다른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해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국토청 장관이 ‘내정간섭’이라고 발언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⁴².

결국 때마침 도래한 신냉전체제로 인해 미국은 한일간의 이러한 갈등이 자국

37 전해중, 「동양사교육의 문제와 방향」, 『역사교육』 14, 1971.

38 민두기, 「두개의 중국론-역사적 배경과 문제의 초점」, 『세대』 4-7, 1966.7; 김형중, 「故 민두기선생의 학문적 업적」, 『東洋史學研究』 74, 2001; 정문상, 「『중공』과 『중국』 사이에서 -1950~1970년대 대중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 2011, 70쪽.

39 「低邊이 없는 東洋史研究」 「反省과 課題」 심포지움에서, 『경향신문』 1970.3.31.

40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국사와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1, 50~52쪽.

41 정재정,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48쪽.

42 「日 교과서 시비는 內政干涉」, 『동아일보』 1982.7.24.

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주도 아래 일본 정부는 신군부 정권과 밀실 타협을 통해 40억 달러 차관을 제시했고 이듬해 1월 나카소네 총리의 방문 기간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⁴³. 이에 나카소네 총리는 공식 방한 중 청와대 만찬사(1983.1.11.)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1984년 9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카소네 총리는 오찬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고난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되새기고,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결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신군부 정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리하여 신군부 정권은 중국과 달리 반일의 기치를 극일의 기치로 전환시켰고 독립기념관은 그렇게 해서 건립되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역시 1982년 11월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근현대 역사를 다름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⁴⁴.

나아가 신군부 정권은 이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일본 역사 교과서 규탄 토론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사건으로 엮으려고 하였다⁴⁵. 신군부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학생운동권을 섬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언제든 한일간의 역사갈등은 재연될 여지가 많았다. 당시 한국 사회가 신군부 정권의 탄압 아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분출될 수 없었다. 다만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8년 노태우 정부의 탄생은 이전의 전두환 정부와 다소 상이한 국면과 연계되었다. 즉 노정부는 신군부 세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직선제 개헌을 거쳐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었고 냉전 종식에 힘입어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될 즈음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김학순(1924~1997)이 1991년 8월 여성지가 아닌,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사적인 잡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러한 폭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인권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장관의 성명을 통해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모집·배치·이송·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43 조세형,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07~108쪽.

44 정재정, 앞의 책, 49쪽.

45 서경석, 「1982년 일본 교과서 四科 공개 토론회를 돌아보며」, 『역사과 60년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편), 2007.

따라 김영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일본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부터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분량은 한두 줄에 불과하나 모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기술했다⁴⁶.

물론 일본의 보수 우파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의 취급에 대해 맹렬히 반발했다. 『새역사교과서』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한일간의 역사갈등을 재연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었다. 그럼에도 2001년 10월 15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역사 갈등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⁴⁷. 2002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앞에 둔 시점이었다.

6.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도정과 <동아시아사>의 탄생: 2002~현재

1998년 김영삼 정부가 막을 내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한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1C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서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사실을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됐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다. 일본 영화가 수입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발맞추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논점을 수렴했다. 특히 자국사를 상대화하여 파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매개 고리로 삼아 자국사와 세계사를 연결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갔다⁴⁸.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공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에 이르렀다. 역사서사의 재구성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 셈이다. 그 결과 2005년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 근현대사가 탄생했다⁴⁹.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하여 동시에 출판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반대하는 각국의 학자, 교사, 시민활동가 등이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단어와 문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저술한 이 책은 19세기 중엽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편협한 국수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내고자 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특

46 정재정, 앞의 책, 100~111쪽.

47 위의 책, 193~198쪽.

48 조광,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0, 281~283쪽; 정재정, 앞의 책, 132~133쪽.

49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출판, 2005.

히 1930 년대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일으킨 전쟁을 다루는 장의 제목을 ‘일본 민중의 가해와 피해’, ‘일본의 침략 전쟁 패배’ 등으로 표기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일관되게 역사를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종장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2003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우선 2004년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으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성과물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다⁵⁰. 이에 한국 정부는 2004년 3월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 사태는 한·일, 한·중의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사 전체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논의의 외연이 넓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의 대표로 알려진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사 교과서 개설이 교육과정 개정의 뜨거운 의제로 부각되었다⁵¹.

나아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즉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며 그 선도적 역할을 한국이 하되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이 지역에서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협력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탈국가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담론과 함께 도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⁵².

또한 학계에서도 동아시아사 서술의 방법과 인식 문제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탈냉전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넘어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상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자 범주로서 지역사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사가 자국사와 세계사 사이에 위치한 중간 단위의 역사적 사고체계로서 양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소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진전은 한국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돌입하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시점과 달리 식민사관을 극복할 만한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중·일의 역사 왜곡에 맞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화, 경제력, 연구 성과가 이러한 동아시아 교과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2007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학습하는 <동아시아사> 과목이 탄생하였다. 그것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한국사-세계사라는 이분주의가 해체되고 이제 다시 삼분주의로 회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50 동북아역사재단, 『갈등을 넘어 화해로』, 2006, 34~39쪽.

51 지모선,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교육』 128, 2013, 72~73쪽.

52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2004.

53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향」, 『역사학보』 196, 2007, 105~106쪽; 유용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8~76쪽.

러한 삼분주의는 해방정국에서 견지했던 삼분주의와는 달랐다. 즉 후자가 기존의 식민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국사, 유럽 중심의 서양사, 중국 위주의 동양사였다면 전자는 식민사관에서 탈피한 한국사, 교류와 교역 중심의 세계사, 동아시아 3국의 연계성이 강화된 동아시아사로 정립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⁵⁴. 특히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구성 방식의 세계사 교육과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실제 적용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⁵⁵.

그럼에도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 출간을 전후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 학계와 역사교육 현장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사 방법론에 입각하여 저술된 다수의 동아시아사·한일관계사 개설서·교재가 속출하였다⁵⁶. 이러한 노력은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사 구성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전망된다.

7. 결어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과정이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시장 수요에 따라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교과목이 이에 따라 명멸하는 까닭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사』는 『세계사』와 함께 투입된 시간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입시 과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 앞날에 암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하겠다. 상호 간의 이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유지되지 않는 한,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정치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는커녕 협소하게 만드는 현금의 사태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따라서 정치적 격랑에 휘말리지 않고 근대 세계 및 글로벌화한 세계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학계와 학계, 교육현장과 교육현장,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만남과 교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만이 새로운 대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54 「2007 개정시기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NCI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2023. 10.12. 검색.

55 양호환, 「세계사교육: 변화의 담론과 교과서 서술의 현실」, 『역사교육』 140, 2016; 유용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왜 무엇을 가르치나? - '농업 패상'의 교류사를 묻는다」, 『역사교육』 164, 2022.

56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 오병수 편, 『한중 역사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2021;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 |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마주보는 역사수업: 한일 교사들의 연대와 교류의 기록』, 휴머니스트, 2023을 들 수 있다.

57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7~11쪽.

제 2 세션
교육

발표 2 (중국)



역사 기억 전쟁과 역사 글쓰기 윤리

—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전쟁—

탕 샤오빙

화동사범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

1. 『대강대해: 1949(大江大海: 一九四九)』를 예로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에서 전쟁과 혁명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전쟁과 혁명에 대한 역사 기술과 역사 기억은 단지 학문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가 과거의 역사와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기억의 영역에서 분쟁과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조차 내재한다. 어떠한 역사적 표현이든 모두 현실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기억의 고유한 프레임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는 곧 대중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응이나 반발을 일으키곤 했다. 군인 작가 장정룡(张正隆)의 『설백혈홍』(雪白血红)은 1980년대 말 출판되어 역사의 먼지 속에 사라졌지만, 룽잉타이(龙应台)의 작품 『대강대해: 1949 (大江大海: 一九四九)』로 인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룽잉타이는 작가 특유의 예리함과 문화인으로서의 호소력을 발휘해 반세기 이전 동북에서 벌어졌던 비극사건을 다시 한번 현대 중화권의 감각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후 룽잉타이는 일련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왜 장춘포위전(长春围城)은 난징 대학살과 같이 수많은 학술 보고서, 널리 퍼진 구술사, 해마다 이어지는 기념 보도, 크고 작은 기념비, 거대하고 웅장한 기념관,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의 헌화, 초등학생들의 대열 경례, 시민들의 묵념, 기념 종소리 등 방식으로 기념되지 않을까? 왜 장춘은 레닌그라드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한 역사 도시가 되지 못하고, 소설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드라마로 각색되거나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지지도 않을까? 또 어느 독립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각 나라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해 뉴욕, 모스크바, 뮌헨의 어린이들조차 알 수 있는 지명과 역사를 갖춘 장춘이 되지 못하는 걸까? 30만 명이 전쟁의 이름으로 굶어죽었음에도, 장춘은 외부에서는 레닌그라드와 같은 명성을

언지 못하고, 내부에서는 난징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¹.

이러한 질문은 ‘대강대해’라는 작품의 자잘한 에피소드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품은 문헌 분석, 역사적 유적 탐색, 구술 인터뷰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의도적인 힘에 의해 망각됐던 난세 속의 국민당군 장교들(원정군 포함)의 운명을 복원하고 재구성한다.

룽잉타이는 ‘패배자’의 후손(아버지 룽화이썩(龙槐生)은 국민당 병사)이었다. 그는 역사 서술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기념 받아야 할 위치를 되돌려주고 싶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이 전쟁의 ‘패배자’라고 한다면, 시대에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주었다. 내 눈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말해달라. 전쟁에 과연 ‘승자’가 있었던 걸까? 나는 ‘패배자’의 후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²

룽잉타이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전쟁의 패자와 피해자에 대해 성토했고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것이 현대 문명(가령 자유, 민주, 평등, 인권)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가치인지, 아니면 민족국가의 독립과 부강을 추구하는 존엄을 내건 특수 가치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게다가 룽잉타이는 내전 시기 국공분쟁으로 인한 희생과 고통(이러한 내전은 전쟁의 정의와 비정의를 가르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렵다)과 항일 전쟁 도중에 발생한 난징 대학살, 반파시스트 전쟁의 일환이었던 레닌그라드 방어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중적이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역사 기억에 의해 조명된 후자를 통해 ‘망각’된 전자를 끄집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시도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이 지닌 개별성을 지우는 것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패배자’를 기리는 것은 겉으로는 ‘약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인도주의 동정을 통해 일약 도덕적 고지를 점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족, 혈연, 단체에 대한 귀속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인정 계보(承認的譜系)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는 또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곧 ‘패자는 본연적으로 정의를 대표한다’는 암묵성이었다.

역사 기억은 부모 세대가 다시 찾아야 할 공정한 역사를 향해 이정표를 제시하며, 또 세대 간 기억 전승과 하나의 민족의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데 깊이 관여한다. 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 기억 구축을 위해 국공 양측은 각자의 기억 궁전 건설에 주력해왔다. 특히 장춘 포위전의 경우, 국공 양측의 기억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제시한다. 국민당에게는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공산당에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긴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어두운 핏자국’이 섞여 있어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 기억과 대조적인 것은 망각이지만,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교수 뤼신(罗新)의 말대로, 망각은 단순히 ‘소극적인’ 정신 활동이 아니다. 망각 연구가 역

1 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香港：天地图书有限公司，2009年版，p.200.

2 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香港：天地图书有限公司，2009年版，속표지.

사학에 가져온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인데,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결국은 다양한 힘의 관계에 의해 선별된, 살아남은 조각일 뿐이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사실들은 기억 저장소에서 차단되고 배제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은 선조들이 후손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과거는 분명히 기억 상실(amnesia), 또는 역사 기록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상실과 공백은 어느 정도 망각(forgetting) 작용에 의한 것인데, 이는 선조들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임과 동시에 그들의 예상했던 바였다.³

장준 포위전은 물론이고 더 넓은 시각에서 20세기 중반 중국 내전사에 대해, 우리는 ‘기억’ 과 ‘망각’ 이라는 이중 시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때로는 ‘기억’ 과 ‘망각’ 이 상호 대립하여, 한쪽이 망각을 강제하면 또 다른 쪽은 기억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 때로는 기억과 망각이 상생하는 과정에 ‘전쟁 폭력이라는 불의성’ 은 망각한 채 승자의 기억만을 강조한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 양쪽 모두 공공 영역에서 일부 역사적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도 한다. 민중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잊게 하거나’ 일부 역사 지역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민중과 지식인들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 역사적 기억과 망각이 교차하는 ‘존재의 그물’ 에서 벗어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감지능력을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 가오화 (高华) 의 평가

룽잉타이의 『대강대해: 1949』 에 대해 중국의 두 명의 역사학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작고한 역사학자 가오화(高华)는 이 책에 대한 장문의 논평 ‘60년 동안의 가족과 국가, 누가 그 속에 깃든 모든 마음을 말할 수 있는가 - 『大江大海: 1949』 를 읽고’ 를 발표했다. 고도의 분석능력과 재능 넘치는 필치로 쓰여진 이 논평은 정치경제적 대환경이라는 넓은 시점과 역사적 개인이라는 미세한 시각 사이를 넘나들며 1949년 전후 양안 관계의 대변동을 그려내고 있다.

가오화는 이 글에서 룽잉타이가 묘사했던 ‘비정(悲情) 1949년’ 의 역사적 함의와 그 여파에 대해 충실하게 끄집어 낸다. 이 책에 대한 가오화의 평가는 매우 높다. 그는 이 책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49년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건너온 200만 명의 본토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 전장과 남태평양 전장, ‘백색테러’ 속의 ‘외성인(外省人)’ 에 대한 잔인한 박해, ‘조국 군대’ 에 대한 ‘본성인(本省人)’ 의 기대와 실망, ‘아시아 고아’ 로 전락한 비애에 이르기까지 『대강대해』 가 그리는 형상은 매우 복잡하고 장면 또한 웅장하다. 책 전체에 가족과 국가가 녹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통하여 시대와 국가의 역사적 흐름이 개인의 운명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묘사하고 있다. 또 작가의 인문적이고 인도적인 역사관이 거대

3 罗新:《遗忘的竞争》,《东方早报·上海书评》,2015.3.8.

담론에 잠식된 역사 속에서 한 줄기, 한 줄기의 생명을 복원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⁴

가오화는 이어서 『대강대해』의 목적은 “1949년 국민당 정부의 대패가 촉발한 중국 인구의 대이동과 이주를 보편적 가치로 성찰하고, 시대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룡잉타이는 이 책에서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 장면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1949년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역사적 사건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녀는 또 전쟁의 공과를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내전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대만에 이주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존경심을 드러낸다⁵. 가오화가 포착하고 있는 룡잉타이의 핵심가치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리고 룡의 “인문적이고 인도적인 역사관이 소시민의 삶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가 정치적이고 지배적인 이념적 서사를 해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가오화가 보기에 룡잉타이는 ‘내전의 공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한 채 인도주의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전쟁의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 역사적 기억의 저울에 동등하게 올려놓는다. 하지만 룡잉타이 자신이 ‘패배자의 후대’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룡잉타이가 패배자의 가치, 생각, 행동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전쟁의 패자이기 때문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일까? 룡의 말대로 전쟁에 승패가 없다면, 왜 그녀는 패배자의 후대를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

한편으로 『대강대해』는 소시민에 초점을 맞춘 인도주의적이고 동정적인 서사 속에서 역사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풀 수 없는 가족과 국가의 틈새, 그리고 국공 양측 사이에서 결연히 양자택일의 의지를 보인다. 결국 룡잉타이가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부수는 격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 가오화는 핵심을 찌르는 훌륭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정작 룡잉타이 본인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당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신기루처럼 취약해지며 결국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1949년초에 장제스의 총통 바통을 이어받은 천청평(陈诚奉)은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인민이 우선이고 민생이 우선이다’를 대만 통치 철학으로 선언했다. 그는 ‘삼칠오 감세(三七五减租)’를 시작으로 사회기반을 다져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만의 성패와 직결된 것들이었다. 룡잉타이는 1949년 망명이 아닌, 패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가치를 다져 나간 대만인들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⁶

4 高华：《六十年来家国，万千心事谁诉——读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札记》，《领导者》总第34期，2010.6.

5 高华：《六十年来家国，万千心事谁诉——读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札记》，《领导者》总第34期，2010.6.

6 高华：《六十年来家国，万千心事谁诉——读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札记》，《领导者》总第34期，2010.6.

(2) 양넨첸의 비판

가오화가 『대강대해』를 극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민대 청사연구소(淸史所) 양넨첸(楊念群) 교수는 룡잉타이의 역사관을 ‘총알받이 역사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1949년 중국 국공내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 대해 단순한 인도주의적 훈계로는 이해할 수 없다. 환갑의 나이에 근접한, 견식이 풍부한 ‘빨간 모자(小红帽)’ (역자주: 독일의 그림 형제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 룡잉타이가 역사의 정글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늑대 할머니를 만났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빨간 모자’는 너무 강인했고, 매번 날카로운 언변으로 늑대 할머니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산다칸 수용소에서 국민당 포로를 학대하고 죽인 대만 감독관, 피비린내나는 화이하이 전투에서 배를 굶아야 했던 최전선의 국민당 군대, 죽음을 무릅쓰고 포탄을 뚫고 나간 인민해방군 병사들, 이들은 모두 전쟁의 먼지 속에서 표류하는 슬픈 줄인형처럼 각종 역사적 사건에 조종된다. 국적, 국경, 해협을 초월한 이 장엄한 서사가 드러낸 것은 시대의 ‘억눌린 상처’였다. 그들의 흥건한 피가 흠뻑러져 이 시대의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짓밟히고 굴욕 당하고 부상을 입은 패배자들의 이야기, 결국 전쟁에서 승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의 폭력성이 경중과 경계에 관계없이 비탄받을 때 전쟁의 의미는 완전히 해체되며 ‘총알받이론’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물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눈물에 가려 ‘정의론’은 승자와 패자에 대한 논의 속에서 초점을 잃게 된다⁷. 양넨첸이 볼 때 소시민의 희로애락을 다룬 이러한 종류의 역사 서사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슬픈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해체해 버린다. 즉 전쟁에 참여하거나 헌신한 병사들의 삶의 주체성을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 참가자들은 철저히 무시받고 이용당하는 ‘총알받이’로 전락했다.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당사자들은 역사 기억의 영역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이 부활은 ‘생명의 의미와 가치’라는 잣대 속에서 또 한 번 내려진 사형선고의 다른 이름이었다. 더욱이 양넨첸은 룡잉타이의 사료 수집과 역사기술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도주의적 입장’에 모순되는 증거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진정으로 역사속으로 스며들어갈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중반 중국 역사가 직면한 핵심적인 질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 차원의 의견 불일치 경험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화해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위대한 역사적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전쟁에 참여했던 개인들의 구체적인 감정과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시대의 만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까? 동정적인 이해는 곧 비판과 성찰의 강도 약화를 의미하는 걸까? 대인 간, 세대 간, 정당 간 대화와 화해에서 역사적 기억과 역사 쓰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7 楊念群:《龙应台炮灰史观的煽情与阙失》, 共识网, 2013.12.15.

(3) 역사 기억의 진실성과 애매성의 관계

2월 28일 사건을 다룬 글에서 우나이더(吳乃德)는 역사 기억의 진정성과 모호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민족적인 상상력과 열망에 공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억을 잘라내야 한다. 따라서 ‘기억’과 ‘역사’는 종종 완전히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기억은 비역사적(ahistorical)이고, 심지어 반역사적(anti-historical)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복잡성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또 한 걸음 떨어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덕적 모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집단 기억은 역사의 모호성을 단순화하거나 심지어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화되고 심지어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적 기억이 도덕적 교훈과 계시로 가득 차 있더라도 사회적 이성과 진실 추구에는 위배된다. 또 역사학자, 미래 세대, 무엇보다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호한 역사 기억은 일부 사람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호소력을 잃게 된다. 서로 다른 에스닉 집단(族群)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는 제각각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역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만드는 데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공유된 역사적 기억이 국가 형성의 핵심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어쩌면 일부 역사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역사 기억이 학문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⁸

통잉타이 자신도 역사 습작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떤 사건의 전모를 다 알려줄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국토에서 그렇게 복잡한 역사, 그렇게 서로 갈라진 해석들, 또 그렇게 모호하고 복잡하게 뒤엉킨 진실들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복원이 불가능한 기억들, 그래서 나는 ‘전모’에 대해 회의적이다. 설사 그 전모를 알고 있다 한들, 어떤 문자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단편적인 것들로 그 전모를 제시하는 역사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기억하고 발견하고 느낀 것들은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감수와 전달에 불과하다.”⁹

우나이더가 주목했던 것은 ‘모호한 역사기억’과 ‘도덕적 모호성’이었다. 전자는 절단, 압제, 의도적인 인도, 망각 과정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 ‘두리몽실한 이미지(笼统印象)’이다. 후자는 특정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므로 도덕, 가치, 이해관계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그러한 편견이 역사

8 吳乃德：《历史记忆中的模糊与未知》，台北：《思想》，第21期，2012.5.

9 龙应台：《大江大海：一九四九》，香港：天地图书有限公司，2009年版，p.174.

인식과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워츠(Benjamin Isadore Schwartz)는 『인간의 실존적 복잡성』에서 역사 연구의 끝없는 딜레마를 찾아낸다. 룽잉타이는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극도로 개인적인 접근법을 통해 ‘일부를 통해 전체를 드러내려는 역사적 시각’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깨달았다. 그러나 ‘패배자’를 위해 펜을 들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서술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역사를 재현하려는 그의 초기 의지는 복잡한 역사와 인간성의 복잡함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충만할수록 독자들은 쉽게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독자가 역사에서 포착하려는 기억은 종종 자신의 자아가 투영된 정체성과 감정이며, 역사라는 강물 속에서 건져 올리고 싶은 것은 종종 뒤집힌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곧 역사와 기억 사이의 영원한 긴장관계이다.

우나이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화되고 심지어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적 기억이 도덕적 교훈과 계시로 가득 차 있더라도 사회적 이성과 진실 추구에는 위배된다. 또 역사학자, 미래 세대, 무엇보다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대만 본토 주민들에게 패배자 국민당군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외부 침입자였다. 약자 밑에 또 약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종종 정의와 윤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앞서 인용한 쉬쥔윈(许倬云)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본토 상류층 엘리트의 대만 유입에 대해 일부 본토 엘리트들은 지역 정치 및 경제계 엘리트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식한다.

중국 본토의 20세기 중반 ‘이전의 30년’과 ‘이후의 30년’ 사이 ‘역사적 화해’ 이슈를 논의할 때, 본인은 “사회 공동체의 자기 재생과 문화 전수를 위해 기억을 현대화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기억은 절대적으로 증오를 부추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다. 기억은 민족의 자기 치유 과정에 가까우며,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의 집단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특별한 형태가 된다.”¹¹이 주제는 대만해협 양안의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이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의 가치를 보다 폭넓고 깊게 탐구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며 성찰해야 한다.

2. 『관산탈로(关山夺路)』의 예

지식인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또 다른 작품들은 2009년에 대만(중국어 간체판으로는 2013년 베이징 산렌출판사에서 출판)에서 출판된 미국계 중국인 작가 왕딩훙(王鼎钧)의 4부작 회고록이다. 이 중 특

10 이에 Timothy Brook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역사학자는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도덕적 지식을 제작하는 역할이 아니다. 역사학자의 목표는 과거의 이야기나 현재의 독자를 비판하기 위해 잘못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과 위치에서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조건들이 관련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에 있다.” 상세한 내용은 티모시의 저서 《秩序的沦陷：抗战初期的江南五城》，潘敏译，商务印书馆，2015년，p.281참고.

11 唐小兵：《让历史记忆照亮未来》，《读书》，2014年第2期。

히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의 내전 역사를 국민당 헌병과 인민해방군 포로의 시점에서 다룬 『관산탈로 (关山夺路)』는 가오화, 왕치성과 같은 역사학자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왕치성은 왕딩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왕딩진은 늘 ‘작은인물’의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개인의 명성과 이익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더 주목한다. 또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던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려고 시도한다. 그는 전문적인 관찰력으로 난세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했으며, 10여년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담백하게 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거창하지도 않은 필치로 영혼을 달랜다¹².

회고록 성격을 띤 『관산탈로』는 역사적 서사에 대한 중층적인 긴장감을 제시하며, 이러한 긴장과 서술적 딜레마는 작가의 서술 충위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는 독자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역사인지와 틀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공 양당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왕딩진은 패배한 국민당과 그 군대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듯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강자와 약자 사이 역학관계 전환을 모색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패배자 일본과, 국민당 및 소련군에 대해, 특히 승전국으로서의 소련에 대해 어떠한 공감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패배자의 ‘존엄성’에 대해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왕딩진의 역사 기억의 가치 기반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논리가 아니며 (물론 책 전체에서 그는 항상 약자와 패자에게 동정심을 보인다), 승자는 왕이고 패자는 적이라는 패권주의적 논리도 아니다.

의미심장한 그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20세기 중반 전쟁의 기억에 대한 우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전쟁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처럼 전쟁의 도덕적 모호함과 감정적 강렬함이 독특하게 뒤섞여 우리의 이성의 댐을 무너뜨리고 있다. 가령, 책의 제1부에서 다뤘던 전쟁 승리 후 ‘일본 포로와 일본 교민’에 대해, 왕딩진은 패배자 일본군이 체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그 어떤 비애의 표정이나 아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묘사한다. 작가의 말을 빌면 “어쨌든 일본 군인은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었고 일본 정부는 그들을 낭비했다.”¹³

이와 대조적으로 왕딩진은 국민당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장에서 군관은 지고지상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적과 내통한다는 핑계로 혹은 전투력이 엉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고급 장교들은 이렇게 수천명 병사의 생명을 담보로 진급과 투항에 이용해왔다. 그들의 부하들은 재편을 거친 후에도 이 전장에서 죽지 않으면 또 다른 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군인 사이의 이러한 우월론에 반감을 갖고 있다.”¹⁴ 똑같이 전장의 패배자 가족이었지만, 일본 여성들은

12 王奇生：《真实的历史比小说精彩——读王鼎钧回忆录》，新京报书评周刊，2013.3.29.

13 王鼎钧：《关山夺路》，三联书店，2013年版，p.78.

14 王鼎钧：《关山夺路》，三联书店，2013年版，p.78.

물건을 팔고 음식을 행상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일본으로 돌아갈 여비를 벌려고 애썼다. 또 중개인의 횡포에 못 이겨 중국 장교에게 몸을 팔아 일본 남성의 품위를 지켰다.

왕딩쥔의 역사적 기억은 역사 앞에서 인간의 감정과 윤리의 복잡성을 잘 보여 준다. 침략과 반침략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저항은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었지만, 이 정의가 중국 군인과 민간인의 행동이 정의롭거나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패전국으로서 일본군과 그 가족들은 전쟁의 기억 속에서 동정받는 약자가 아니라 마치 승전국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것처럼 혹은 ‘약자의 존엄성’을 획득한 것처럼 묘사된다. 승리가 곧 정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며 패배 또한 반드시 굴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왕딩쥔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태도, 감정이 국민국가의 틀을 초월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역사 속 특정 개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우리와 그 시대 사이의 본질적인 연대감을 구성할 수 있을까? 역사학이 고발의 역사학이나 성패에 따라 선악이 갈리는 역사학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역사학의 의미는 무엇일까? 패배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존중의 논리에 익숙해질 때, 성찰과 비판은 휘청대는 신기루에 그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전쟁에 대한 기억이 도달할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마치면서

인류학자 왕밍커(王明珂)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과거를 애써 이야기하려고 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여 당대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타인의 기억을 삭제하는 작업도 뒤따른다. 자서전, 전기, 그리고 구술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사회를 향해 강력하게 드러내는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의 과거는 사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굴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해석권을 둘러싼 싸움이며, 또 인정과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기도 하다.”¹⁵

20세기 중반의 중국의 역사적 기억은, 정부 주도의 역사적 기억이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회고록이나 구술사든, 혹은 작가와 학자들의 역사적 글쓰기를 포함하여, 모두 자신들의 20세기 중반 중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인식 구조를 ‘일반화’ 하고 ‘보편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글쓰기와 기억의 정서적 동기를 파헤쳐보면, 일반적으로 휴머니즘적 가치관, 혹은 역사의 성패에 대한 이성적 반성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전자는 종종 비평가들로부터 ‘연민이 이성을 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고, 후자는 종종 ‘이성적인 반성이 역

15 王明珂：《自传、传记与口述历史的社会记忆本质》，台北：《思与言》，34卷第3期，1996年。

사적 구조와 행동 속에서 희생한 개인을 묻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¹⁶.

특히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개인적인 역사적 기억들이 크게 늘어난 것(예를 들어, 수년 동안 출판된 수많은 회고록과 구술사 등)이 사람들 사이, 정당 간, 세대 간 화해를 촉진하는 대신 중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며, 역사적 기억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적 고통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정치와 전쟁의 비극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장엄한 역사의 시간 속에 숨겨진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 기억과 역사 쓰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역사적 기억과 글쓰기는 ‘부분적’ 이긴 하지만 깊이와 구체성을 갖춘,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각기 다른 역사적 회상자와 작가들이 자신 ‘장님’ (즉 개인의 편향성, 지식과 정보의 제한성, 표현력과 기억력의 미흡함 등)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끼리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넓은 전체인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작가는 자신의 역사적 글쓰기를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다루게 된다.

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적 기억을 조망하면, 룽잉타이의 역사 습작이나 왕딩전의 역사 기억이 중국 현대 사회에서 역사적 자원을 동원하여 계몽의 불씨를 지피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심도 있게 고민해볼 가치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가치적 계몽이 반드시 역사적 진실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역사와 현실을 비추어보면, 계몽과 역사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긴장감이 존재하며, 이 긴장감과 딜레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과 충돌은 항상 중국의 당대 공공 생활에 거친 파도를 몰아왔다. 우리가 특정한 역사 페이지를 되짚어보고, 재평가하고, 기록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대해야 할 심층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다.

16 这部分的思考, 得益于与中国社科院近代史研究所李志毓博士的一次深入讨论, 谨致谢意。

제 2 세션
교육

발표 3 (일본)



일본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릿쿄대)]

들어가며

20세기 전반 일본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그 후 일본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종종 역사교과서가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1982년에는 일본 정부의 고교 일본사 교과서 검정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항의하며 최초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했다¹. 또 1997년 설립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일명 ‘만드는 모임’)은 기존 역사교과서가 ‘자학적’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스로 역사교과서를 제작해 큰 관심을 끌었다².

그러나 역사교육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달해왔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교육은 교과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에 정부 기준(학습지도요령)과 검정이 있고 교과서의 주요 집필자가 역사학자라고 해도, 교육현장에는 교육자와 자녀들의 부모를 비롯해 사회의 의향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

교과서와 교육현장 레벨을 구분함으로써 일본 역사교육의 중요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교육현장에서 근현대사, 특히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최근까지 강했다는 것이다.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세계와 일본의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역사총합(歴史総合)’이 필수과목으로 신설된 것은 이런 상황을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본발표에서는, 먼저 일본 역사교과서검정 등의 제도를 확인한 후 근현대사의 전쟁·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을 개관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교육 현장에

1 波多野澄雄『国家と歴史』中央公論新社, 2011년.

2 三谷博「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劉傑 외편『国境を越える歴史認識』東京大学出版会, 2006년).

대해 교원들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왔는지,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제한된 자료로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신설과 목 ‘역사총합’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본다.

1. 역사교과서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1) 교과서 검정제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다

일본의 학교 교과서는 1903년 국정제도로 채택됐으나, 패전 직후인 1947년 GHQ 점령 하에 정해진 학교교육법에서 검정제도로 바뀌었다. 그 구조는 ① 민간기업이 교과서를 제작한다, ②문부과학성(2001년 이전에는 문부성)이 이들 교과서를 검정한다, ③합격한 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채택된다, 라는 내용이다. ①은 복수의 민간 출판사들이 각각 대학 역사학자나 중고 교원에게 집필을 의뢰해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또 ③에서는 일반 공립중학교의 경우, 여러 지자체별로 채택지구협의회가 조직돼, 교원 등의 조사·연구를 거쳐 교과서가 채택된다³. 고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별로 교과서가 채택된다.

②의 검정과 관련해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운용방법이 상당히 변화해 왔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이에나가 재판’을 통해 일어났다.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집필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는 처음 검정을 받은 1952년부터 불합격이 이어졌고, 1964년에는 다수의 수정을 조건으로 처음 합격됐다. 쟁점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었고, 이에나가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무모한 전쟁’과 ‘전장에서서의 잔학 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史実)을 실증적,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⁴.

그러나 당시 검정이 ‘사실(史実)’이냐 아니냐에 그치지 않고 역사관이나 학설, 해석에도 관계되었음은 명백했다⁵. 이에나가는 1965년 이후, 교과서 검정은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장기간 법정에서 다퉈다. 재판소는 문부성의 검정권을 인정하되, 개별 검정에는 자의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부성도 1977년에는 검정 이의제기권 등을 인정했다⁶.

검정제도 운용이 그 다음으로 크게 변화한 것은 1982년 ‘역사교과서문제’ 때문이다. 고교 일본사 교과서 검정에서, 일본군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기술이 ‘진출’로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항의했다. 중한 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자민당 정권은, 교과서

3 三谷「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

4 家永三郎『一歴史学者の歩み』岩波書店, 2003년, 教科書検定訴訟を支援する全国連絡会編『家永・教科書裁判 第1部 準備書面編』総合図書, 1967년, 465~466쪽.

5 大槻健・尾山宏・徳武敏夫 편『教科書黒書』労働旬報社, 1969년, 豊田武「歴史教育のあり方」『読売新聞』1960년5월16일(석간).

6 三谷「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 波多野『国家と歴史』132~136쪽.

검정 기준에 ‘근린제국조항(近隣諸国条項)’을 추가했다. ‘근린 아시아 국가와 사이에 근현대 역사적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이해와 국제공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을 기준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⁷.

이에나가 재판과 역사교과서문제는 교과서 검정제도에 투명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검정 대부분이 기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헌조사 등 역사기술의 정확성에 관한 확인이고, 역사관에 개입하지 않도록 검정범위가 의식적으로 한정되어 있다⁸.

다만 최근에는 제3의 변화로,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제국조항’과는 다른 취지의 변경이 가해지고 있다. 우선 2014년에는 ‘근현대 역사적 사건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할 것, 또한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정해졌다⁹. 게다가 2021년에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위안부’가 ‘적절’한 용어로 채택됐다. 또한, 징용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 동원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아닌 ‘징용’으로만 표기하게 됐다¹⁰.

이 같은 최근 검정기준 변경도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뤄졌지만, 자국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일본 사회 일각의 뿌리 깊은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도 검정기준의 명시적 변경을 통해서만,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수사를 사용해야만 교과서 기술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이에나가 재판과 역사교과서문제를 거치면서 교과서 검정제도가 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교과서에는 무엇이 쓰여 왔는가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파악해 왔을까? 이 발표에서는 주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논조를 개관한다.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문부성(문과성)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이다.

중학교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일본인이 받아온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전후 초기 진학률이 낮았던 데다¹¹, 후술하듯 역사교육의 구성이 1994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일관된 분석이 어렵

7 문부성이 실제로는 ‘침략’에서 ‘진출’로 고쳐 쓰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침략이라는 단어를 피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이었다. 三谷「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 波多野『国家と歴史』136~147쪽.

8 三谷「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 三谷芳幸「歴史教科書と検定の論理」『歴史学研究』제1032호, 2023년2월.

9 「教科用図書検定基準の改正」2014년1월(「教科書検定の改善等について」문과성 웹사이트).

10 「從軍慰安婦は慰安婦に 教科書検定, 閣議決定で出版社が修正 「負の部分」を薄める」現場から懸念『東京新聞』2022년3월30일. <https://www.tokyo-np.co.jp/article/168575> 이 변경은 아래 두 건의 각의 결정에 근거한다. 「衆議院議員馬場伸幸君提出「從軍慰安婦」等の表現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2021년4월27일, 「衆議院議員馬場伸幸君提出「強制連行」「強制労働」という表現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2021년4월27일.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204097.htm>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204098.htm>

또한 징용이란 국민징용령(1939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가리킨다.

11 「学校基本調査 年次統計 進学率(1948年~)」(e-Stat).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47040>>

다. 한편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원시 및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에 대해, 세계사를 섞어가며 주로 일본사를 배우는 형식이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① 1955년 전후

먼저 역사교과서 검정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은 1955년 전후의 교과서를 살펴보자¹². 이미 이 시기에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나아가 태평양전쟁으로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패전을, 전체적으로 잘못으로 간주하는 논조가 확립되어 있었다.

상당수 교과서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분명히 침략으로 간주했다. 또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명확하게 침략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많은 교과서는 중일전쟁이 미일간의 대립을 초래해, 태평양전쟁의 개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¹³. 이는 아마도 일본이 패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교과서는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이라는 장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45년 8월 6일, 우리 일본인들은 인류가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섬뜩한 일에 맞닥뜨렸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옥 바닥으로 떨어졌다. (중략) 두 번 다시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내, 그것이 초래한 것들을 깊게 되새기도록 하자.¹⁴

패전 후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당시 일본 사회에 있어서, 아이들을 포함해 전쟁이 초래한 피해는 기억에 생생한 공통체험이었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 공통체험을 전제로 일본이 침략전쟁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 패전이라는 피해를 불러왔다고 설명하는 것이다¹⁵. 다만 당시 교과서가 언급한 전쟁의 피해란, 일본인의 피해뿐이었다. 이에 대응하듯 중국에 대한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책임을 교과서는 거의 군부에만 전가했다¹⁶.

또한 1955년 전후의 교과서는 중국 침략이나 태평양 전쟁을 잘못으로 간주하는 한편,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식민지(대만과 조선) 사람들의 자유는 늘 억눌리기 쉬웠다’

12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에서 검정교과서 사용이 시작된 것은 1952년이다. 小山常実『歴史教科書の歴史』草思社, 2001년, 40~41쪽.

13 森克己·竹内理三·藤木邦彦 편『中学社会 日本と世界 歴史的内容を主とするもの』下, 帝国書院, 1955년, 歴史教育研究会 편『世界の動きと日本の歩み』日本書院, 1955년, 坂本太郎 외 편『中学校社会(歴史的内容を主とするもの)』下, 学校図書, 1955년, 有沢広己 외 감수『新編新しい社会④』東京書籍, 1955년, 豊田武 외 감수『中学校の社会科 近代の世界と日本(改訂版)』中教出版, 1956년.

14 豊田 외 감수『中学校の社会科 近代の世界と日本(改訂版)』114쪽.

15 1960년대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이 전후 출생이었다는 이유로 문부성 교과서 조사관의 지시로 삭제되었다. 大久保佑香里『1946~55年におけるアジア・太平洋戦争の認識と記述』『三田学会雑誌』제108호, 제1호, 2015년 4월, 162~163쪽. 요시다 유타카는 전후 일본인의 전쟁관의 ‘피해자의식’과 ‘지도자 책임관’의 결합을 지적한다. 吉田裕『日本人の戦争観』岩波書店, 2005년, 56~66쪽.

16 小西四郎·家永三郎『社会科 中等歴史』下, 三省堂, 1954년, 150쪽.

고 한마디 언급한 교과서도 있었지만¹⁷, 오히려 한국병합을 ‘대륙으로의 발전’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과서가 주류였다¹⁸. 게다가 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영토 46퍼센트와, 해외의 여러 권익을 상실하고 남은 이 좁은 영토에 8천만 이상의 인구가 갇혀 있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손해를 끼친 국가들에 배상 책임을 다하며, 생계를 이뤄가야 하니, 우리의 장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까.¹⁹

즉 당시 일본 사회는 식민지 포기를 패전이 초래한 피해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역사학자들에게도 거의 결여돼 있던 것이다.

② 1970년 전후

다음으로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해가던 1970년 전후의 교과서를 보자. 중국 침략이나 태평양전쟁에 관한 기술에 큰 변화는 없었고, 전쟁 중 일본인의 고난이나 피해를 크게 다룬 점도 이전과 같다²⁰. 그러나 이 시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교과서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각국이 입은 피해도 언급하게 됐다²¹. 또 한 교과서가 만주사변 이후 ‘군부의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군부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 시각으로부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²².

이 시기 교과서가 이전과 다른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한 취급이다. 대다수 교과서는 한국병합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언급하거나²³, 3.1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²⁴. 또 예외적이긴 하나, 일본의 조선 지배에 경제적 착취라는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한 교과서²⁵나 전쟁 중 조선인 징용을 언급한 교과서²⁶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7 歴史教育研究会 편 『世界の動きと日本の歩み』 284~285 쪽, 坂本 외 편 『中学校社会(歴史的内容)』 下, 79 쪽.

18 森·竹内·藤木 편 『中学社会 日本と世界』 下, 256~257 쪽. ‘좁아진 일본’이라는 시각은 坂本 외 편 『中学校社会(歴史的内容)』 下, 139~140 쪽이나 有沢 외 감수 『新編新しい社会④』 158 쪽에서도 보인다.

19 川崎庸之 외 『新版 標準中学社会II 歴史』 教育出版, 1969년, 笠原一男 외 『中学校社会 歴史的分野』 学校図書, 1972년, 井上智勇 외 『中学社会(歴史的分野)』 大阪書籍, 1972년 및 다음 각주의 교과서.

20 小葉田淳 외 『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971년, 281~283 쪽, 竹内理三 외 『中学校社会 歴史 最新版』 帝国書院, 1972년, 280~281 쪽, 児玉幸多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日本書籍, 1972년, 316 쪽, 鶴飼信成 외 『新しい社会 歴史的分野』 東京書籍, 1972년, 276 쪽.

21 鶴飼 외 『新しい社会 歴史的分野』 269 쪽.

22 鶴飼 외 『新しい社会 歴史的分野』 269 쪽.

23 鶴飼 외 『新しい社会 歴史的分野』 234 쪽, 川崎 외 『新版 標準中学社会II 歴史』 248 쪽, 小葉田 외 『日本の歴史と世界』 237 쪽, 笠原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213 쪽, 児玉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260 쪽.

24 川崎 외 『新版 標準中学社会II 歴史』 278~279 쪽, 小葉田 외 『日本の歴史と世界』 261 쪽, 竹内 외 『中学校社会 歴史 最新版』 262 쪽, 笠原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234 쪽, 井上 외 『中学社会(歴史的分野)』 274 쪽, 児玉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289 쪽(각주).

25 笠原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213 쪽.

26 児玉 외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315 쪽.

③ 1987년

1983년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제국조항이 마련된 뒤인 1987년 교과서를 보자. 대부분의 교과서는 일중전쟁·태평양전쟁에 대해 일본인의 피해뿐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가해라는 측면을 분명히 기술하게 됐다²⁷. 난징사건(난징대학살)이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가 언급했고²⁸, 또 많은 교과서는 동남아 점령에 따른 현지 피해와 저항²⁹과 대만인·조선인 징병³⁰도 언급했다. 이처럼 전시 가해에는 식민지 동원이 포함되지만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이 늘었다. 특히 식민지 지배하 조선에서의 동화정책과 민족 차별, 나아가 전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등 이른바 황민화 정책에 대해 많은 교과서가 다루게 되었다³¹.

이상의 변화는 단순히 근린제국조항의 영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과 근린제국 간 교류가 심화되는 가운데, 역사 연구 진전과 맞물려 일본인의 전쟁 피해에만 눈을 돌리게 하는 교과서 서술이 재검토되면서, 보다 균형 잡힌 서술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④ 2000년대 이후

최근의 교과서 기술에 관해서는 특히 점유율이 큰 두 권만 다룬다. 첫째 만주사변 이후의 중국침략 및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의 관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일본인의 전쟁 피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가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식민지에 대한 동화와 차별, 황민화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 등, 두 교과서는 1987년 시점에 많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논조의 연장상에 있다³².

27 발표자와 시점은 다르나 小山『歴史教科書の歴史』도 중학 역사교과서의 시계열적 분석에서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

28 川田侃 외『新編 新しい社会(歴史)』東京書籍, 1987년, 時野谷勝 외『中学社会〈歴史的分野〉』大阪書籍, 1987년, 石川忠雄 외『中学校社会 歴史的分野』学校図書, 1987년, 護雅夫 외『日本の歴史と世界』清水書院, 1987년, 児玉幸多 외『中学社会 歴史的分野』日本書籍, 1987년, 野村正七 외『新訂 中学社会 歴史的分野』教育出版, 1987년.

29 川田 외편『新編 新しい社会(歴史)』, 時野谷 외『中学社会〈歴史的分野〉』, 護 외『日本の歴史と世界』, 児玉 외『中学社会 歴史的分野』, 野村 외『新訂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30 時野谷 외『中学社会〈歴史的分野〉』, 石川 외『中学校社会 歴史的分野』, 児玉 외『中学社会 歴史的分野』, 野村 외『新訂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31 川田 외편『新編 新しい社会(歴史)』, 時野谷 외『中学社会〈歴史的分野〉』, 護 외『日本の歴史と世界』, 野村 외『新訂 中学社会 歴史的分野』.

32 五味文彦 외『新編新しい社会 歴史』東京書籍, 2006년, 坂上康俊 외編『新編新しい社会 歴史』東京書籍, 2017년, 矢ヶ崎典隆 외『新しい社会 歴史』東京書籍, 2021년, 黒田日出男 외『社会科 中学生の歴史』帝国書院, 2004년, 2017년, 2021년. 2021년에는 도쿄서적이 52.5%, 데이코쿠서원이 25.2% 점유율로, 3위 교이쿠출판은 11.4%였다(「21年度中学校教科書採択状況」『内外教育』2021년2월2일).

또한, 여기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나, 같은 입장을 취한 교과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점유율이 극히 작기 때문이다.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후소사 역사교과서는 검정에 합격한 2001년부터 최종판인 2010년까지 채택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그 뒤 '만드는 모임' 탈퇴한 멤버가 집필한 이쿠호사 역사교과서는 2010년대 3-6%대 채택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이후는 1.0-1.1%로 급감했다. 현재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지류사 역사교과서 연간수요는 수백부로 채택률은 0.0%다. 三谷「日本の歴史教科書の制度と論争構図」, 「扶桑社歴史教科書シェア0.4%」『朝日新聞』2005년10월6일(조간), 「育鵬社の教科書, シェア伸ばす」『朝日新聞』2011년11월2일(조간), 「歴史の教科書, 育鵬社が増加」『朝日新聞』2015년10월31일(조간), 「19年度中学校教科書採択状況」『内外教育』2019년1월29일, 「21年度中学校教科書採択状況」『内外教育』2021년2월2일, 「22年度中学校教科書需要数」『内外教育』2022년2월1일, 「23年度中学校教科書需要数」『内外教育』2023년1월24일.

2. 교육 현장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1) 전후 ~1990 년 전후

교육현장에 초점을 맞추면, 일본의 역사교육은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2년 한 고교생은 신문 투고란에서, 중고교 모두 역사 수업은 “고대나 중세만 자세히 배우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것은 배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어진 교과서는 완전히 마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이 부족해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고, 또 “일본 교사들은 소학교, 중학교, 고교, 대학을 통해, 현대사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³³. 놀랍게도 1990년경에도 이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³⁴.

즉 역사 수업은 원시·고대부터 시작하여 근현대는 시간 부족으로 끝나는 경향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역사 교과서에 무엇이 쓰여 있든,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근대사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거나, 근현대사를 먼저 가르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수업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일면에 불과하다. 오히려 교과서의 순서나 시간 부족이라는 정당화하기 쉬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사, 특히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가 반쯤 자각하지 못한 채 회피된 것이다. 큰 요인은 아마도 일본 사회, 특히 부모 세대의 역사 인식에 있었다.

1971년 중학교 교원 혼다 고에이(本多公栄)는 역사 수업에서 태평양 전쟁을 다뤘다. 마지막에 혼다는 ‘아시아 각국 교과서에서 태평양전쟁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소개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읽게 해 ‘아시아 중학생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다. 학생들은 ‘일본이 전쟁 중 아시아 국가에서 저지른 잔학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와 전혀 다르다’는 것에도 놀랐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지’를 정리한 문집을 읽은 부모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A) 쳐들어가서 심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만으로는 한쪽만의 실수(불공평)로 비치지 않을까요? 이 책(문집)에는 우리에게 대해 쓰여 있지 않네요.

(어머니B)전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우리 집에서도 전사자가 나왔다.

33 近藤克栄「中途半端な歴史の授業」『読売新聞』1962년4월6일(조간), 青木幸寿「現代史教育を充実させよう」『読売新聞』1962년4월16일(조간). 小野ワキ「現代歴史もくわしく教えて」『読売新聞』1967년4월3일(조간)이나 三谷博「歴史教科書問題 序論」(同編『リーディングス日本の教育と社会6 歴史教科書問題』日本図書センター, 2007년) 10쪽에 있는 1960년대 후반 회상과 동일.

34 那須隆志「歴史の授業は、まず現代から(声)」『朝日新聞』1988년12월11일(조간), 「「不幸な時期」どう伝える? 注目集まる日韓歴史教育」『朝日新聞』1990년6월2일(조간), 森田定治「「近現代史」は教師自身が苦手 歴史をどう学ぶか(声)」『朝日新聞』1990년6월9일(조간), 古宮紀子「近・現代史の授業増やして」『読売新聞』1990년12월13일(조간), 「高校の日本史教育は今 近現代に重点置けず」『朝日新聞』1991년2월10일(조간), 荒川理英「高校の「歴史」、近代から始めては(声)」『朝日新聞』1994년7월15일(조간), 「50年目のちがつ」知ること、こそ...戦争を教える授業、まだ不十分/愛知」『朝日新聞』1995년8월29일.

그 책에서 보자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개죽음으로 묘사된 게 너무 안타깝다.

(어머니C) 무엇이든 눈이 가려진 채 좋은 말만 듣던 우리 또래 시절을 몸서리칠 정도로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버지A) 군대에서 명령이 한 번 내려지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실행했던 게 바보 같은 일, 잔혹한 일 중 하나(말)로 정리돼 버린 것은 매우 뜻밖이고 기분이 좋지 않다.

(아버지B) 나쁜 것은 군벌·재벌이지 일본군이 전부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소집된 평범한 일개 시민이 현지인에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한마디 변명 말씀드립니다.

(아버지C)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니,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 당시 전쟁에 내몰렸던 젊은이들의 기분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동시에, 전쟁에 내몰렸던 시대의 경과를 좀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³⁵

당시 부모 세대는 병사로서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서 싸운 자와 그 가족, 또 전쟁 말기 미군의 공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중국침략이나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전쟁은 악이라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전쟁관은, 전쟁으로 일본은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국가권력에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전직 병사들도 군 상층부와 군대 조직에 대한 반발을 통해,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이 침략자이자 가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일반 병사들이 전쟁터나 점령지에서 가해나 잔학행위에 가담한 것은, 당시 부모세대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던 것이다.³⁶

물론 교원들도 부모와 같은 세대였기 때문에 혼다 같은 교원은 예외였다. 혼다의 수업에 대해 배운 교원들은, 자신의 학교에서는 “(전쟁을)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똑같이 가르치고 싶어도 어렵다고 코멘트했다. 혼다에 따르면, 전쟁의 피해는 ‘부모의 체험’ 이어서 가르치기 쉽지만, 가해 측면은 ‘너무 현실이 적나라하다’며 가르치기 어렵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의 원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상당수 학교는 전쟁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에도, 부모나 교원의 피해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 그쳤다.³⁷

이 때문에 자녀들도 가족과의 대화나 학교 교육, 혹은 언론 등을 통해 피해자로서의 전쟁관을 계승했다. 1980년대 말, 한 고교 교사가 일본사 수업에서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했더니 “지금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가장 피해를 본 줄 알았는데” 혹은 “원폭 피해로

35 本多公栄『ぼくらの太平洋戦争』1973년(岩本努 외편『本多公栄著作集』第1巻, ルック, 1994년. 저자 혼다는 1933년생.

36 橋本明子(山岡由美訳)『日本の長い戦後』みすず書房, 2017년, 제2장, 吉田裕『兵士たちの戦後史』岩波書店, 2020년. 또한 197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중전쟁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응답이 46.6%로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26.4%에 머물렀다(吉田『兵士たちの戦後史』210~211쪽).

37 「敗戦三十年座談会・戦争と社会科教育」1975년(岩本 외編『本多公栄著作集』제1권) 321~327, 342~343쪽.

불쌍한 나라로 일본을 생각했었습니다” 라는 반응이 속속 나타났다고 한다³⁸.

식민지 지배의 역사 역시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1990 년 TV 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인터뷰하며 “당신은 과거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일부 “모른다” 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전쟁 중 조선인들에게 심한 일을 저질렀다” 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모르겠다” 고 답했다고 한다. 이미 적었듯 1980 년대 후반이 되면 역사교과서에 식민지배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이해는 전쟁 중 식민지에 대한 어떠한 가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이 뉴스를 본 교사도 중고교에서는 근현대사를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이들과 똑같았다고 고백했다³⁹.

다만 학교 교원이 근현대사를 회피한 요인을 모두 부모 세대의 역사인식에만 돌릴 수는 없다. 1984 년 한 고교 교사는 역사교육에 ‘권위주의적 구조’ 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한 줄의 기술 뒤에는 ‘방대한 사료와 연구사’ 가 있지만,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학 교사가 교재를 이해하는 것처럼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학문의 권위에 의존해 결과를 전달하는 식으로 밖에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 역사는 암기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역사학과 역사교육 사이의 단절을 지적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사는 자신이 “전쟁 중부터 전후에 걸쳐 교육에서의 큰 가치관 전환을 경험” 했기 때문에 “(역사교육에서) 가치관에 책임을 갖는 것” 이 어렵다고 토론했다⁴⁰.

이 지점에서 생각하면 사회 안에서 근현대사, 특히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의 대립이 있는 가운데, 교원도 학생도 (혹은 부모도)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면, 역사교과서에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2) 1990 년 전후 - 2020 년 전후

1990 년 전후에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그 배경에는 중국·한국과의 교류 심화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냉전의 종식이 있었다. 또한 이 무렵에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역사는 학교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면 거의 알 수 없게 되었다⁴¹.

첫째, 1987 년 원안이 작성되고 1994 년부터 실시된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의 위상이 바뀌었다. 종래 고교에서는 일본사와 세계사 모두 선택과목이었지만, 세계화를 의식해 세계사가 필수과목이 되었다. 또 일본사·세계사 모

38 波多野淑子「生徒の戦争観をめぐって」『日本史教育研究』제 109 호, 1989 년 5 월.

39 井上岳史「近・現代史を学ぶには」『日本史教育研究』제 113 호, 1990 년 7 월.

40 이 교원은 근현대사에 대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연표 형식의 자료를 배부하는 데 그쳤다. 村瀬克己「問題提起 納得して学ぶこと」(日本史教育研究会編『入門・日本史教育』山川出版社, 1989 년) 66~70 쪽, 沢沢新二「村瀬氏発表・討議報告」71~75 쪽.

41 成田龍一『増補「戦争経験」の戦後史』岩波書店, 2020 년, 275 쪽.

두 근현대 중심의 A과목과 전 시대를 다루는 B과목이 도입됐다⁴². 다만 A과목은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약 절반)이나 대학입시에 일본사나 세계사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선택했다.

그러나 둘째, 대학입시에서도 1990년경부터 근현대사에 관한 출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입시에서 근현대사 출제 부족이 고교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구실로 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⁴³.

셋째, 신문 등도 학교 교육에서 근현대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990년 5월 한국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천황(현 상황)이 궁중 만찬회에서 “우리나라에 의해 (조선반도에) 초래된…불행한 시기”를 언급한 것도 한 가지 계기가 됐다⁴⁴.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에야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근현대사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근현대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이 시기 교원이나 부모는 더 이상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 이미 논했듯 그들 자신도 역사교육으로 20세기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았다. 물론 ‘전쟁 중의 일, 전후 식량난, 아버지 세대의 전쟁 체험담 등 지극히 자연스럽게 듣고 자란’ 교원⁴⁵도 있었지만 그러한 계승된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전쟁관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역사교과서와 차이가 컸다.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2005년과 2022년 대학생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의 근현대사교육에 대해 고찰한다⁴⁶.

먼저 고등학교에서 일본 근현대사를 어디까지 배웠는지 물었다. 2005년에는 근현대사를 거의 배우지 않은 학생이 16%였다. 1920년대까지가 9%, 1930년대까지가 13%, 1945년까지가 16%, 전후(1950년)까지가 22%, 1990년대까지가 22%였다. 2022년에는 근현대를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은 2%뿐이었고, 1945년까지가 9%, 전후(1969년)까지가 16%, 1990년대나 그 이후까지가 73%였다. 이 숫자들을 보면, 고교에서 근현대사를 배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사 수업에 대한 감상을 들어보면,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주된 목적이 대학입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우기만 한다’, 즉 시험을 위한 암기과목이었다는 응답이 2005년에는 33%, 2022년에는 23%를 차지했다. 암기란 ‘지식의 주입’, 다시 말해 ‘스토리’의 겉여였다(2022년). 그 외에도 ‘입시에서 필요한 범위를 끝내기 위해 빠른 진도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감상이나(2022년),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했지만 그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수업이 적었다’는 감상도 있었다(2022년). 원시·고대부터 시작되어 근현대에 충분히

42 「教育課程の基準の改善について 昭和62年12月29日教育課程審議会最終答申」『教育情報研究』제3권제4호, 1987년. <https://doi.org/10.20694/jjsei.3.4_64>

43 「大学入試, 近・現代史の出題が増えてます 歴史の変動反映か」『朝日新聞』1993년2월26일(조간).

44 「「不幸な時期」どう伝える? 注目集まる日韓歴史教育」『朝日新聞』1990년6월2일(조간). 당시의 천황 발언은 궁내청 웹사이트「主な式典におけるおことば(平成2年)」를 참조. <<https://www.kunaicho.go.jp/okotoba/01/okotoba/okotoba-h02e.html>>

45 松本馨「「story日本の歴史 近現代史編」編集中間報告」『日本史教育研究』제146호, 1999년7월.

46 2005년은 호세이대학 문학부에서 ‘일본현대사’를 수강한 45명, 2022년은 간사이대학 법학부에서 ‘일본정치사’를 수강한 64명의 응답이다. 설문조사 응답에서 이들 학생은 고교에서 ‘일본사B’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구성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시험을 위한 암기사항 열거에 일관해 ‘말하기’는 회피되기 쉬운 것이다.

물론 근현대사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교원도 있었지만, 그러한 수업은 때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근현대사가 되면 가급적 깊이 다루려 하지 않는 수업과 선생님의 사상을 강하게 드러내는 수업으로 양극화된 인상’이라는 감상이다(2022년). 이 배경에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일본의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가르쳐 주고 자기 나라를 좋아하게끔 가르쳐 줬으면 했다’는 감상에서 짐작할 수 있다(2005년)⁴⁷.

다만 교육현장에서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한 가지 요인은, 앞서 언급한 역사교육의 ‘권위주의적 구조’에도 있을 것이다. ‘아이누나 오키나와나 전쟁 모두 수업에서 조사하고……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일본사 수업에 대해 “상당히 혜택을 받은 편”이라고 회고했다(2005년).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처럼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을까 싶다.

3. ‘역사종합’의 시도

2016년 원안이 작성되고, 201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2022년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 ‘역사종합’이 신설되면서,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과목을 모든 고등학생이 배우게 됐다⁴⁸. 그 기초가 된 일본학술회의의 제언(2014년)에 따르면, 역사종합의 목적은 ‘젊은 세대에 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부여한다’는 것, 특히 ‘근대에 일본과 인근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이 ‘거의 무지’한 현상향 개선에 있었다⁴⁹. 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근현대사 교육 회피 경향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 것이다.

역사종합의 또 다른 특징은 자료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물음을 제시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강의’와 ‘기억’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으로부터 ‘왜, 어째서’라는 물음에 학생 스스로가 노력함으로써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역사교육으로의 전환이다⁵⁰. 이는 역사교육의 ‘권위주의적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현재 간행되고 있는 많은 역사종합 교과서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근현대사

47 세계사 교원인 오가와 코우지(小川幸司)는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한 역사인식문제, 즉 위안부 문제, 전쟁 책임문제, 영토문제 등에 대해 교사는 교실에서 회피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요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업에서 “역사 대화를 했다고 해도, 학생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서로의 감정이 충돌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井野瀬久美恵・小川幸司・成田龍一(「討議」転換期の歴史教育/歴史教育の転換)『思想』제118호, 2023년4월, 18쪽.

48 文部科学省「【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2018년.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19/11/22/1407073_03_2_2.pdf>

49 日本学術会議史学委員会高校歴史教育に関する分科会「提言 再び高校歴史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2014년. <<https://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2-t193-4.pdf>>

50 文部科学省「【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 日本学術会議史学委員会高校歴史教育に関する分科会「提言 再び高校歴史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

를 다루고 있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종래와 다른 역사교육 이념에 충실하게끔, 질문과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적극 독려하는 교과서도 있다⁵¹.

다만 교육현장에서 역사종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적지 않다. 종래에 고교에서는 일본사와 세계사 담당 교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양측을 통합해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원 측의 노력이 필수적이다⁵². 질문과 자료를 활용한 역사교육으로의 전환 또한 마찬가지다. 아울러 역사종합은 1년에 주 2회 수업으로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다루기 때문에 시간부족이 우려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18세기나 19세기에 대한 기술을 충실히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안다. 즉 근현대사 회피 경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도는 다난하나 적어도 근현대사, 특히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에 대해 일본인들이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역사교육은 바뀌어 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51 일례로 발표자가 집필에 참가한 久保文明 외『現代の歴史総合』(山川出版社)를 들 수 있다. 塩出浩之『現代の歴史総合 みる・読みとく・考える』三つのねらい『山川歴史PRESS』제3호, 2021년8월. <https://ywl.jp/view/JVvwE>

또한 역사종합에도 '만드는 모임'의 관계자가 참여한 메이세이샤의 교과서가 있으나, 그 점유율은 0.5-0.6%다. 「22年度高校教科書採択状況」『内外教育』2022년2월15일, 「23年度高等学校教科書採択状況」『内外教育』2023년2월7일.

52 「日本史も世界史も、手探りの教員」『朝日新聞』2022년6월5일(조간), 矢野慎一「私の視点 新科目「歴史総合」 教師の意識改革に課題」『朝日新聞』2022년9월22일(조간).

【토론·질의응답】 제2세션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사회: 남 기정 (서울대)

발언: 가와시마 케이이치 (도시샤 중학교 · 고등학교)

(발언순) 타마키 케이 (시바우라공업대학 가시와고등학교)

김 호 (서울대)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탕 샤오빙 (화둥사범대)

김 태웅 (서울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연 (일본어), 홍용일 (중국어)]



남 기정 제2세션에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 한중일 각각 지금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경위,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발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단한 질문부터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약간 보충적인 문제들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통역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요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지 하는 것도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갖춰야 할 품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국어로 해주시고, 자신의 이름과 사용 언어를 먼저 밝혀주시고, 반드시 핸드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또는 굉장히 특별하게 본인이 사용하는 개념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자어로 채팅창을 통해 적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질문은 1분 이내, 코멘트는 2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는지, 지금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본인의 감상이나 조금 더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인사를 나눈 두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와시마 케이지 님 부탁드립니다.

가와시마 케이이치

도시샤고등학교 가와시마 케이이치라고 합니다. ‘세계사B’와 새롭게 시작된 ‘역사총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멘트도 괜찮을까요?

미타니 선생님도 지적하셨듯 교과서에는 많은 역사적 사실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그것을 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인식하기에는 저 자신도 좀처럼 실천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중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과목이 모두 폐지되고 2022년도부터 새롭게 ‘역사총합’,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로 모든 것이 일신돼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히 2~3일 전 저와 미타니 선생님도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 연계 역사교육연구회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역사총합’을 어떻게 진행시킬까 하는 고민을 마침 서로 이야기한 참입니다. 역시 가해의 역사, 피해의 역사를 중층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지만 이상입니다.

다마키 케이

시바우라공업대 가시와중고등학교에서 온 다마키 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역사총합’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지도한 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관련해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라는 시대구분, 통사로 구분되었지만, ‘역사총합’으로 바뀌고 주제로 구분된 것이 매우 획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대화’라는 주제, 또 ‘대중화’라는 주제, 그리고 ‘글로벌화’라는 주제 등입니다. 일단 시대적으로 17, 18세기경부터 현대까지 다소 시계열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주제로 구분됨으로써 굉장히 대화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한편 주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 이야기가 몇 번씩 나옵니다. 시대를 오가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지 조금 혼란스럽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하는 쪽이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역사총합’은 사료를 매우 의식하고 있고,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사료로부터 무엇인가를 읽어내 교사와 대화하거나, 학생끼리 대화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사료, 게다가 외국어를 번역한 사료도 제공해 주셔서 교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점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축적되어 갈 것이고, 저는 그것을 교재화하는 형태로 교육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남 기정

제가 발표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에서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의 시도라고 하는 것도 이 ‘역사총합’ 이라고 하는 것과 발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들어서 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라는 것도 당시 한국에 유행했던 말로, ‘세계화’, ‘지구화’ 이런 탈냉전 이후 한국인에게 굉장히 넓어진 세계에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발상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확인되는 것 같다는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시도나 발상이 혹시 있었는가, 교육 현장에서 오늘 발제자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경우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질의나 아니면 코멘트 또는 문제 제기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계시네요. 그럼 두 분까지 받고, 마지막 세 분께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뒤에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청중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속은 없는 상태이고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를 통해 고등학교, 중학교, 특성화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역사 교육관에 대해 회의가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해서 일본 대학원에 입학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도일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와 제 고민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있어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점이, 이해보다는 지식을 약간 주입하는 게 한국 사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관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외워버리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을 보면 제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다’ 가 나오잖아요. 왜 이게 독립국을 이야기하는지 학생들은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 그 다음부터 계속 발생하는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청일전쟁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게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대학에 와서야 역사를 공부할 때 E. H. 카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에 관한 관점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한국 교육계에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들 자체도 힘듭니다. 교사들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르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교육 현장의 일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도, 국가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그냥 교육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교사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하고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 기정 네, 교육이라는 것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어쩌면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보다도 방법에서 오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 호 서울대 김호입니다. 한국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기회가 있지만 마음이 급해서 먼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탕샤오빙 선생님 발표를 듣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종합역사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상당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샤오빙 선생님의 글 마지막에 ‘가치적 계몽이 반드시 역사적 진실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사적 진실성은 반드시 가치적 계몽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역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 현실을 비추어 보면 계몽과 역사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긴장감이 있고, 이 긴장감과 딜레마 때문에 항상 중국, 일본, 한국의 공공생활에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특정한 역사의 페이지를 되짚어보고, 재평가하고 기록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중함은 곧 역사 교육으로 넘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 이 신중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시고 교육에 적용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내일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사료를 어떻게 읽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남겨주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플로어에서 말씀을 듣고, 세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선생님께는 내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4분 정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먼저 시오데 선생님으로부터 2분 정도씩 얘기를 정리해서 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오데 히로유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역사종합’ 실행의 어려움을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자 두 분에 대한 감상, 코멘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웅 선생님 발표에 대해 매우 저와 관심이 가깝고, 특히 교육 현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치나 사회, 교육의 관계도 잘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쭙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대학입시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의 역사에 대한 수요가 역사 교육 혹은 교과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발표 논문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서의 기억’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기억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교육에도 임팩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중국에서의 역사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탕 선생님께서 반응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십시오.

탕 샤오빙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청중 여러분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호 선생님의 질문, 가치의 계몽과 역사적 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가치 계몽의 전제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 저 또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민간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향에는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시대 역사의 재구성에 대한 시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상당수는 이른바 체제 밖의 일부 역사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민주화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역사 작업들은 역사적 진실과 다양한 자료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역사기술에 온전히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 모종의 가치 확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이런 선택이 편향될 수 있고, 이 편향이 드러날 때 공공 영역에서 전하려는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있어, 역사적 진실을 향해 계속 나아가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진실을 드러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복잡한 면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가진 가치 체계나 지식 구조가 도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해 생각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지속적으로 열린 대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방금 일본의 학자 분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 역시 계속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2018년 초 미국에서 왕딩훙(王鼎鈞) 선생님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역사 연구에는 많은 선도적인 연구가 있고,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곧바로 역사 교과서로 전환되어 역사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역사 연구 결과와 교과서의 역사 서술 사이에 어떤 완충 지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세대마다 배우는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교과서를 계속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와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의 중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통해 이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종종 다양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회고록, 구술 역사, 일기, 편지, 공식 기록 등을 포함해 학생들이 중화민국 시대의 신문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어떤 견해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직접 마주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일본의 학자, 미조구치 유조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분은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역사에 접근할 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역사의 바다로 들어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 직접 느끼고 이해하며 자신만의 역사적 이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역사 지식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제가 가졌던 역사 인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나라와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면, 그 역사 교육이 더 유연하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겪는 주류 담론의 제약 같은 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화된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도 과거의 역사 기억, 전쟁 기억을 다루는 역사 교육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일한 역사 대화 같은 대화 형식이 계속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민주화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이 저에게 큰 영감과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학교의 역사 선생님이 말한 일본 역사의 종합적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대중화, 동서양 문화 교류, 문명의 진화 같은 다양한 주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상하이에서 대학원생일 때, 상하이의 역사 교과서도 이런 식의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문명 비교, 문화 교류의 역사적 인식틀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고, 당시 유행하던 일상생활사, 새로운 문화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상하이사범대학 교수님이 교재를 집필했었는데, 이 교재는 몇 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서양 언론이 이 교재에서 빌 게이츠가 마오쩌둥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20세기 중국 역사의 전체적인 진실과 맞지 않고, 중국이 혁명을 뒤로한 채 전환한다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세기 중국은 혁명의 세기였지, 빌 게이츠의 세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학술적 표현과 정치적 담론 사이에는 영원한 긴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역사학자의 존재 이유와 영원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역사 연구와 주류 정치 담론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웅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 태웅 우선 자료중심 탐구학습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정통 역사교육 연구자나 교사는 아니지만 사범대학을 나왔고, 또 사범대학에 재직하다 보니 이 문제에 관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료 탐구학습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950~60년대에 이미 나왔던 논의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 즉 ‘히스토리컬 싱킹(historical thinking)’을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교육에서 사료중심 탐구학습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은 입학시험 출제 방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제 방식이 오지선다형(五枝選多型)이고 한 개의 정답만이 요구됩니다.

프랑스처럼 학생의 사고 과정과 다양한 답안 작성에 중점을 두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오지선다형 출제방식을 고수하는 한, 사료탐구학습은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역사교사가 탐구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대다수 교수들이 현행 역사교과서를 1970년대 국정교과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료탐구학습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현장 교사들의 노력으로 2000년대 초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래 교과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시험의 출제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 역시 도로무공(徒勞無功)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범대학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시험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더라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탐구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탐구활동을 할 것인가, 포스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회화 작품과 통계 자료를 어떻게 역사교육에 적용할 것인가 등이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국사탐구학습 길잡이’ 같은 단행본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일반 학생과 교사들이 광범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풀이하는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입시가 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한편, 교사나 학생들에게 끊임 없이 의미있는 학습자료, 동기를 유발하는 읽기자료를 만들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 선생님이 언급하는 역사의 모호성, 복잡성을 이해하고 역사에서 선동 구호나 정치적 수단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복잡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사안은 동아시아사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역사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사총합’의 탄생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글로벌 시대에 일본만 혼자 살 수는 없다, 이웃과 같이 살아가려 한다면 학생들과 더불어 정면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탄생하는 맥락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술 기초가 국민국가 형성과정으로 귀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소수자, 소수민족, 이주자 문제, 다문화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근대주권국가로 가는 과정이나 중국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결국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 요소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집필한 글이 최근에 발표한 일제하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화교 노동자에 관한 단행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제하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올해 100주년이 되는 관동 대지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학살과 중국인 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족문제 뿐만 아니라 계급문제, 이주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최근에는 재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관심과 전공분야가 매우 다양한 까닭에 어떤 분은 당신의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는 자기 전공 세계에 몰두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늘 세상과 접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자 문제라든가 재난사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재난사 연구가 지나치게 인류와 기후, 자연과 인류라는 이항대립 구도에 매몰된 나머지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간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피엔스’를 집필했던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접근 방식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학, 역사교육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일찍부터 재난사와 재난 역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는 궤적을 보면서 저도 대학원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역사교육도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같이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이 홍수로 침수되고 도쿄도 마찬가지로 지진, 원전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사 재난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가 방금 탕샤오빙 선생님이 언급하고 계신 주제입니다. ‘다중시각’, 즉 ‘멀티플 퍼스펙티브(multiple perspective)’ 또는 ‘멀티플 포인트 오브 뷰(multiple point of view)’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한제국 평설’을 집필하면서, 이제까지 연구자 중심의 전지적 시점에 입각하여 당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윤치호(尹致昊) 같은 개화파뿐만 아니라 황현(黃玹) 등 보수파, 외국인, 상인 등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담은 자료를 활용하여 당대의 시점과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narrative)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역사가가 과거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현실로 소환하여 내리는 과도한 해석이나 국가 주도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통해 당시를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독자들이 정치 선동에 휘둘리거나 단순 논리로 역사를 재단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적 맥락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다중 시각은 앞으로 유효한 고민거리가 되리라 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역사교과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시각을 담은 사료가 교과서에 수록된다면 학생들은 ‘a 시각’에서부터 ‘z 시각’까지 고려하면서 사료 간의 충돌 이유와 충돌 지점, 역사적 맥락을 고민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역사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입시가 역사 교육의 최대의 방해라고 하는 게 참 인상에 남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의 얘기를 드러내놓고 거리를 확인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확인하고,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또는 그 중첩된 데서 이반되어 나가는 그런 순간에서 접점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대화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이외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 서로 접점과 지점들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 세션
미디어

발표 4 (중국)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偽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

장 페이

난카이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

1931년 9·18사변이 발생한 후, 중국 동북 3성은 함락되고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 하급 장교였던 스밍루(施明儒)는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쓴 일기 『궈인심심-위만장교의 일기』(역자 주: 鞏印深深, 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깊은 자국을 의미)를 남기는데, 이 일기는 그의 번뇌에 찬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만주국’을 위해 봉사해야 했던 군인이었지만 은연 중에 항일 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국면 속에서 그의 심리는 우환과 불안으로부터 수용, 순종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또 그 과정에는 분노, 굴욕, 회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동북지역 점령지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를 표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 연구는 역사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일본군 치하의 강권정권에서 ‘만주국’의 ‘협력자’로 살아야 했던 생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전쟁이 미친 인간 본성의 왜곡을 해석한다. 또한 인간 본성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지금까지 민족국가 시각에서 점령지 역사를 해석해왔던 일원적인 인식구조를 타파하고자 한다.

중국인에게 있어 중일전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재앙 그 자체였다. 일본군은 14년 동안 동북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했다. ‘황관동(闯关东)’(역자주: 명청시기 황허 하류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시달리다 살길을 찾아 만리장성 산해관을 넘어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인 인구 대이동) 이주민이 주축이 된 동북지역 민중들은 외세 침략자와 신정권을 마주했을 때, 민족적 감정과 생존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모순과 혼란, 의구심 등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었다.

중일전쟁에 대한 일부 역사적 사실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점에서 ‘한간(汉奸)’(역자주: 반역자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대일 협력자) 관련 주제는 민감하다. 더불어 ‘만주국’의 ‘한간’ 및 군대에 대한 연구도 중일전쟁사 연구의 약점이 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 연구의 바탕이 된 『궈인심심-위만장교의

일기』¹는 만주국 군인이 남긴 회소 가치가 있는 자료다. 이 일기 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 정리한 기초에서, 역사심리학과 일상 생활사의 관점을 도입하여, 민족주의의 감정, 생명에 대한 열망, 불안과 순응이 어우러진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집단 침략 전략이 점령지민들에게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와 복잡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협력자’ 들과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의 실상과 감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1. ‘만주국’ 장교의 인물상: 스밍루 프로필

1931년 9·18사변 이후, 일본군은 급속히 동북지역 전체를 점령하며, 국민정부가 동북 각성에서 운영하던 행정 관리 체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3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관동군은 ‘만주국’ 설립을 주도했다. 이 13년 동안 일본은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 사회질서와 경제 생산을 신속히 회복해 갔다. 이를 통해 점령군에 대한 반항 정서를 줄이고, 민중들의 동질성 증대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공급을 보장하고, 점령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협력자’가 필요했다.

이 연구에서 ‘부역자’, ‘협력자’, ‘한간’ 등 용어의 구체적 의미와 확장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전쟁 발발시와 전쟁 동안, 그리고 전쟁 후의 ‘한간’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널리 언급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용어들은 전쟁 발발과 전쟁 과정 및 종식 후의 각각의 시기에 따라 각각 상이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복잡한 국가적, 도덕적 감정과 정치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학자 앤드류 릭비(Andrew Rigby)는 점령군을 위해 봉사하는 협력자의 동기, 목적, 심리에 따라 “사적 이익을 위해 무조건 협력하는 배신자, 점령자를 위해 협력하는 애국적 배신자,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적응자,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조건부 협력자”²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협력자’를 정의하자면, 그들은 “점령 권력의 감독과 압력 하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반역’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동북지역이 함락한 동안, 소수의 ‘만주국’ 관료들만이 명백한 반역자가 되었다. 또 일부는 다른 세 가지 범주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협력자와 저항자 사이의 어디인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생활 상태였다.

일기의 주인공, 스밍루는 어쩌면 마지막 세 부류에 속하는 전형일 것이다. 그는 지린성 리수 출신으로 ‘만주국’의 하급 장교이자 동시에 자발적인 비밀 항일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1935년, 스물두살 스밍루는 지린성 고향에서 통신병으로 ‘만주국군’에 참여했다. 이 기간 그는 세, 네 명의 친구와 접촉하여 ‘국민당 동북항일구국사(抗日救國社)’라는 이름의 항일 조직을 창설한다.

1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1-4卷），吉林省政协文史资料委员会，吉林市档案局2011年版，일기의 기간은 1938년1월1일부터 1945년12월31일까지이다(그 중 1944년 일기는 분실)

2 [英]安德魯·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刘成译，译林出版社2003年版，p.23

스밍루는 국민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국민당과 조직적인 연결고리가 없었다. 1937년 두 명의 동료는 순직하면서 이 조직은 실질적인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그후 1938년 스밍루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만주국군' 군사학교에 입학하고, 여기에서 몇몇 애국 청년들을 만난다. 1941년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지린시로 돌아가 '만주국군' 통신대대 부대장으로 임명된다. 같은 해 5월에는 4명의 청년들과 함께 비밀리에 구국사를 재건하면서 조직 원칙 수립과 함께 10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1942년에는 '만주국' 강상군(江上軍, 역자 주: 만주국이 흑룡강과 송화강에 편성한 수상함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린시를 기반으로 더휘이, 쥬타이, 화텐, 판스, 둔화, 자오허, 평티엔 등 지역에 연락처를 설치하였고, 그와 조직원들은 '만주국' 강상군 제1, 제2 편대와 안산(鞍山) 쇼와 제철소를 파괴하려 했지만, 계획이 누설되며 실패한다.”³

결국 그의 항일 활동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무르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겨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스밍루는 오로지 일기를 통해 '만주국'과 일본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뿐이었다. 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일반 민중과 마찬가지로, 친구와 가족을 만나고, 책을 사고 영화를 보며, 가끔은 여행을 다니는 등, 억압과 방황, 순응이 열기설기 얹혀 있는 점령지 청년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스밍루의 이러한 언행을 해부하는 것을 통해 총칼이 겨눠진 생존 환경 속에서 점령지 민중들의 심리 상태와 언행이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 생활 실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생활 곤궁: 그는 왜 '만주국' 군인이 되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덴마크 역사를 연구하는 헨릭 데틀레프센은 점령체제에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새로 군림한 권력자를 수용하는 것은 “모든 역사적 시대에 공통된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⁴이었다고 언급한다. 총칼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대다수 민중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이 확보한 단조로운 생산수단으로는 이주할 수도 없었고, 결국 생존 환경이 침묵과 협력을 이끈다. 이러한 전쟁 사회 특유의 압력을 염두에 두어야 만 우리는 동북지역 점령기 대일 '협력자'를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몸부림, 주저함, 방황, 복종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지녔던 스밍루는 어쩔 수 없이 대일 협력을 받아들였다. 일본인들이 그의 고향을 지배하고 있었고, 전쟁은 민중들에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라는 고통을 동시에 안겼다. 뚜렷한 반일 정서와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스밍루는 1938년 신경(현재의 창춘) 견학 시, 난링(南嶺)을 방문해 전황을 탐문했던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있다. 견학 도중에 그는 9·18 사변 당시 ‘매

3 施明儒：《轍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p.1

4 Henrik Dethlefsen, Denmark and the German Occupation: Cooperation, Negotiation, or Collabor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15:3(1990), pp.198-199.

국노의 착오’로 인해 무모한 죽음을 당했던 병사들을 떠올렸고, 또 넓은 강토를 잃어버렸다는 현실 앞에 깊은 슬픔에 빠진다.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며 25년 동안 개발되어 왔던 푸순 탄광이 ‘왜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찢어졌다.

또 내몽골 린시현 관디진(林西县官地镇)을 방문했을 때, 흥성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숙한 가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광경을 마주했을 때 그는 “모든 풍경이 달라졌다”⁵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과거 북쪽 주요 도시였던 자무스(佳木斯)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왜구의 압박’에 시민들이 신음에 허덕이고 있다”⁶고 기록한다. 헤이허시(黑河市)에 대해서는 “9·18 사변 이전에는 시정이 서서히 질서가 잡히며 흥하기 시작했고, 소련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문화와 풍속 교류가 이루어졌다. 물산이 풍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적막과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고, 상점들은 문을 닫아 버려 빈집만이 남았다”며 그 처참함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내비친다⁷.

앤드류 릭비는 “반역자는 적어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을 당한 피해자는 마땅히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⁸는 것이 곧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전쟁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리고 민족의 대의에 의해 비난받는 ‘협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피해자’였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스밍루도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동북이 함락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민중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무역 단절로 스위스 시계의 부품을 교체할 수 없었고, 물자 부족으로 인해 추린(秋林, 역자 주: 1900년에 하얼빈에 세워진 다국적 백화점)버금갈 정도로 하얼빈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던 ‘통찌백화점(同记商场)’도 화물 부족에 허덕였다⁹. 지린시의 모든 사진관에서는 웨딩 촬영에 필요한 “2척짜리 카메라 밀판과 플래시 파우더”가 이미 1년 넘게 공급되지 않았다¹⁰. 이 외에 물가 급등도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통유상점(同友商店)은 두 근도 안 되는 겨울옷이 70여 위안에 팔리고 있었고, 정양가(正阳街) 만주서점에서는 평유란이 쓴 『중국철학사』가 10위안에 달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한때는 교통이 끊겨 직원들이 출장 가려면 부대장이 발급한 여행허가증을 취득해야 이동이 가능했다¹¹.

스밍루는 결국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 ‘만주국’ 장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한 일본군인에게 모욕을 당한 후, 그는 “이러한 의미 없는 율화”를 참는 것이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계”를 도모하는 데 유리함을 솔직하게 고백한다¹². 스

5 施明儒:《轍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 P.70, P.89, P.188

6 위의 책, 第2卷, P.347

7 위의 책, 第3卷, P.11

8 [英]安德鲁·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 刘成译, 译林出版社2003年版, 中문판 P.6

9 施明儒:《轍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2卷, P.73, P.290

10 [英]安德鲁·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 刘成译, 译林出版社2003年版, 中문판 P.6

11 위의 책, 第2卷, P.159, P.336, P.67

12 위의 책, 第1卷, P.56

밍루의 ‘일기’에서는 또 결혼식 준비 과정도 낱알이 보여주고 있다. 결혼식의 기본 예산만 1천 위안에 달하며 ‘결혼식용 자동차, 음악, 예식장 잔치상, 예복, 촬영’ 등이 포함되었다¹³. 물자 결핍이 만연한 사회에서 “집안에 고정자산이 없으면 결코 부자가 아니다”¹⁴라고 생각했던 스밍루가 이런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국’ 군인의 수입 덕분이었다.

이 밖에 인맥도 적지 않은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백주특별배급청구증명서(白酒特別配給請求証明書)’를 부대장에게 발급받았고, 당시 자동차가 부족한 지린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두 대를 배정받는다¹⁵.

스밍루는 일본에 협력했던 또 다른 원인에 대해 ‘항일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군관후보생 시험’ 직전 그는 ‘만주국’ 정부에 전향한 것은 그 어떤 ‘공명’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그의 말을 빌면 “나의 이상을 실현해 만신창이가 된 대지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만주국’ 업무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항일활동을 보호하며, 동북항일연군과 ‘만주국군’의 전투 소식을 염탐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한다¹⁶. 또 반만항일사상에 대한 ‘만주국군’의 대응책을 입수하여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¹⁷, 첩보 수단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⁸. 그리고 일부 ‘만주국군’ 동지들을 항일사에 영입하기도 했다¹⁹.

스밍루의 일기에는 점령지 ‘협력자’들의 생존 환경이 드러나 있다. 민중들은 민족주의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강권점령의 현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자기보호와 치욕을 참는 것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이 곧 최선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3. ‘백피’ (白皮)의 여러 얼굴: ‘반역’인가, ‘애국’인가?

민족주의 시각의 선전 방식은 종종 ‘한간’이나 협력자를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점령군이나 괴뢰 정부에게 봉사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곧 “생명을 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행위로 용서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족의 대의 앞에서 개인의 생명권은 하찮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점령지역에서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망국노”의 역할을 맡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 체계도 허무하다.

스밍루는 일본군의 점령을 증오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언행을 큰 틀에서 보면, 명석함과 곤혹, 감정과 실리가 뒤섞여 있다. 표면적으로는 ‘백피(白皮)’(역자 주: ‘반역자’나 ‘매국노’를 뜻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점령군이나 괴뢰

13 위의 책, 第3卷, P.259

14 위의 책, 第2卷, P.75

15 위의 책, 第3卷, P.223, P.259

16 위의 책, 第1卷, P.6, P.61, P.181

17 위의 책, 第2卷, P.129

18 위의 책, 第1卷, P.48

19 위의 책, 第4卷, P.247

정부에 봉사하는 사람)로 ‘만주국’ 정부에 전향했지만, ‘홍심(紅心)’(역자 주: 중국어에서 ‘진심’ 또는 ‘열정’을 의미하는 말. 여기 문맥에서는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한다. ‘白皮’=외면에 보이는 반역자 혹은 패국자의 모습에 반해 ‘紅心’=실제로는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면이라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드러날 때도 있다. 그래서 그의 다양한 인물 특성을 단순히 ‘반역’이나 ‘패국’으로 규정 짓기 어려워진다.

전반적으로 스밍루는 명백하게 만주국에 봉사하는 동시에, 비밀리에 일본과 만주국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10년 이상 동안 그는 항일구국사의 비밀 활동과 ‘만주국군’의 일환으로 일하는 것을 병행하였으며, 이는 그의 은밀한 저항 운동을 은폐하는 위장술이었다. 만주국의 장교로서, 그는 행진 도중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기도 했다. 여성 교사가 병사로부터 무례하게 모욕당하였을 때, 그는 사실을 파악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해당 병사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다. 관동군이 “팔로군(八路軍) 가족 제거”(역자 주: 중일전쟁 시기 화북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군)라는 핑계로 30여명의 여성 난민들을 임시 위안소로 데려가려 했을 때, 그는 “비밀리에 첩보 반장에게 명령하여 차량으로 옮겨온 여성들을 모두 도망치게 하였다.”²⁰ 그의 신분과 행동은 일반적인 스파이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며, 일본과 만주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전의 서술 방식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질이 낮은 ‘만주국’ 군인들은 종종 삶에 대한 무기력함, 지역 과시, 이권 교환, 심지어 폭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등 모순적인 감정을 노출할 때가 있었다. 체포된 민병대원들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만주국’ 군인들을 보며 스밍루는 “가슴이 아프고 코가 찡해지는” 고통을 느꼈다. “우리 모두 중국인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왜 이렇게 무자비해야 하는가?” 그는 “최근 군인들이 거리에서 강도처럼 행동하고 납치, 갈취, 굴욕,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짐승과 같은 놈들에 치가 떨린다”고 저주한다. 또 “주둔지가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상급 간부들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군수 물자 담당관 두 명과 함께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며 대놓고 음란 행위를 벌였다. 병사들도 그런 걸 보며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동북 사람들은 정말로 가족보다 못한 걸까”라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²¹

‘협력자’가 보여준 다양한 면이 곧 정치적인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40년대 초 동북항일연군이 제압을 당하면서 일본군과 필적할 만한 무장저항 능력은 거의 상실한 채 부득불 비밀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스밍루는 ‘만주국군’ 장교 신분을 이용해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 기술, 자금, 인력 지원을 확보하여 비밀 작전을 수행해 간다. 스밍루의 소규모 조직은 10년 동안 여러 차례 행동을 벌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심야에 전단지나 대자보를 붙이는 것에 불과했고 그 효과는 미비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세 명의 멤버가 희생되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일제의 지배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스밍루와 같은 부류들은 일본과 ‘만

20 위의 책, 第4卷, pp.187-189

21 위의 책, 第4卷, p.17, p.220, p.228

주국' 사이에서 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위가 중요했고, 방향 속에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익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 이러한 심리 현상 배경에는 자기 보호와 이익을 향한 인간 본능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지식 구조에서, 우리는 일본 점령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인 저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점령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일제와 '만주국'의 통치를 지지했다는 시각도 다소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백피'들이 민족적 이익을 팔아넘겼던 것은 아니며, 동포를 능멸하고, 자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단지원초적인 악의 본성과 사익을 취하려 했던 자들이 벌인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4. 인간성의 변천: 굴욕과 기회주의?

일제 점령 시기 스밍루는 민족적 대의와 민중의 수난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늘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감정은 정세 변화와 이익 사이에서 요동쳤다.

1938년 3월, 장교 임명 통지를 받은 스밍루는 자신이 “괴뢰 정권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솔함” 이고 “큰 실수를 범한 것” 이라며 자책감을 가졌다. 단지 “관료제도의 게임”에 참가할 뿐이라 합리화를 했지만, 자신의 전향이 사람들의 오해를 살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직장이 비밀 저항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곧 “인생은 새옹지마라 어떤 일은 불행이 행운으로 될 수도 있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1940년 8월, 행군 중에 스밍루는 길가에서 “나무껍질을 벗겨 선전 슬로건과 권고문을 쓴 흔적”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생존을 위해 간신히 버티는 만주인들이 보도록 남겨진 것”이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의 동지들에게 “만주국 군대에 대한 동정과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들을 쉽게 신뢰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²²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만주국군’ 신분이었지만 그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다. ‘만주국’ 건국 6주년 기념일 직전인 정월의 어느 하루,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린의 다푸차이강(大蒲柴河)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이 중국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²³고 느꼈다. 또 “동북사변 10주년 중국국한혈제기념일”을 맞이했을 때는 “피로 얼룩진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에 탄식하며, 그 ‘애한의 공허함(哀恨的空虛)’을 달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신상담(卧薪尝胆)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쌍십절(双十节)” 밤에는, 조용히 “혁명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고 외쳤다. 또 고전 영화 “홍석산(红石山)”을 보면서는, 영화 속 캐릭터가 현대 위인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영화가 “애국 운동을 주창하던 ‘비밀결사’의 실사판”이라 평가하며, 대사마다 “혁명 열사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22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P.28,P.184

23 위의책, 第1卷,P.20

토로했다. 이어 그는 “왕정위 괴뢰정부와 ‘만주국’ 관료들”과 같은 “외세 도둑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이권을 누리고 있는 매국노한간들”을 떠올리며, “사나운 늑대들이 득세하고, 영웅들은 정작 황야에 밀려나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²⁴. 하지만 정작 본인이 생존을 위해 ‘만주국’에서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스밍루의 마음 상태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1942년 9월, 그는 사소한 일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게 된다. “정복당한 민족은 항상 정복자에게 억압당한다”고 탄식을 하던 그는, 자신이 결코 “정복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10년간 이어온 투쟁 경험과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부득불 “특정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을 뿐”이라 해명한다. 그는 자신이 “청년 사업”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거스르고,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부조리와 모욕, 불합리한 대우”를 수용했으며,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확보한 “유일한 투쟁 기반”을 생각하며 침묵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자신의 몸 전체 혈관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은 여전히 뜨거운 피”라고 언급한다²⁵.

이와 비슷한 일들이 스밍루에게 한 두 번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1943년 8월, 스밍루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목재공장에서 장작을 구매하려고 하자, 만주 사람에게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만주인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전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일 때문에 스밍루는 일기에서 “엄숙한 군관이 그런 비열한 일을 할리가 있겠는가?”라고 적으며 크게 분노한다.

1945년 8월, 그는 양쪽 발이 굼아서 거동이 어려워지자, 전투 명령을 실행할 수 없었다. 병가를 구했지만 일본군에게 거부당했다. 그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고통을 참고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다. “가치 없는 피와 땀을 흘리며 매국노의 오명마저 떠안고 있다”며 또 한 번 좌절한다. 일본이 패배를 선언했던 1945년 말, 그는 항전의 승리를 되돌아보며,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존재감 없는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밀려들며, 항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정작 “항전에서 공적을 세우지 못하고,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데에 있었다. “아직도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한간’, ‘노예’라는 모자를 쓴 채 떠돌고 있다”는 후회였던 것이다²⁶.

스밍루는 처음에는 ‘만주국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꼈지만, 점차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순응과 불가피함이 뒤섞인 불만, 분노, 굴욕을 경험했으며,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었다. 1938년에 ‘만주국군’에 가담한 후 스밍루는 1941년 말까지 중국의 항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을 관망하며 1942년부터 비관적인 인식을 품게 된다. 민족적 대의는 잊지 않았지만, 일본과 ‘만주국’에 순종하는 것과 생존을 위한 ‘자

24 위의책, 第2卷, P.70, P.129, P.50, P.52

25 위의책, 第3卷, PP.71-72

26 위의책, 第4卷, P.57, P.225, P.298

기 보호' 본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저항의 초심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욕을 인내하고 있는 한 군인이, 자신의 안락을 위해 대의를 잃어버린 채 비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족적 대의와 생존 본능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종칼 아래에서 인간 다양성의 발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존재적 본질일지도 모른다.

스밍루의 이러한 복잡성은 특히 점령 지역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강권에 맞서 어떤 사람들은 저항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밍루처럼 핏박 속에서 순종하며 점차 둔감해진다. 항일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게릴라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만주국' 이 영미에 선전포고를 한 후 학창 시절 동창이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서자 이를 역겹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²⁷. 하얼빈 시민들은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²⁸.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리(昌黎)의 남자들은 대부분 한가하며, 여자들은 화려하게 차려 입고 있었다”. 분 냄새가 거리 곳곳에 표류하고, “장사꾼 딸들은 망국의 비애조차 모른 채 여전히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²⁹ 이처럼 스밍루가 묘사하는 점령 지역 생활상을 통해 민중의식을 들여다보면, 점령 초기의 우환이 1940년대 중반에 이르자 점차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대의’와 ‘인간의 책임’을 다하여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로한 어머니를 집에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³⁰. 이에 스밍루는 “정세에 따라 적에게 굴복하고 현실을 택한 사람들은 일단 용서를 받아도 된다”고 말한다³¹. 강권 주도의 식민지 현장에서, 민중들의 애국 표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표현의 한 형태이며, 전란 속의 복잡한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일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사회적 압박을 조성했다. “영토 침략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전황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지,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의 이해관계가 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³²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순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보호와 사익 추구 본능 때문이었다.”³³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일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했다. 그래서 더더욱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개인주의는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집 문 앞 눈만 쓸어라(各扫门前雪)’ (역자 주: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라는 뜻)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권 정치에 직면한 복잡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한낱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위의책, 第1卷, PP.111-112, P.124

28 위의책, 第2卷, P.334

29 위의책, 第4卷, P.205

30 위의책, 第2卷, P.47, P.11

31 위의책, 第1卷, P.124

32 [加]卜正民:《秩序的沦陷:抗战初期的江南五城》, 潘敏译, 商务印书馆2016年版, p. 38

33 刘熙明:《伪军——强权竟逐下的卒子》, 台北稻香出版社2002年版, p.108

결론

전시 중국에서 함락된 지역은 동부 지역에 걸쳐 있었고, 이 지역 인구는 1억 명 이상에 달했다. 일본의 대중 침략기간을 보면, 대만 통치 50년이 가장 길었고, 동북지역은 14년, 그리고 짧게는 7-8년에 그친 지역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제 점령기 동안, 일본과 ‘만주국’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제와 ‘만주국’이 노동자와 위안부를 강제로 징용하고, 전장에서 살인과 노락을 일삼으며, 중국의 국민 경제 생활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는 단지 점령지역에서의 한 가지 상황에 불과하며, 실제 주를 이루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다(潛流下的日常生活才是主体, 역자 주: 끊임없는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계속되며, 이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이라는 뜻).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점령기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파편적인 인상만 가지게 만들었다. 일본 침략자들이 점령 지역에서 물자를 약탈하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 이러한 감정적 색채가 강한 담론은 일본과 ‘만주국’의 통치 실태와 피점령지 기층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³⁴ 이렇게 점령 지역의 기층사회 주민들은 국가주의적인 ‘원죄’의 낙인이 찍혔는데, 이는 분명히 공정하지 않다. 정치적인 고압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심리 변화를 겪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탐구가 말로 야만적인 침략과 정치적 고압이 어떻게 인간성 훼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는지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줄 것이다.

일본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도망 혹은 저항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 현장을 벗어날 여력이 없어 오로지 침묵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그들에게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조차도 일상생활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초기의 폭력적인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나던 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혀 간다. 이렇게 시간은 사람들이 점차 새로운 권력의 통치에 적응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갈망이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규범을 압도할 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기 시작하며, ‘협력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본과 괴뢰정부에 협력하는 것과 오로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일본과 괴뢰 정부 선전에 호응하여,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그 ‘정치적 타당성’을 주창하며 이익을 맞바꾸려고 한다. 반면 후자는 일상적인 생계 유지 방식으로, 정부 부문, 경제 부문, 교통, 우편, 신문 출판, 상점 등 영역에서 생계를 위한 돈벌이 행위이다. 이러한 노동은 한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 대가 없이 생계를

34 潘敏:《江苏日伪基层政权研究1937—1945》,上海人民出版社2006年版,pp.1-2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역사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고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 사조는 외부 침략에 대항하여 민중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민족-국가주의가 바탕이 된 서사를 전개하는 역할을 하며 점차 저변을 넓혀갔다. 그 과정에는 민중의 생존권을 경시하는 경향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일상생활의 영역 탐구에서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다. “도처에 패국 노가 넘쳐나네! 우리의 땅 위에서 적을 섬기니, 적을 원망할 것도 없다. 그들이 채찍으로 우리를 통제하니,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런 굴욕이 또 없구나.”³⁵ 민족적 기개와 생사를 무릅쓴 저항 정신을 높이 치켜세우며, ‘협력’을 망국으로 치닫는 길로 인식하는 시각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족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간들이 등장했던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일전쟁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의 역사’이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서 “강권 통치하에서의 생존”은 보통 ‘한간’이나 ‘협력자’와 연관된다. 이러한 시각은 도덕적 판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사고를 구속하기도 한다. 강권 통치하에서의 생존이라는 시각에서 동북지역 대일 ‘협력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심리를 고찰할 때, 우리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보다 더욱 어둡고 복잡한 상황과 선택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착안은 중일전쟁사라는 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35 毛泽东:《祭黄帝文》(1937年4月5日),《新中华报》1937年4月6日,第1版.

제 3 세션
미디어

발표 5 (일본)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구혜원]

1. 『와다쓰미』의 대성공

1949년, 태평양전쟁 때 전사한 일본 학도병들의 유고집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도쿄대학협동조합출판부)이 간행되었다. 이는 전사한 대학생, 구제(舊制) 전문학교생 75명의 일기와 편지 등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 소설과 같은 스토리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1950년 연간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 유고집의 기초에는 전쟁 수행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철학과 자유주의에 이끌려 학문에 대한 애정이 강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내몰려야만 한다. 이 같은 ‘반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 유고집의 기록적인 판매를 뒷받침했다. 도쿄재판 등을 통해 이미 옛 일본군의 조직 병리와 전쟁터에서의 만행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성전(聖戰)’이라는 미명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생활이나 언행을 압박하고 철저하게 패전을 초래한 군부에 대한 원망이 컸다. 이러한 ‘전쟁 비판’, ‘반전’의 확산이 이 유고집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독자를 양산했다.

1950년에는 이 유고집을 바탕으로 영화 <일본 전몰 학생의 수기: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이 제작되었다. ‘극악무도한 직업군인’ 대 ‘이성적이고 반전 지향적인 학도병’이라는 대립적 도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원작만큼 대히트를 쳤고, 경영난에 빠져 있던 영화사(토요코영화)가 이 작품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와 유고집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은 생각해 보면 기묘한 일이지는 하다. 쇼와 초기의 고등교육(대학 · 구제고등학교 · 구제전문학교 등) 진학률은 세대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했다. 이 책에 수기가 담긴 전사한 학도병들은 사회적으로 극히 한정된 학력을 가진 엘리트들로, 일반 국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였다. 그런데도 왜 『와다쓰미』를 읽고 많은 일본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을까.

거기에는 교양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다이쇼 시대(1912~1926년)부터 쇼와 시대인 1960년대에 걸쳐 대학·구제고등학교에서는 교양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엘리트라면 철학, 사상, 문학, 역사 등의 고전과 친숙하고 인격을 도야해야 하는 것이 규범 문화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학력 면에서의 엘리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후 초기에는 의무 교육에서 더 진급하지 못한 근로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 억울함을 배우기라도 하듯 독서나 삶의 방식, 사회 비판을 다루는 ‘인생잡지’가 널리 읽혔으며, 청년단이나 청년학급에서는 종종 독서모임이 열렸다¹. 과거 전쟁에 대한 의문으로 삶의 방식이나 사회를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방향도 있었다. 거기에는 ‘교양(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동경이 있었다.

전사한 엘리트 학생들을 다룬 『와다쓰미』(유고집·영화)는 그러한 교양의 상징이기도 했다. 유고집과 영화에서의 철학·사상에 대한 언급은 청중의 ‘교양’에 대한 동경을 재확인시키고, ‘교양’을 빼앗긴 학도병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비애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군·정치 지도자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 전전파(戰前派) 지식인에 대한 위화감

하지만 『와다쓰미』 열풍에 대한 위화감도 없지는 않았다. 특히 윗세대 지식인들은 전사한 학도병들이 기술한 것에 대해 그 교양의 ‘얕음’을 종종 지적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에 나타나는 학도병들의 기술은 도저히 ‘무교양’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다나베 하지메나 칸트 같은 철학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진다. 그러나 당시 나이 든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대 구분으로 전시기 이전 시대에 정신적 형성을 이룬 전전파에 속했으며,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 서양의 자유주의·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에도 폭넓게 익숙해져 있었다. 반면 종전을 20세 초반에 맞이하고 전사한 학도병들(전중파)의 경우, 그들이 철이 들었을 무렵 만주사변이 발발했으며 중등 교육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시체제 하에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들에게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윗세대에 비하면 서양의 고전을 손에 넣을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교양 체험의 차이를 전전파 지식인들은 『와다쓰미』에서 느끼고 있었다. 때마침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에서도 재무장과 헌법개정, 징병제 부활이 논의되는 가운데 ‘감성적이고 얕은 교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반전 의식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구상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윗세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나타났다².

그러나 애초 전후에 와서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기(戰時期)에 행했던 자신들의 언행을 덮으려는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문

1 후쿠마 요시아키, 『「근로청년」의 교양문화사』, 이와나미 신서, 2020

2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체험」의 전후사-세대·교양·이데올로기』, 중앙공론 신서, 2009

화인들도 전시기에 전쟁을 찬미하는 글을 쓰거나 일본주의 운동에 힘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도 반상회와 부녀회, 청년단 등을 통해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럼에도 전후 이들은 그러한 과거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반전’을 외치기 일쑤였다. 격침된 전함 야마토에 승선하여 기적적으로 생존한 전직 학도병 장교 요시다 미쓰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쟁 중 자신이 저질렀던 언행의 실태를 실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을 전쟁 피해자 또는 은밀한 반전가의 입장으로 만들으로써 전쟁과 절연을 꾀하려는 풍조가 전후 오랜 기간 우리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³

이는 전후 일본의 ‘반전의 올바른’과 관련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적이었다. ‘반전’은 때로는 ‘성전(聖戰)의 올바른’을 외쳤던 지난날의 언행을 외면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자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2) ‘반전의 올바른’에 대한 회의

‘반전’에 대한 이러한 위화감은 1950년대 전반의 미디어 문화에도 투영되어 있었다. 1952년 6월에는 하쿠오유족회(편)『구름이 흐르는 끝에: 전몰 비행 예비 학생의 수기』가 간행되었고, 이듬해에는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되었다.『와다쓰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유고집과 영화는 함께 화제가 되었으며, 그 기저에 있는 것은 학도병들의 ‘순수함’이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애인과 헤어져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에 괴로워하면서도, 전우와 함께 사지로 향하는 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물상이 여기에서 부각되고 있었다. 이는 전쟁에 대한 분노가 강조된『와다쓰미』와는 이질적이었다.

이 같은 전쟁 묘사가 가능해진 데는 GHQ의 점령이 종결된 영향이 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2년 4월 발효되어 점령 통치가 끝나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구군(舊軍) 회고와 미국 비판, 도쿄재판 비판 담론이 터져 나왔다. 학도병이나 특공대원의 ‘순수함’이 발견된 것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는 ‘왜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고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했다.『와다쓰미』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전’에 대한 심정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며, 구제고등학교나 제국대학에 다니는 최고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본주의적 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⁴. 한커우 함락(1939년)이나 진주만 공격(1941년) 때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은 성과’에 환호했고 이후에도 전쟁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

3 요시다 미쓰루,『「전함 야마토」와 전후 요시다 미쓰루 문집』,치쿠마학예문고, 2005, 195쪽

4 이노우에 요시카즈,『일본주의와 도쿄대학-쇼와기 학생 사상 운동의 계보』,가시와쇼보, 2008

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영화 <구름이 흐르는 끝에>의 감독을 맡았던 이에키 미요지는 “나는 특공대에서 멀리 떨어져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적어도 반(反) 협력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협력자였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속고 있었다’라는 시각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속았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가. 만약 내가 속았다고 한다면, 나는 속인 인간에게 아무런 증오심도 없다. 그저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뿐이다”라는 기술에는 전쟁 수행을 뒷받침한 자기 자신, 나아가 국민 전체를 추궁하려는 의지가 역력하게 나타났다⁵. ‘순수함’에 대한 주목은 한편으로는 ‘반전의 올바른’에 힘써으로써 간과하기 십상인, 전시기 국민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다.

(3) 세대 간의 단절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후의 미디어 문화 속에서 그다지 심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들어 표면화된 것은 전쟁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단절이었다.

가장 많이 전쟁터로 내몰렸던 전중파 세대는 ‘전쟁 체험에 대한 이야기하기 곤란함’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었다. 군대 내 폭력에 노출된 데서 비롯된 증오나 모욕감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전우를 버리고 도피한 데 대한 자책, 회한, 우울감도 컸다. 이렇듯 정리하기 어렵고, 또 언어화하기 어려운 정념 때문에 전쟁 체험을 알기 쉽게, 혹은 기분 좋게 말하는 것에 격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의 사회 상황은 그 생각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었다. 1960년에는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이 고조되었고, 비준 하루 전인 6월 22일에는 전국에서 6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전후 최대 시민 운동이 되었다. 기시 노부스케 정권의 강권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감에 더하여, 일본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운동을 더욱 고양시켰다. 물론 과거의 전쟁 체험은 60년의 안보 투쟁과 연관되어 회자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전중파 세대는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에 맞추어 전쟁 체험을 유용하는 듯한 논의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 체험의 어떤 부분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후 베트남 반전 운동과 오키나와 반환 문제, 70년 안보투쟁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도 전중파 문화인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젊은 세대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 정치 운동에 전념하던 이들이 보기에 전중파 세대의 언행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운동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야기하기 곤란함’을 고집하는 전중파의 자세는 전쟁 체험을 내세우는 것처럼 여겨졌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체험자인 전중파 세대에 대해 아무래도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젊은 세대의 이에 대

5 이에키 미요지, <약자의 용기>, <<교육>> 186호, 1965, 64쪽. 이에키 미요지 <영화 예술인의 반성과 자기 혁신에 대하여>, <<영화제작>> 제 1호, 1946 (미나미 히로시(편) 『전후 자료·문화』, 일본평론사, 1973, 123쪽).

한 조바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양주의의 논리와도 통하는 것이었다. 교양주의가 ‘고전 독서를 통한 인격도야’ 인 만큼, 거기에서는 동서고금의 고전을 많이 읽은 윗세대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다. 상술한 전전파 지식인들이 전사한 학도병들의 ‘교양의 결여’ 를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 이 화제가 되는 자리에서 많은 체험을 했던 전중파는 체험이 없는 젊은이들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젊은 세대가 이 같은 전중파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전중파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등에서 종종 과거의 체험에 갇혀 있는 듯한 전중파의 자세에 대해 발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1969년 와다쓰미상 파괴 사건 (『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의 간행 기념으로 리쓰메이칸대학에 건립된 동상을 학생들이 끌어내린 사건)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쟁 대작 영화는 자주 크게 흥행했고 젊은 관객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병사들의 장렬함과 비장미로부터 거리를 두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8년 연간 흥행성적(일본영화) 7위를 기록한 특공대 영화 <아, 동기의 벚꽃>은 제작 및 배급 영화사인 도에이의 의향 때문에 임협 야쿠자 영화의 스타 배우들을 대거 기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은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특공대가 줄줄이 격추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전중파보다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감독 나카지마 사다오도 ‘하나같이 전중파가 떠벌리는 이야기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에 대한 반감으로 ‘죽음’ 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그 ‘무의미함(및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비판)’ 을 강조하였다⁶.

2. ‘피해자 의식 비판’

전중파에 대한 불쾌감의 연장선상에서 발견된 것이 ‘피해자 의식 비판’ 이었다. 젊은 세대는 전중파 세대의 ‘피해자 의식’ 을 자주 비판하고, 전쟁 중 행했던 ‘가해’ 를 직시하지 않는 자세를 따져 물었다. 일본 전몰 학생 기념회(『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의 간행을 계기로 1950년에 설립된 반전운동단체)의 심포지엄에서도 전중파 문화인들을 규탄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전중파 세대가 전장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와 상관 없이 여러 가지 ‘가해’ 를 저지른 일본군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전장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필연적으로 전장에서의 ‘가해’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 의식 비판’ 이라는 논점은 전쟁 체험을 둘러싼 전중파와 젊은 세대의 계급을 반전시켜, 전중파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우위를 이끄는 논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사회적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군의 북부 베트남 공습 소식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

6 나카지마 사다오 <아, 동기의 벚꽃>, <<영화예술>> 1967년 5월호. 특공대를 다룬 영화·유고집 등 ‘특공’ 이야기의 전후사에 대해서는 후쿠마 요시아키 『순국과 반역: ‘특공’ 이야기의 전후사』(세이류샤, 2007) 참조.

만, 그 중 많은 미군들은 오키나와나 사세보에서 출격하였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본의 ‘가해’를 의미했다. 또한 베트남 공습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공습 체험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구 일본군의 동아시아 지역 침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전쟁은 전시기 및 전후 일본의 ‘가해’를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역할을 했다. 전중과 세대의 ‘피해자 의식’과 ‘가해’에 대한 비판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견되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전후 일본 영화 중 그때까지 ‘가해’에 대해 주목하는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치카와 곤 감독의 <들불>(1959년)은 필리핀 전선에서 식량을 찾던 일본군이 현지 주민을 사살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 이외에도, 현지 여군의 일본군에 대한 엄청난 증오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영화에서 ‘가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듯 일본 해군의 해전이나 특공작전이 많이 다루어졌다. 육상 전투와는 달리 해전이나 공중전은 ‘사람(적군, 현지 주민)’에 대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그릴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군함, 전투기와 같은 ‘기계’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1968년)를 비롯하여 1960년대에 흥행에 대성공한 전쟁 영화는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일본 해군의 해전과 공중전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는 ‘가해’, ‘폭력’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같은 시기 ‘가해’로부터 눈을 돌리는 듯한 논의의 양태가 문책되기도 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단절과 베트남 전쟁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1) 자기에 대한 질문과 현상의 거절

‘가해’, ‘책임’을 둘러싼 물음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중과 세대의 논의 안에서 심심찮게 나타났다. 레이테만 해전에서 가라앉은 전함 무사시에 승선했던 와타나베 기요시는 종전 후 천황이 맥아더와 나란히 서 있는 신문사진을 보고 죽은 전우를 배신한 듯한 천황의 행동에 강렬한 증오를 품었다. 그 일이 1960년대 이후 와타나베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천황을 문책할 뿐만 아니라, 천황에 대한 숭배의 마음으로 해군을 지원하여 자진해서 전쟁에 협력한 자기 자신도 힐문했다⁸. 여기에서는 천황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만을 지탄하고 스스로는 면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행을 믿고 솔선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말단에 있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고 있었다.

더욱이 와타나베의 논의는 ‘스스로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를 묻는 것이었다. 와타나베는 자서전적 에세이 『부서진 신-어느 귀환병의 수기』(1983년)

7 요시다 유타카, 『일본인의 전쟁관: 전후사 안에서의 변용』,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5. 전후 일본의 전쟁 영화에서 해군이 많이 다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 해군의 중징 폭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후쿠마 요시아키, 『순국과 반역』(앞의 책) 참조

8 와타나베 기요시, 『부서진 신-한 귀환병의 수기』,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4.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체협』의 전후사』(앞의 책)

⁹에서, 귀환한 고장의 농민이 점령지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잔악무도함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것을 비판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자답했다. 와타나베의 논의는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폭력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이는 폭력을 낳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도 이어진다. 애초에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악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력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옳음’마저 띠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병참을 무시한 작전 수행, 전쟁 성과에 조급해 하는 상관들의 출세욕, 합리적 판단보다는 공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군 상층부. 이러한 군의 조직 풍토가 말단 병사들에게 무모한 행군을 강제하고, 그들을 자포자기의 상태로 내모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전차병으로 동원된 작가 시바 료타로는 전국 시대와 막부 말기, 메이지 시대를 다룬 역사 소설에서 일그러진 쇼와 육군을 종종 이야기에 겹쳐 놓았다¹⁰. ‘스스로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를 자문한 와타나베 기요시의 논의도, 그것을 파고 들면 폭력과 파탄을 초래한 군과 정치의 조직 병리 문제에 귀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죽은 자의 현창에 대한 거부로도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하고, 국가가 공적으로 전사자를 현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일본 유족회나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와 종교계·교육계는 정교 분리가 담보되지 않는 점이나 국가 신도(神道)의 재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야스쿠니 국가 호지 문제).

많은 전종파 문화인들도 이 움직임에 반대했지만 그 논거는 다소 달랐다. 야스다 다케시와 하시카와 분조 등은 오히려 죽은 자를 찬양하고 치켜세우는 것이 군과 국가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감추고, 결과적으로 죽은 자의 입을 봉할 것을 우려했다. 야스다는 이미 『전쟁체험 1970년대의 유서』(1963년)에서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는다”는 것은 산 자의 오만한 퇴폐”라고 말한 바 있다¹¹. 그것은 현창을 통해 죽은 자의 원한을 외면하는 전후 ‘산 자’의 욕망을 힐문하는 것이었다.

(2) ‘현창’과 ‘가해’의 이항대립

그러나 이렇듯 뒤엎힌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가해(책임)’와 ‘현창’의 이항 대립이 전경화(前景化)되었다.

야스쿠니 국가 호지 문제가 진정된 뒤, 일본 유족회와 자민당 보수파는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1979년에는 A급

9 아사히 선서(選書)(아사히신문사) 중 하나로 나온 이 책은 2004년 이와나미 현대문고판으로 재간행되었다.

10 후쿠마 요시아키, 『시바 료타로의 시대』, 중앙공론 신서, 2022

11 야스다 다케시, 『전쟁체험 1970년대의 유서』, 미라이샤, 1963, 142쪽

전범의 합사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전후 40년’인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전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를 하자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1982년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 관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교과서 문제가 과열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전쟁에 대한 평가는 ‘전사자의 현창’에 무게를 두는 논의와 ‘가해 책임’을 직시하려는 논의로 양분되었다. ‘피해’와 ‘가해’가 아니라 ‘가해’와 ‘현창’의 이항 대립이 거기에 나타났다.

예전에 ‘가해’의 문제는 ‘자기에 대한 물음’과도 결부되어, 특정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을 낳는 구조를 되짚어보려는 (어렵쫓한) 계기도 보였다. 전사자를 현창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전사자의 분노가 가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반전’, ‘평화’의 정치주의가 전사자나 전쟁 체험자의 복잡한 심정을 외면하게 하고, 전쟁 체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점은 1980년대 이후에 대체로 희미해지고, ‘현창’과 ‘가해’라는 이항 대립만이 재생산되었다.

같은 시기 ‘전쟁 체험의 단절’도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전중파보다 아래 세대가 사회적 발언의 힘을 가진 연령대가 되고, 또 전중파 문화인들도 아래 세대의 압력에 싫증이 났는지, 전쟁 체험에 대한 발언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애초에 야스다 다케시나 와타나베 기요시 등, 1980년대에 타계한 전중파도 적지 않았다. 필연적으로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충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자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그동안 친미독재 정권에 억눌려 온 개인 배상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났고, ‘전후 50년’이라는 시대적 구획도 맞물려 일본의 전쟁 책임, 식민지 책임에 이전보다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¹².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미디어 담론과 시민 운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전쟁 책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긍정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도 널리 나타났다. 그것은,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 『신 고마니즘 선언 SPECIAL 전쟁론』(1998년) 등을 통해서 대중 문화 속에도 침투해 갔다¹³.

역사 인식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창’과 ‘가해(책임)’의 이항 대립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가해’의 문제를 생각하려는 자는 ‘현창’을 주장하는 담론을 접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논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소통이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의 포용 불가능성만 확대 재생산된다. 이러한 상황이 냉전 종식 이후 일본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2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사노 도요미(편) 『화해학의 시도—기억·감정·가치(화해학 엄서1)』, 아카시쇼텐, 2021 참조

13 이런 가운데 유고집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들>(신판)이 1995년 개봉했다. 여기에는 일본군 병사들의 필리핀 주민 학살과 ‘중군 위안부’ 문제도 다루어지는 등, ‘가해’에 대한 논점이 담겨 있었다. 다만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만 있고, 와타나베 기요시가 제기한 ‘스스로가 폭력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려져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는 폭력을 정당화(자명시)한 사회 구조에 대한 물음이 후경화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 체험」의 전후사』(앞의 책).

3. ‘계승’ 이라는 단절

오늘날 일본에서도 ‘전쟁 기억의 계승’은 많이 회자된다. 특히 ‘종전 기념일’이 있는 8월 저널리즘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배경에는 전쟁 체험자 상당수가 타계하여 점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승’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이다.

1990년대 나타났던 역사 인식의 이항 대립은 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비슷한 논의로 과열되는 현상은 종종 나타난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인터넷 담론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선호하는 담론만 접하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검색’과 ‘이력’에 의거하여 정보 액세스를 조정하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담론 공간과의 연속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역사인식 문제가 항상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길’을 피하는 듯한 무난한 논의도 많이 볼 수 있다. ‘현창’이나 ‘가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기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를 암시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승’되려 하는 것은, 여러 단절이나 망각을 거친 웃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죽은 자의 감명’에 대한 항거, ‘자기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가해’, 폭력을 낳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 오늘날의 미디어 담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일종의 ‘알기 쉬움’이 전경화되어 있다¹⁴.

그러나 과거의 담론에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논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한때 ‘계승’보다 ‘단절’이 두드러진 시기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전쟁 체험과 기억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반전의 올바른’이 때로 무엇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가해’를 논하는 것이 ‘남의 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를 뒷받침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덧붙여 말하자면 ‘가해’를 낳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러한 논점은 옛날의 미디어 담론이나 미디어 문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일본과 동아시아의 ‘화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논의의 양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만들어졌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관련되어 있는가. 어떤 논점이 상실되었는가. 이러한 물음을 마주하는 것은 오늘날 자명시되는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계승의 역사’가 아니라 ‘단절의 역사’, ‘망각의 역사’를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14 ‘계승’의 무난함이 내포하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후쿠마 요시아키『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사쿠린샤, 2020) 참조.

제 3 세션
미디어

발표 6 (한국)



현대 한국 미디어의 식민지, 전쟁 경험 형상화와 그 영향 -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 기훈

연세대

1. 머리말

이 연구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어떻게 식민지와 전쟁 경험을 형상화하고, 그것이 대중의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기 별로 나누어 접근하되, 어떤 소재를 통해 과거에 접근하는지, 또 동일한 소재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 역사적 변화를 통해 매체를 지배하는 역사인식과 그 영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우선 영화나 드라마가 ‘민족’을 표상하고, 과거를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국민/민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과정이 어떤 것을 부정하고 배제하는지, 또는 새롭게 포섭하는지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매우 극적 과정이다. 인류의 적이며 공존 불가능한 악으로 묘사되었던 북한군 혹은 좌익은, 50여년 뒤 다시 나를 위해 희생한 형제의 얼굴로 돌아온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각각의 시대 매체 속에서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2. 1950~1960년대 냉전민족주의의 식민지, 전쟁 기억

(1) ‘순결’과 ‘의지’의 구현으로서 ‘민족’ 만들기

해방 직후 독립의 정치적 열풍이 휩쓸던 한반도에서 식민지기는 곧 민족해방 투쟁의 시기가 되어야 했다. 영화인들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는 계몽영화들을 다수 제작하였고, 주로 독립투사의 항일운동을 그린 영화를 후대 남한에서 ‘광복영화’라는 용어로 지칭했다¹. 1946년 최인규(崔寅奎) 감독, 전창근(全昌根) 극본, 주연의 <자유만세>가 대표적인 영화다.

1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의 풍경 1945-1959>>, 문학사상사, 2003, 23쪽

주인공 한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독립의 과제를 수행하는 남성 혁명가이다. 영화는 주인공 한중이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으며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첫 장면이다². 저항 조직에 합류한 한중은 동지들과 무장봉기를 준비하던 중 경찰에 쫓기다 우연히 일본 경찰의 애인인 미향의 집으로 피하게 된다³. 한중에게 교화된 미향은 그의 은신과 탈출을 돕지만, 일본 경찰에게 추적당하는 빌미를 제공해 저항 조직의 아지트에서 미향은 사살당하고 부상당한 한중은 체포된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있던 간호사 혜자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다.

한중은 민족의 봉기와 반동의 처단, 무장투쟁을 준비하며 직접 투쟁하는 혁명가이며,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남성 영웅이다. 투사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지만, 동지들 속에 여성은 없다. 영화 속 여성들은 이들을 ‘선생님’ 이라고 부르고 존경 혹은 연모하며 이들의 투쟁을 위해 희생한다.

미향은 반역자의 연인인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울부짖는다. “사람은 다시 살아야 할 권리와 노력은 없는 것인가요?” 한중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물론 사람은 다시 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민족의 다시 살기 위해 앞뒤로 폭탄을 짊어지고 왜놈의 소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감상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와 화산 같은 정열이 있어야 할 것이요.”⁴

체포된 한중을 구한 것은, 은신한 집의 딸이기도 한 간호사 혜자였다. 타락한 미향이 구원을 호소하고 울부짖는 것과 달리 달리 순결한 처녀인 혜자는 위기에 빠진 한중을 구하는 새로운 영웅으로 묘사된다.

영화 속에서 민족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의 대상이다. 일본 경찰에 쫓기던 한중은 생면부지의 미향 집에 침입해 요구한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면 날 구해줘야겠소.”⁵ 혜자가 어머니에게 한중을 구하겠다고 선언하자, 어머니는 “내가 말려도 넌 기어코 선생님을 구하겠구나” 고 목숨을 건 딸의 모험을 말리지 않는다⁶.

1959년 민족 독립 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했다. 이 해가 3.1 운동 40주년이었고, 그 전해인 1958년 조총련의 귀국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북송’ 이 한일 간 최대 쟁점이 되었던 때였다. 또 다음 해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때 상영된 일련의 영화들은 (이승만을 포함한) 구국 영웅들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주력했다⁷.

2 원래 시나리오에는 밤 장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필름과 장비가 부족한 탓에 낮에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김려실, <‘자유만세’의 탈정전화를 위한 시론-현존 시나리오와 영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8, 2009, 294쪽

3 이 역을 맡은 배우 독은기(獨銀麒)가 월북하는 바람에 1975년 복원한 영상에는 친일 경찰 남부가 등장하는 장면이 삭제되어 영화의 전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원래 영화에는 일본 경찰의 대사는 일본어로 녹음했으나 이후 다시 더빙을 하며 모두 한국어로 바꾸었다.

4 현재 복원본은 탈출하는 장면에서 끝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한중이 산 속에서 일본 경찰과 총격전 끝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김려실, 앞의 글, 289~290쪽

5 원래 대사에는 ‘조선’이었지만 이후 다시 더빙하면서 모두 ‘한국’으로 바꿨다. 김려실, 위의 글

6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강조한 <자유만세>의 제작진들은 대표적인 친일영화를 만든 주역들이었다. 감독 최인규는 지원병에 나갈 것을 강요하는 <태양의 아들들 太陽の子供達>(1944), <사랑의 맹서 愛の誓>(1945)를 감독했으며, 촬영감독 한형모(韓瀛模)도 <태양의 아들들> 등에 참여했다. 한국영화1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엮음, <<한국영화100년100경>>, 돌베개, 2019, 51쪽

7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신상욱 감독), <삼일독립운동>(전창근 감독),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전창근 감독), <한말 풍운과 민중정공>(윤봉춘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정상우,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의 영화적 재현>, <<한국사연구>> 183, 2018

그 가운데 윤봉춘(尹逢春) 감독, 도금봉(都琴峰) 주연 <유관순>을 주목해야 한다. 항일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은 1948년, 1959년, 1966년, 1974년, 2019년 모두 다섯 차례 극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중 1948년, 1959년, 1966년 작품은 모두 윤봉춘이 연출했다. 1959년 <유관순>은 1948년 작품에 비해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66년이나 1974년의 <유관순>보다 더 능동적인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⁸.

3.1 운동 이후 고향에 내려간 유관순은 아버지의 학교가 문을 닫고 만세 시위를 주도한 오빠가 체포되는 상황을 마주친다. 관순은 친구와 함께 만세 시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 나간다. 하나님께 투쟁을 이끌어 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유관순의 모습은 잔다르크와 같은 헌신의 상징이다.

만세 시위 와중에 부모를 잃은 유관순은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투쟁을 계속한다. 관순은 옥중에서 이화 재학 시절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보고 들었던 불국사, 석굴암 등을 회상한다.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애착, 민족의식이 그를 민족 영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영화는 이후 한국 영화에서 일본인을 표현하는 클리셰들을 보여주고 있다. 콧수염, 거친 말투, 냉소와 멸시 등이 일본인 경찰이나 관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관료나 경찰, 군인이 아닌 일본인의 전형적 캐릭터도 등장했다. 희극 배우 김희갑이 연기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조선인들을 수탈하는 악역이지만, 비굴하고 어딘가 바보스런 인물이다. 술자리에서 조선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벌거벗고 춤추는 일본인이라는 농담을 듣고, 유중권의 집에 빛 받으러 찾아가서 벌거벗고 춤추다 쫓겨난다. 어눌한 한국어 발음, 왜소한 체격, 무례하고 저속한 행동 등 이후 한국 미디어에 등장하는 식민지 일본인의 전형이다.

한편 일본인을 묘사해야 하는데, 일본어를 쓸 수 없다는 것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고민이기도 했다. ‘국어’로서 한국어를 확립해야 했던 남한 미디어는 “왜색 일소”를 시대적 과제로 여겼다. 이전에 수입했던 유럽 영화 중에서 일본어 자막을 사용한 영화도 1949년 7월 1일부터 상영이 금지될 지경이었다⁹. 국어를 사용하는 민족 공동체가 확립될 때, 과거의 ‘국어’였던 제국의 언어는 아예 금기였고, 일본인은 왜곡된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민족’의 언어는 정확한 표준어로만 표현되었다. 항일 운동에 참여하는 민족 구성원들은 ‘표준어’로 통일되어 있어야 했다. 고향인 충청도 아우내에 내려가도 관순과 애덕은 전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관순의 가족들이 대화할 때도, 관순이 친척 할아버지를 설득하며 대화할 때조차, 누구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¹⁰. 사투리는 민족 투쟁의 언어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감히 사투리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관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이름없는 별들>(김강윤 金剛潤 감독, 1959)이다.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촬영도 광주와 나주 현지에서 광주 지역 학생들을

8 1960, 70년대의 <유관순>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제시된 이상적 여성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 김가을, <‘유관순 영화’ 연구: 저항의 재현과 여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37쪽

9 <<경향신문>> 1948. 10. 26(3); <<동아일보>> 1949. 3. 10; <<조선일보>> 1949. 3. 12(1) 사설

10 심지어 유관순 역을 맡은 도금봉은 당시 가장 사투리를 잘 살려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로 한때 사투리 쓰는 역할만 들어온다고 할 정도였다. <<동아일보>> 1962. 12. 21 (5); <<조선일보>> 1962. 12. 9

대규모로 동원하여 완성되었다. 그러나 영화의 등장 인물들 모두 표준어로 대화를 나눈다. 심지어 조선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만주로 떠나는 농민조차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민족의 순수성, 단일성을 사투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반면 신성한 항일운동의 대의는 혈통으로 연결되었다. 주인공 상훈 남매의 아버지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약하는 독립지사다. 그가 아내에게 맡기고 간 태극기는, 10년 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대열의 선두에서 다시 빛난다. 반면 친일 고등계 형사의 여동생 영애는 항일 학생 조직인 성진회에 가담하지만, 결국 오빠 때문에 희생당한다. 마지막 만세의 장면에는 상훈의 가족들이 선두에 나선다. <자유만세>에서 미향과 마찬가지로 영애의 자리는 없었다.

(2) 한반도 밖에서 식민지 기억 만들기

① ‘학병’의 경험과 기억

도식적인 영웅 이야기로 식민지를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이야기를 구성해야 했다. 1961년 개봉한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김기영 金綺泳감독)는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식민지를 회상한다. ‘학병’이라는 화자를 통해 한반도 밖에서 식민지 말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병으로 끌려간 조선 청년 아로운(阿魯雲)은 일본 나고야에서 병영생활을 하며 일본군 상관과 고참들에게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한다. 그 속에도 아로운의 학교 선배인 나카무라는 자신의 이중 사촌 히데코(재일조선인 孔美都里가 이역을 맡았다)를 소개시켰고, 아로운과 히데코는 사랑을 가꾸어 간다. 히데코는 아로운과 사랑을 통해 민족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끄러운 것은 인종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미군의 대공습 직전에 탈영한 아로운은 폭격이 쏟아지는 거리를 방황한다. 폭격이 끝나자 일본군은 유족들이 시신을 찾는 것도 금지하고 철조망을 쳐놓고 집단 화장을 시도하는데, 그 화염 속에서 아로운이 걸어 나온다. 이를 목격한 군중이 철조망을 무너뜨리며 몰려들고 아로운과 히데코는 다시 만난다.

이 영화에서 조선인 아로운을 괴롭히는 것은 일본인 전체가 아니라 일본 군부이며, 마지막 장면에서 일본 민중의 저항이 아로운을 구해낸다. 일본인에 대한 일방적 증오 대신, 권력과 군부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연대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험이 가능한 것은 아로운이 ‘학병’이기 때문이다. 조선인 학병들은 당대 최고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 엘리트들이었다. 또 중국, 태평양,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학병들 가운데는 탈출하여 광복군이나 조선의용

군 등 항일 군사 조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했다¹¹. 따라서 학병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은, 해방 직전의 식민지 경험을 다루지만, 당시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무방했다. 한반도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전시체제 하에서 조선인들의 협력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진지한 이야기를 만들 방법이 없었을 터였다. 학병들과 그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내성(金來成)의 인기 소설 <청춘극장> 이 1959년, 1967년, 1975년 세 번에 걸쳐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춘극장>은 주인공 청춘남녀들의 복잡하게 얽힌 애증과 도주, 추격에 초점을 맞춘 영화였고, 식민지 역사 자체에 대해서는 배경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학병’의 역사적 경험을 강제동원과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 해방 이후의 역사적 과제 등의 문제와 연결시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②액션 공간 만주와 무의미한 시/공간

1960년대 한국에서는 1920~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영화들이 유행했다. 서부극,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스파게티 웨스턴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영화들을 후일 ‘만주 웨스턴’ 이라고 따로 계열화하기도 하는데¹², <두만강아 잘 있거라> (임권택林權澤, 1962), <마적> (신상옥申相玉, 1967), <무숙자無宿者> (신상옥, 1968), <애꾸눈 박> (임권택, 1970), <쇠사슬을 끊어라> (이만희, 1971)와 같은 작품들이다. <무숙자>는 아예 ‘오리엔탈 웨스턴’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전하기도 했다¹³.

만주 웨스턴으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두만강아 잘 있거라>는 독립군의 근거지인 만주로 탈출하는 독립단원들이 국내에서 벌이는 투쟁의 이야기다. 독립운동가의 아들 영우는 서대문 형무소를 폭파하고 무장, 탈출하여 일본군과 교전하며 만주로 넘어가려 한다. 영화는 이 과정에서 연인과 사랑, 일본 군경의 추격과 전투, 동지들의 희생과 구원 등을 다룬다. 영화 속에서 독립단원들은 대량의 탄약과 총기, 폭발물을 보유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다. 영화의 무대는 만주가 아니지만, 신문광고에서는 “두만강과 만주 벌판을 뒤흔든 독립단과 일본 헌병대의 파란만장한 투쟁상”이며 “숨막힐 듯한 추적과 탈주, 연속되는 긴박 속에 통쾌한 복수”를 그린 “스릴과 서스펜스”의 “일대 파노라마”라고 선전했다¹⁴. 영화에서 필요했던 것은 일본군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적과 “총격 연발 박수의 일대 파노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장소였다. 어떻게 포장해도 내전이었던 한국전쟁을 “통쾌한” 액션 영화로 만드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었다. ‘만주’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액션과 폭력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만주는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비어 있

11 해방 이후 학병들은 학병동맹 등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으며, ‘학병세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실에 대응했다. 손혜숙, <학병의 글쓰기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한운사, 이가형,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5, 2018. 작가 한운사(韓雲史)도 일본에서 대학 예과에 재학하다 끌려간 학병 출신이었다.

12 2008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만주웨스턴 특별전’에서 14편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널리 알려진 용어다. 김대근, <만주웨스턴 영화의 담론 분석>, <<인문사회21>> 12-6, 2021, 240~241쪽

13 이영재, <<아시아적 신체 냉전 한국 홍콩 일본의 트랜스/내셔널 액션영화>>, 소명출판, 2020, 6-0~61쪽

14 <<경향신문>> 1961. 12. 13(4) 하단 광고

15 이영재, 2020, 앞의 책, 80쪽

는 기표이고 상상적 공간이었고¹⁶, 장소와 시간의 역사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만주웨스턴 영화에서 만주는 서부와 마찬가지로 액션 영화의 배경으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그나마 수많은 엑스트라와 탄약을 소비하며 스펙터클한 독립군 전투신을 만들어냈지만, 이후 항일 투쟁의 고난과 처절함은 거의 사라지고 소영웅들이 활개치는 액션 장면들이 이어졌다. 많은 만주웨스턴 영화들이 서부극의 명작이나 당시 인기있던 작품들의 전형적인 장면들을 변형해서 사용했고, 심지어 줄거리를 그대로 활용한 모방작이 나오기도 했다.

독립군은 클리셰로 잠깐 등장할 뿐이며, 독립의 대의를 강조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부르짖지만, 영화 전개와 무관했다¹⁷. 캐릭터들은 점점 코믹해졌으며 전형적인 B급영화들이 양산되었다. 도식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삽입되었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에게도 별 의미 없는 관행일 뿐이었다.

작품성을 중시한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무렵 한국 문학의 유명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들을 흔히 ‘문예 영화’라고 했는데, 식민지 시기 작품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작품이 김동인 원작(1925)의 <감자>다. 김승옥 감독의 <감자>(1968)는 무능한 남편 때문에 매춘으로 내몰리는 주인공 봉녀가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그런데 원작이 보여준 하층민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냉정한 시선이 사라졌다. 원작에서 봉녀는 중국인 왕서방과 고정적인 매매춘 관계를 맺게 되고, 남편은 이를 묵인한다. 왕서방이 혼인하게 되자 질투에 찬 봉녀가 왕서방을 습격하다 목숨을 잃게 되지만, 남편과 왕서방은 그녀의 시신을 두고 사건을 묻어 버리기로 거래를 한다.

그러나 1968년 영화 <감자>에서 봉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묘사된다. 봉녀는 빈곤과 남편의 무능으로 끝없이 고통받지만, 딱히 지주도 자본가도, 총독부 권력도 등장하지 않는 추상적 빈곤일 뿐이다. 가부장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남편이 마지막에 돌아와 그녀의 무덤에서 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돌아온 탕자의 후회만 있을 뿐이다. 원작에서도 선명하지 않은 계급과 젠더, 식민지 수탈 구조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무능한 가장과 불운한 여성 희생자의 비극만이 남은 영화에서 시대의 역사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찾기는 어렵다.

16 최수용, <한국영화에 나타난 ‘만주’ 표상의 가치와 활용방법 연구>, <<순천향인문과학연구>> 34-4,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177쪽; 조혜정, 2017, <‘만주웨스턴’에서의 장르 수용양상 및 변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0, 251쪽

17 김대근, <만주웨스턴 영화의 담론 분석>, <<인문사회21>> 12-6, 2021

18 <감자>는 영화(1968 김승옥 감독, 1988 배장호 감독)는 물론이고, 드라마(TV 문학관, 1984)로도 자주 만들어졌다.

3. 적 그러나 민족 - 1950~60년대 냉전 민족주의 전쟁 서사의 모순

(1) 냉전 진영 논리와 ‘적’ 만들기

한국전쟁 중에 제작된 홍보 영화에서 전쟁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규정되었다. 정의는 유엔군, 곧 미군과 동일시되었으며,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진영 간의 투쟁이었다. 평화를 애호하는 자주국이며 유엔의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하는 자유 진영의 일원이고 전쟁은 인류의 자유와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¹⁹. 1950년대 반공영화에서 좌익은 인류의 적이며, 죄악 그 자체다. 인민과 민주를 내세우지만, 자기 욕망의 충족에만 몰두하는 자들이며, 전형적인 좌익(인민군, 빨치산)은 도덕의식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동료 의식조차 없는 악마적 존재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혹 이후 회개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해도, 먼저 선과 악, 자유와 공산의 대립이 뚜렷한 구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자유전선> (김홍 金鴻 1955), <나는 고발한다> (김묵 金默 감독, 1959)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진영 논리 대신 휴머니즘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여기에 주목한 감독들은, 적의 내부에서 ‘인간 대 비인간’의 대결을 보여주려고 했다. 1955년 작 영화 ‘피아골’ (감독 이강천 李康天)이 대표적이다. ‘아가리’라는 대장이 이끄는 빨치산들은 학살, 약탈, 성폭행 등 온갖 만행과 비열한 행동을 저지르고, 이를 바라보는 지식인 출신 철수는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 결국 철수와 그를 사랑한 빨치산 애란은 귀순을 결심하지만 발각되고 결국 애란만 살아남아 하산한다. 영화 속에서 대부분의 빨치산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고 이기적인 비열한 인간들이다. 동료도 반동의 조카라는 이유로 처단하고, 부상당한 동료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심지어 철수를 사랑하는 애란조차도 민간인들에게 반공 인사 학살을 강요하는 무자비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공산 진영의 논리는 모든 적들을 비인간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 김종문은 <피아골>에 빨치산만 등장하는 것이 “자유와 반자유라는 상반된 두 개의 세계가 대결하는 모습은 고의적으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빨치산을 영웅화”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피아골>은 애란이 하산하는 장면에서 태극기를 삽입하여 겨우 다시 개봉할 수 있었다²⁰. 영화는 빨치산 내부에서 ‘인간성’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그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현지에서 입산한 빨치산 소년의 운명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빨치산 부대가 소년이 살던 마을을 습격하고, 한 대원이 소년의 어머니인 줄 알면서도 저격했다. 소년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는다. “네가 에미를 쫓지”, “아

19 이명자,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통일문제연구>> 56, 2011, 22쪽

20 이영재, 2020, 앞의 책, 73~74쪽

나 엄마” 어머니는 아들이 부정해도 “이 놈아” 라며 먹살을 잡으려다 숨을 거둔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좌익의 악마성은 모성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소년은 결국 외삼촌이 반동분자였던 것을 감추었다는 죄목으로 살해당한다.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대화가 모두 표준말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소년의 고향 마을이라는 설정이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소년과 어머니, 외삼촌 그리고 마을에서 끌려온 사람들까지 모두 표준말을 쓴다. 지리산 마을의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엄숙한 반공 민족 서사의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 일상적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사투리가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민족 서사에서 사투리는 금기시되었다. 군대나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었고, 1961년 <5인의 해병>에서 처음으로 한 대원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인물로 등장한다²¹.

그러나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한국전쟁 영화는 스펙터클한 액션영화가 되어야 했다. 정부와 군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대형 전쟁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李晩熙 감독, 1963) 이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 촬영하는 데 하루에 해병대 병력 3천명, 탱크 10대, 전투기 12대가 지원하고 엄청난 양의 탄약을 소비했다. 광고의 포인트도 “영화사상 공전의 스케일로 재현하는 인류최대 작전” 이었다²². 영화는 이념적 대결 구도보다는 포화 속 군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 출신의 군인들이 해병대의 한 분대에 속해 혹독한 전투와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결속을 다진다. 이들은 결국 중국군의 대규모 침공에 끝까지 맞서 싸우다 최후를 맞는다.

이제 전쟁을 구체적인 한국 군인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국군의 전쟁, ‘대한민국’ 국민의 전쟁은 곧 ‘내전’ 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인류의 적으로 내몰았던 적이 사실 ‘민족’ 의 일원이라는 모순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에서도 이 문제는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동료의 여동생을 살해한 것이 자신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원은 고뇌한다. 형을 만난다면 나는 쏠 수 있는가? 한국전쟁 영화에서 이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며, 근본적인 위기였다. 또 이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이 질문은, 스펙터클한 액션영화의 가능성을 무너뜨릴 위험도 있었다. 감독은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 이라는 적의 형상을 창출하여 이 위기를 모면한다. 가장 격렬한 전투 장면에서 산등성이를 가득 메운 ‘중공군’ 은 인간이 아니라 ‘인해’ 라는 사물화된 표상이다

21 ‘촌놈’ 역을 맡았던 전남 순천 출신 박노식이 전라도 사투리를 쓸 것을 제안했고, 김기덕 감독이 용기를 내어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한다. 이영재, <1960년대 한국전쟁 영화의 세 국면, 국민 반북강박 공중충의 관점>, <<상허학보>> 62, 216~217쪽. 1988년 제작된 <<남부군>>에서 비로소 사투리를 쓰는 빨치산들이 등장한다.

22 <<동아일보>> 1963. 3. 20(5) 하단 광고

²³. 이로써 형제상잔을 회피하고 오랑캐로 표상된 물화된 적과 싸우게 된다²⁴. 이후 ‘공산오랑캐’ 표현이 굳어지며 공산당을 민족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²⁵.

그러나 ‘중공군’이라는 이미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공군과 북한군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반공의 잣대를 강화하고 있던 정권에게 발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이만희 감독은 바로 <7인의 여포로>라는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1964년 12월 영화 검열을 받고 상영허가를 받았으나, 직후 남한의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하여 상영 불가 결정을 내리고 다음해 감독을 구속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했다. 이동 중이던 간호대 여군들과 민간인들이 북한군에게 사로잡혔다. 북한군 수색대가 이들을 호송하다 중공군이 여성들을 겁탈하려 하자 격분한 북한군들이 중공군과 교전 끝에 이들을 구하고 남한으로 귀순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검찰은 반공법 위반으로 감독을 기소하면서 “감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무기력한 국군을 묘사했으며, 북한 괴뢰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참상을 과장 묘사하는 등 외세 배경의 풍조를 고취” 했다고 주장했다²⁶.

4. 1970~80년대 ‘역사’의 붕괴와 재구성

(1) 반공주의의 극단화

197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전쟁을 그린 반공영화들은 문화공보부 산하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영화진흥공사에서 제작했다. 당대의 유명감독들도 정책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고, <들국화는 피었는데>(이만희, 1974), <증언>(임권택, 1973) 등이 제작되었다. 임권택의 회고에 의하면 영화진흥공사가 요구하는 국책 영화 제작을 거부하려 하자 월북한 친척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증언>은 철저히 정권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평화롭던 1950년 6월 25일 박순아는 연인 장욱 소위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지만, 곧 장욱은 전선으로 소환되고 박순아는 피난길에 나선다. 영화는 피난을 떠나 낙동강 전선 넘어 유엔군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마주친 양민 학살, 고문과 살해 등 온갖 인민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것에 주력한다. 영화의 제목이 <증언>인 것도 수많은 참상의 화면들과 여기에 대한 박순아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²⁷. 영화는 이야기조차 사라지고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한 증언록이 되어 버렸다.

반공영화의 도식화는 만화영화 <뽕이장군>에서 절정에 달한다. 1978년 뽕이장군 자체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공 ‘뽕이’가 북한 인

²³ 영화에서 좀비 무리가 등장하는 것은 1968년(조지 로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지만, 한국 전쟁 영화에서 ‘인해전술’로 대표되는 중공군의 이미지는 요즘의 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재, 앞의 책, 224~225쪽

²⁴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남한 매체는 ‘중공군’을 오랑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1950. 12. 16(2)

²⁵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나...”로 시작하는 군가 <승리의 노래>는 이 당시 ‘공산오랑캐’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²⁶ 박유희, <<한국 영화 표상의 지도>>, 책과 함께, 2019, 198~199쪽

²⁷ 정성일, <증언 Testimony 임권택 1973> <https://www.kmdb.or.kr/story/5/1344>

민군과 싸우는 투쟁의 장면들을 통해 실제 한국전쟁 영화와 다를 바 없는 이미지를 창출했다. 톨이 장군의 모티브는 영화와 드라마로 널리 인기를 끌던 ‘타잔(Tarzan)’에서 출발했다. 숲 속 동물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던 톨이는 공산당의 강요로 산삼을 찾아 다친 숙이를 구해준다. 숙이와 함께 세상에 나온 톨이는, 사람들을 강제로 학사하며 땅굴을 파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공산당을 무찌르고 자유를 찾아온다. 이 과정에서 톨이가 싸우는 인민군은 늑대와 여우들이고, 마지막 순간에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는 ‘붉은 수령’은 거대한 돼지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실사영화로는 불가능한 ‘적’의 이미지를 창출했던 것이다.

(2) 사라진 역사 - 의미 없는 식민지

강박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속에서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영화나 드라마가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식민지를 다룬 드라마라고 해도 시대는 단순한 배경으로 물러날 뿐이었다. 1970년대에 자주 만들어진 흔히 ‘협객물’이라고 하는 B급 액션영화들이 대표적이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에로시티즘 영화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화 <뽕>(이두용 감독, 1985)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뽕>은 원래 나도향이가 1925년 발표한 소설이다. 원작 소설에서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한 것은 안협집과 삼보 부부의 타락과 비도덕성이다. 남편 삼보는 노름꾼이며 아편중독자, 폭력가장이며, 아내 안협집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미모를 활용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영화에서 남편은 독립운동가이며 생존을 위한 아내의 몸부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대한 지사로 등장한다²⁸. 안협집 또한 모두에게 관대하지만, 일본 순사에게 굽실거리는 머슴 삼돌과 성적 접촉은 단호히 거부한다. 삼보 또한 아내의 부정을 폭로하는 삼돌을 응징한다. 마을은 민족 공동체의 상징²⁹이며 남편의 부재는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적 설정들은 시대의 역사성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과거 시점을 형상화하기 위해 만든 의미 없는 장치일 뿐이다. 영화는 토속적 에로티즘과 부담 없는 코미디로 가득 차 있으며, 민족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설정은 관객들에게 더욱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식민지든 조선시대든 그 어떤 과거라도 큰 차이 없었다. 충직한 민족주의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소멸시켰다. ‘뽕’의 시공간 속에 조선인만 있을 때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공간을 침범하는 존재가 친일파와 그 앞잡이 삼돌이며, 유토피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남편은 지사적 존재다. 뽕의 시공간은 민족 내부에서 갈등과 차별, 가부장의 억압조차 사라진 비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28 김지미, <문학과 영화의 재매개-서사적 제후와 변용의 이론과 실제->,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29 영화 속에서 마을은 카니발의 장이며 반복되는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무하고 예찬한다. 맹수진, <희생양, 그리고 민족적 알레고리로서 여성이미지 분석-이두용 감독의 ‘뽕’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24, 2004, 112쪽

(3) 희생과 절망의 전쟁 이야기들

영화 속에서 역사의 의미는 1970년대말~80년대 초부터 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대하는 시각이 변했다. 관제 반공영화에서 역사가 공산주의의 악행을 증언하는 자료였다면, 새로운 영화들 속에서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처와 고통의 출발점이었다. 역사가 현실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또 이제 좌우의 진영이 선악을 결정하지 않았다. 악은 권력이었고, 관객은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전쟁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1980년 상영된 영화 <짜코> (임권택), <최후의 증인> (이두용)이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³⁰. <최후의 증인>에서 여전히 빨치산들은 범죄자들이지만, 우익이 더 악랄하다. 소녀 지혜는 빨치산들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하고, 순진한 머슴 황바우가 그녀를 구해 결혼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노린 청년단장과 검사, 배신한 빨치산이 결탁하여 황바우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지혜는 첩살이와 술집을 전전한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지혜의 아들이 정신 착란 속에 복수한다. 형사는 살인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와 배신, 오랜 범죄들이 있었던 것을 밝혀낸다. 그러나 황바우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죄를 지었다며 자살하고, 지혜도 그 장례식장에서 목숨을 끊는다. 영화는 사건을 추적하던 형사마저 스스로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끝난다. 황바우와 지혜는 전쟁과 냉전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권력에 희생당하는 약자들을 상징한다. 이제 좌익과 우익이라는 구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나 희생과 피해는 진행형이지만, 권력은 공고하다. 형사의 자살은 당대 지식인들의 무력함과 좌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5. 민중과 현실 - ‘역사’의 재현 : 1990년대 이후

(1) ‘역사’와 ‘민중’의 재발견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벽도 약화되었다. 특히 빨치산 경험을 직접 기록한 수기와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이 <<남부군>>, <<태백산맥>>, <<지리산>> 등이며 이 작품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가장 먼저 영화로 제작된 것은 <남부군> (1990, 정지영 鄭智泳)이다. 휴머니즘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전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피아골>의 연장선에 있지만, 구체적인 인간으로 빨치산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진전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박광수, 1993)나 <태백산맥> (임권택, 1994) 또한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민족 혹은 민중의 상처를 드러내고 화해를 시도하는 작품들이었다. <짜코>나 <최후의 증인>이 개인들의 죄악과 피해를 다루었다면, 1990년대 일련의 작품들은 개인의 의도를 벗어난 세계사적, 구조적 대결의 구

30 박유희, 앞의 책, 208쪽

도 속에서 일어나는 민족의 희생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MBC가 창사 30주년 특집극으로 제작한 미니시리즈 <여명의 눈동자>(김종학 연출, 김성동 원작, 송지나 각본)였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36부작으로 방영된 이 드라마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제작, 주제, 50%가 넘는 높은 시청률 등으로 TV 드라마의 이정표를 이루었다고 평가받았다.

드라마는 대치와 하림, 두 사람의 ‘학병’들이 전쟁에 동원되며 겪는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고난 속에서도 학병을 탈출해 투쟁에 길에 접어들지만, 좌와 우로 나뉘어 다른 길을 걸어간다.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 ‘여옥’이다. 이들이 겪는 제국주의 군대의 폭압과 전쟁의 고통, 해방된 조국에서 희망과 좌절, 좌우 대결과 전쟁, 그리고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조를 이룬다. 원래 1970년대 스포츠 신문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은 자극적인 성과 폭력 묘사에 치중한 반공소설의 전형이었다³¹.

그러나 드라마로 각색하면서 <여명의 눈동자>는 냉전 대립이 아닌 실제 인간들의 역사를 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주인공들의 변화를 타당한 동기와 이유를 갖춰 설명하기 시작했고, 친일파 청산 실패나 제주 4.3 항쟁 등 남한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소재로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학병’과 ‘위안부’를 제국주의의 강제동원이라는 맥락에서 묘사하기 시작했고, 남한 국가의 성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도입했다. 냉전 국가주의를 넘어 ‘역사’의 실재를 드라마에서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였다³².

이런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장, 특히 ‘민중’이념의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애초에 모호한 감성적 주체였던 ‘민중’은 점점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구체화되었고, 하층민들의 계급 연합이라는 점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에는 좌익 혹은 인민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이며 살아있는 역사로서 일본군 ‘위안부’가 1990년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알려져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변영주, 1995, 1997, 1999)가 제작된 이래 많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귀향>(조정래, 2017), <눈길>(이나정, 2017), <아이 캔스피크>(김현석, 2017), <허스토리>(민규동, 2018) 등이 개봉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영화들은 피해를 입은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족’의 틀을 벗어나 ‘식민지’ 경험의 현재성을 보여주었다.

31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1970~80년대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22, 114 쪽

32 백두산, <민주화 이행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단 재현 방식: ‘여명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2018

(2) 냉전 이후의 ‘민족’

2004년 제작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감독)는 한국의 미디어에서 한국전쟁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떠난 주인공 진태는 동생 진석과 함께 징병되자, 동생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 한다. 전공을 세우면 동생을 집에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한다. 그러나 국군 지휘관의 명령으로 동생이 희생되자(실제 동생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포로가 된 진태는 인민군의 일원으로 참여해 복수의 화신이 된다. 진석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형을 찾아간다.

주인공 진태는 국군과 북한군을 오가며 전쟁 영웅이 되지만, 그 동기는 이념이 아니라 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동생 또한 형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다시 찾아간다. 영화는 전쟁을 가족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같은 민족의 비극으로 형상화한다. 진태가 진영을 넘나드는 것은 기회주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이였다. 그러나 상처가 없을 수 없고, 인민군이 된 진태의 얼굴에는 짙은 흉터가 새겨진다³³. 영화는 ‘희생자’와 가족 중심의 서사를 구축한다. 동생을 살리고자 발버둥치는 진태는 가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려 몸부림치는 것이며, 목숨을 버리는 형제애와 별개로 영화 속에서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애와 가족을 내세운 영화지만, 여전히 인민군이나 중공군은 인간이 아닌 사물로서 ‘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극적인 변화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2005)에서 나타난다. 너무 깊은 산골이라 전쟁을 피해간 동막골에서 인민군 패잔병과 국군 탈영병들이 만난다. 대립하던 이들은 평화로운 동막골 주민들에게 동화되어 어느새 공존하게 된다. 동막골은 민족공동체,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적’은 민족 밖에서 등장한다. 동막골이 미공군의 폭격 대상이 되자, 인민군과 국군 병사들은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대공 화기들로 폭격기에 저항하여 마을을 지키고 죽는다. 순수한 민중들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가 외세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여전히 휴머니즘과 민족주의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만큼, 식민지를 다룬 영화에서도 탈민족의 시도는 많았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라디오 테이즈>, <모던 보이>, <기담>, <청연> (윤종찬, 2205) <YMCA 야구단>, <아나키스트> 등 많은 영화들이 식민지의 삶을 천편일률적인 항일의 도식에서 벗어나 재구성하려 했지만, 관객의 반응이 열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전히 항일 투쟁을 다룬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다. <암살>, <밀정>, <항거> 등이 대표적이다. ‘국사’의 힘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항은 이전의 엄숙한 남성 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났다. <암살>과 <항거>가 모두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역사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준다.

33 이후 한국전쟁이나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에서 ‘북한군’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일종의 클리셰처럼 정착한다. (박윤희, 2019, 앞의 책, 221~223) 민족의 역사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전히 ‘적’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하다.

【토론·질의응답】 제3세션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사회: 리 언민 (오비린대)

발언: 위안 칭핑 (중국미디어대)

(발언순) 탕 샤오빙 (화둥사범대)

장 샤오강 (장춘사범대)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이 기훈 (연세대)

장 페이 (난카이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언 (일본어), 홍용일 (중국어)]



리 언민 미디어에 관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시간 동안, 일중한 3국의 세 학자가 매우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사회 변동과 20세기 역사에 대한 각 국민의 인식이나 묘사가 어떻게 미디어에 의해 해석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가령 그 시기 묘사에 대해, 중국에서는 ‘항일전쟁’, 일본에서는 ‘일중전쟁’, 한국에서는 ‘식민지 시기’라 부르는 등,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일본인의 묘사에 있어 중국과 한국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론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국사 대화에서 일관된 방식에 따라,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다른 국가 발표자에게 먼저 질문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학자의 보고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먼저 코멘트나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학자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학자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코멘트하거나 질문

하기 바랍니다. 명찰을 달고 있는 분들은 질문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회의장 뒤편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질문을 소개하거나 선택적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미디어대학 위안칭핑 선생님께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먼저 이름을 말씀하시고,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할지, 누구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안 칭핑

먼저 중국의 학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난카이 대학 장페이 교수님 발표를 듣고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장 교수님이 언급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이 연구한 특정 역사 시기와 대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 연구자들은 종종 한 가지를 잊곤 합니다. 즉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항일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현재라는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상황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혹은 어떤 인물들이 어떤 결과에 직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예를 든다면, 항전이 발발한 후, 최고 지도자들조차도, 장제스, 마오쩌둥, 루스벨트조차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야 이루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악인이라 규정짓고, 또 그들이 친일파로, 점령자를 위해 봉사했다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현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점령군이고, 누가 승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승자입니다. 또 승자에게 복종하는 상황은 일상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날카로운 말씀을 하자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3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 3년이 계속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 대륙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그때 왜 그랬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간과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들보다 더 적극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화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주로 1949년 이전의 중국 영화 역사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역사는 일본과 오늘날의 한국, 물론 북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단어와 문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중국 영화 역사 연구를 하는 저로서, 많은 학자들과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셔도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우리가 죄인이지요. 제가 알

려드릴 사실은, 전면적인 항일전쟁 8년 동안 중국 영화가 매우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항전 8년 중 첫 4년, 1937년 11월 12일 상하이가 함락된 이후부터 1941년 말 진주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른바 ‘고립된 섬 시기(孤島時期)’ 동안에만 25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함락 기간 4년 동안에도 250편 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전 8년 동안에 영화 제작량이 500편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중국 영화가 1905년에 탄생해 1937년 7월 항전 발발 전까지 제작된 영화 수가 총 1086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결론은 항전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중국의 대부분이 함락된 시기에도 중국 영화 시장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국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달 저희 학교 한국 유학생이 박사 논문 주제 발표를 했는데, 주제가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 영화인’ 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오늘 제가 여기서 들은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1949년 이전의 중국과 한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심사위원회 멤버로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는지요? 1948년 이전을 어떻게 ‘대한민국’ 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1948년 이전의 북조선을 ‘한국’ 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리 연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기훈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보충 설명, 조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신가요? 좋습니다, 탕 샤오빙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탕 샤오빙 먼저 일본의 후쿠마 교수님 발표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양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일본에서 전몰한 학생들이 당시 매우 소수이며 소외된 그룹이었음에도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룬 영화 『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점에서, 20세기 1930~40년대 이후 시대에, 민중들이 지식 엘리트 계층에게 어떠한 복잡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몇해 동안 상하이의 좌파 문화를 연구해왔는데, 특히 일본의 좌파 문화가 어떻게 상하이의 좌파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지식인 엘리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또는 일반 대중이 엘리트를 실제로 인정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발표에서 ‘교양’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중국 혁명의 부상과 함께 강력한 반엘리트주의 사회적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좌파의 부상과 함께 일어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또는 반엘리트주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는지요? 후쿠마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장페이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이 언급한 책도 구입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장 교수님의 논문은 일본 통치 시기 일부 중국 일반인이나 지역 엘리트들이 일본인과의 협력 문제, 그들의 일상생활과 인생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 기술과 연구 사이에 도덕적 차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역사학에서는 인물을 평가하고 세상을 논하는 도덕적 역사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평가는 역사 기술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대 전문가주의 역사학의 부상으로 우리는 역사의 진실이나 사실의 표현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이 언급한 티모시 브룩 교수의 『근대 중국의 친일합작 (Collaboration: Japanese Agents and Local Elites in Wartime China)』에는 이런 잊히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도덕적 지식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뚜렷한 종교 전통이 없는 중국의 유교 문화에 있어 역사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기준의 근원이었다.” 장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 전통 문화와 도덕 판단 및 역사 기술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전문가주의 역사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혹은 모종의 중간 정도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리 연민 감사합니다, 이상으 탕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후쿠마 교수님께, 다른 하나는 장 교수님께였습니다. 또 이기훈 교수님의 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기훈 교수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측 학자들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장 샤오강 방금 이기훈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일본사이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훈 교수님께서 영화 자료를 통해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기(1970년대)에 북한 영화를 접한 적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항일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근대사, 특히 중일한 근대사의 맥락에서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청나라를 대체하며 조선반도에 통감부를 설치해 한국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중국, 일본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설립된 이후에도 일본은 조선의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 식민 지배를 가속화했습니다. 조선반도 인민은 항일 독립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항일 의병 운동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등이 이를 반영합니다.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이 이루어졌고, 이는 전 조선반도에서 격렬한 항일 투쟁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근무했던 대련시는 당시 ‘관동주’로 불리며, 일본의 식민 통

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련과 여순에서 조직적인 저항 활동은 드물었습니다. 반면, 조선반도에서는 항일 투쟁이 활발했으며, 1919년의 ‘3.1 운동’ 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식민 교육이 조선반도의 항일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조선과 일본의 병합 이후, 조선인의 태평양 전쟁 참여와 관련된 한국 영화가 있는지, 이 시기의 역사를 한국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리 연민 장춘사범대학의 장샤오강 교수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자 분을 모십니다.

청중 2 우선 후쿠마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주로 태평양전쟁을 다뤘는데, 한국과 중국에서 보면 아마 일본과의 전쟁은 이미 일청전쟁 시대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일청전쟁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훈 선생님께는 한국독립운동에서 상하이의 위상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리 연민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장 선생님에게 여쭙보겠습니다. 이 세션은 각국 역사 속에서 미디어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직접적으로는 미디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로서는 상당히 문제를 내포한 그러한 일기가 출간되기에 이른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출판은 미디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린성정협문사자료위원회(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라는 조직이 출판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그 일기를 쓴 사람의 친족이 그 안에 있었는지, 혹은 일기를 쓴 분은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인지, 한족인지, 만주족인지, 조선족인지 같은 것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것을 출판했는지, 누가 왜 출판했는지를 생각하면 미디어의 역할을 논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연민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발표자께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며, 종합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각각 대략 3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마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쿠마 요시아키 먼저 지식인과 교양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후 초기 일본에서의 논의 방식을 보면 전쟁 시기 지식인을 포함한 리버럴리즘이나 좌익 사상 같은 것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견해가 미디어나 일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적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교양이 탄압받은 것과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지식인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불쌍한 존재, 비애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같은 교양인

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보다 강해진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청전쟁의 이야기 방식인데, 영화 등을 포함한 팝 컬처 안에서는, 1894년에 시작되는 일청전쟁 등은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주 사변 이후, 특히 일중전쟁 이후 중국전쟁은 다뤄지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나 하면 다뤄지는 일이 적다는 것과 일본 전쟁영화 특징으로 적의 얼굴 혹은 현지 주민의 얼굴이 잘 비춰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 어라, 와다쓰미의 소리』의 버마 전선 이야기에서도 현지 주민 등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비애나 혹은 다른 영화에서는 남자들 사이의 유대감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반대로 적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전후 영화의 큰 틀은 해전이나 항공전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적을 비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여럿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 언민 감사합니다. 이제 이기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을 향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장 교수님께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훈 제가 굳이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안 칭평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 입장이라기보다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썼는가를 설명하자면, 한국의 공식 교육에서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부터 사용합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1919년 이후에는 한중, 중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몸에 익은 표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 하 저항을 다룬 영화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만, 다루기 어려운 소재라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다루면, 친일 협력의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는데, 친일 협력을 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항을 다루면 사회주의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두고 영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동주’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빼놨던 마지막 영화가 ‘동주’인데, 한국의 저항시인 윤동주가 어떻게 항일 작품과 운동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를 다룬 영화입니다. 전체를 흑백으로 찍은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리 언민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장 페이 제 발표에 대한 비판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타니 선생님 질문에 답

번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해, 제 발표 주제는 미디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발표를 이 세션에 배치한 것은 회의의 안배입니다. 이 일기는 길림성 기록관 소장품으로, 대략 1950 년대에 자료로 기록관에 이관되었으며, 기록관에 보관되지 않았다면 아마 파기되었을 겁니다. 2011 년경 길림성 당안관(공문서관)과 길림정협문사위(吉林政协文史委)와 협력하여 내부 출판물로 발간했으나, 정식 출판사를 통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주군 일기를 정식 출판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기는 내부 출판인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기의 주인공은 한족입니다.

탕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점령지 주민의 도덕적 판단을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제 질문은 중국의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학은 고대부터 종교, 철학, 정치적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중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종교가 없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은 정치적 정통성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동시에 사회적 도덕 구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학에서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매우 풍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층부나 정치 엘리트의 이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거 중국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문(咨政, 역사 주: 왕조 혹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량치차오는 중국의 25사(史, 역사 주: 중국 역대 왕조의 연대기인 본기(本紀)와 저명한 개인의 사적(事績)을 기록한 열전(列傳)을 요소로 하여 기전체(紀傳體)에 따른 중국 역대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황제의 족보로, 황제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이후 대중 문화의 부상과 민중 가치의 상승으로, 역사에서 민중의 가치를 어떻게 위치 시킬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량치차오가 새로운 역사학을 주장한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학이 제안된 후에도, 우리는 중국에서 이것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 판단이 민족국가의 입장을 피할 수 없으며, 어떤 나라도 이 입장을 피하기 어렵고 자문(咨政)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민중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민족국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인간성의 입장, 혹은 민중의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더 깊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역사를 광범위한 민중에게 돌려줄 수 있으며, 역사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입장입니다.

리 연민 세 분 교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계획대로 정시에 마치는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이 점점 더워지고 있듯이, 우리의 토론 역시 점점 더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해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그룹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4 세션
연구

발표 7 (일본)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

야스오카 겐이치

오사카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노주은]

들어가며

20세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을까? 방대한 축적이 있는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지난 포럼에서 토론된 ‘역사의 대중화’ 문제와의 접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 대화 개최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 전문가 차원에서는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큰 줄기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국가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국가에 어떠한 역사 인식이 가능할까 라는 범주는 각 나라 역사학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시민 개개인의 역사 의식과도 무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사회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역사 교육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역사 인식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온 점은 없었을까. 필자는 “상대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문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인식”도 탐구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필자의 경험도 함께 소개하면서 시민이 서술하는 자신의 역사가 가지는 의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현대 일본 시민의 역사 의식의 한 단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역사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역사 연구의 ‘외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1990년대 이후 ‘경험’이라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과정을 현재의 역사 연구로 이어지는 전환점으로서 파악해 문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20세기의 전쟁, 식민지 지배와 화해를 둘러싸고

20세기 말 냉전 종식으로 인한 변동은 다양한 측면에 걸쳐 있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는 등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개인의 전쟁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철학자, 문학가 등도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¹. 한국 사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 당사자들에 의한 증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증언과 자료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양심적인 역사학자와 활동가들에 의해 전쟁 당시 시스템화된 성폭력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매스미디어와도 궤를 같이하여, 이 시기의 텔레비전 방송은 그 이전과 이후보다 더 많이 전시기의 가해 문제를 다루었다².

시대의 변화는 역사 연구 전반의 변화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 시기 전후 역사학의 전환기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의 국민국가(비판)론일 것이다³. 당시에도, 지금도 니시카와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세분화되어 가는 연구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비판적 연구로 연계시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은 큰 공로이다.

또한 국민국가 비판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어 국민 외부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역사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재일조선인, 류큐·오키나와사, 아이누 민족사 연구가 진전되고, 이와 병행하여 ‘제국의 역사’, ‘식민지의 역사’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연구 분야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⁴.

식민지 연구의 진전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도 변화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상징적인 문제가 종종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변화해왔다는 점이 간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자와 학생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배우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국민국가 틀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전문가들 간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이 시기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변화하면서 역사학이 그동안 중시해왔던 학문과 사회와의 관계도 변질된 측면이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역사 연구를 통해 전쟁 희생에 대한 화해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강제징용을 둘러싼 니시마쓰 건설(구 니시마쓰구미)과 중국인 노동자 및 그 유족 간의 화해이

1 코모리 요우이치, 타카하시 테츠야 공편(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2000. (일본어 원서: 小森陽一, 高橋哲哉編,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 東京大学出版会, 1998.)

2 米倉律, 『「八月ジャーナリズム」と戦後日本: 戦争の記憶はどう作られてきたのか』, 花伝社, 2021.

3 니시카와의 저작은 많은데, 예를 들면 『国民国家論の射程-あるいは“国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柏書房, 1998)이 있다.

4 식민지 연구의 축적에 대해서는 日本植民地研究会編의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アテネ社, 2008) 및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을 참조.

다⁵. 노동 현장의 현 관리자인 중국전력도 가세해 화해가 다져진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바쁘고 규율화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과 유동화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공유가 확실히 가능한 동일본대지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건’과 그곳에서의 ‘경험’으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경험’이 역사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패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세대도 교체되면서 ‘왜 전쟁 경험을 계승해야 하는가’라는 지금까지는 자명했던 질문도 다시 한 번 되묻게 된 상황이 있을 것이다⁶.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연구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처럼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행위, 특히 자신의 역사에 대해 쓰는 행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역사학에서 결코 많지 않다.

국제적으로 보면, 기억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증가와 상호보완적으로 자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술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폴 톰슨(Paul Thompson)은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측면에서 구술사와 통하는 자서전 연구의 경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⁷.

톰슨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자서전과 편지, 일기 등 개인이 쓴 기록(life-writing)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1999년 중국 베이징 대학교 문학연구자 자오바이성(趙白生)의 제안으로 International Autobiography Association이 결성되었다. Life Writing은 자서전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카테고리인데,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7권의 책으로 구성된 통사적 연구 성과가 나왔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1945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⁸.

물론 일본에서도 과거에 쓰인 자서전이나 수기에 대한 역사 연구는 많다. 최근에는 개인이 남긴 기록을 ‘에고 다큐멘터리(エゴ・ドキュメント)’라는 이름으로 다루려는 연구 동향이 있다⁹. 그럼에도 거듭 말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 차원의 역사 서술과 역사학과의 관계는 극히 적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까지 포함한 상호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시민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사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5 内田雅敏, 『元徴用工 和解への道 - 戦時被害と個人請求権』, 筑摩書房, 2020.

6 蘭信三, 小倉康嗣, 今野日出晴, 『なぜ戦争体験を継承するのか: ポスト体験時代の歴史実践』, みずき書林, 2021.

7 Thompson, Paul, Joanna Bornat(2017)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8 Hayes, Patrick ed.(2022) “The Oxford History of Life-Writing: Volume 7: Postwar to Contemporary, 1945-2020” Oxford University Press.

9 長谷川貴彦, 『エゴ・ドキュメントの歴史学』, 岩波書店, 2020.

2. 역사의 ‘현장’

이 문제는 ‘역사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단 학인해 보면, 역사학 자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저조하지만, 역사 연구자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문적인 역사학자(예를 들어, 이소다 미치후미(磯田道史), 고자 유이치(呉座勇一), 요시다 유타카(吉田裕))가 집필한 책들은 수십만부씩 팔렸다. 이는 일본의 독서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포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사 연구를 다루는 ‘준전문가’와의 교류도 고령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존 역사학과 사람들의 연결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역사학과 사람들의 활동이 괴리되어 있고, 전통적 관심과는 또 다르게 존재하는 넓은 의미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연결 지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는 장을 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대중화를 이해할 때에는 각종 콘텐츠 산업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상품화와 소비라는 측면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느끼는 절실한 필요성에 기반한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에 기울이는 관심과 이를 표현한 작품이다.

첫째, 사례로 꼽고 싶은 것은 ‘투병기 문고(闘病記文庫)’이다. 최근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투병기를 모아놓은 코너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병기란 병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정리한 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의 역사다. 왜 이런 작품이 요구되는 것일까. 병에 대한 표준적인 지식이라면 학회나 전문가가 감수한 ‘과학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확률로써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자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표준화할 수 없다. 각자의 상황을 가진 개인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인의 경험을 접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둘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라는 건강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회상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 일본 중부 지방 아이치현(愛知県) 기타나고야시(北名古屋市)에서는 ‘쇼와 일상 박물관(昭和日常博物館)’으로 20세기 서민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 이를 지역 모임에 제공하면서 회상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로부터 수집된 과거의 물건들을 단서로 이야기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고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간사이 지방 교토시(京都市)에서는 고령자의 고독과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모임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시민 활동이 행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지원하는 전문직의 관점에서 사람이 다른 개인의 역사를 접하고 자신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갖는 ‘효용’에 주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

게 새롭게 등장한 개별화된 역사 의식을 둘러싼 실천적 요구와 역사학의 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역사학은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필요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전쟁과 식민주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참고할 만한 것으로 1985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된 학습권 선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서두에서 학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적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국민교육연구소 역).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학습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간토 지방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에 살던 한 재일조선인 여성이 지역 식자학급(識字學級)에서 글자를 익혀 쓴 인상적인 문장은 그녀들의 글을 모은 책의 제목이 되었다.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¹⁰

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국 최초로 규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있는 지역에서 쓰인 이 문장은 사람들의 권리와 역사 인식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3.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와 자기역사(自分史)

역사를 서술할 권리라고 말할 때, 그 서술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 이로카와 다이키치(1925-2021)는 1970년대 ‘자기역사(自分史)’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자기역사(自分史)라는 말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왜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로카와의 주장에는 오늘날 검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우선 이로카와의 역사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역사 연구의 전개와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쓰는 주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메이지 정신사(明治精神史)』를 비롯한 역사학자로서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일본 연구의 고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중사라는 역사적 관점은 사회와 마주하면서 만들어졌다. 특히 1960년 안보투쟁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학생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

10 康潤伊, 鈴木宏子, 丹野清人編, 『わたしもじだいのいちぶです 川崎桜本・ハルモ二たちがつづった生活史』, 日本評論社, 2019.

에서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최대 규모의 대중적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대중 동원을 동반한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대한 항의 역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만들었다. 이로카와는 이 일련의 움직임에 역사학자로서 참가하며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연마해 왔다. 당시 자명하게 여겨졌던 전위(前衛)의 지도와 대중(과 그 행동)의 틀을 되묻는 시좌는 이 시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다¹¹.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계속하며 민중 스스로가 헌법을 구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68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쓰카이치(五日市) 헌법 초안은 일본 지역 사회에 사는 민중들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로카와는 학생, 시민들과 함께 필드워크를 진행하면서 이 희귀한 자료를 만나게 된 것이지만 물론 역사가가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자료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시모토 요시오(橋本義夫, 1902-1985)와의 만남이 있었다.

하시모토는 전쟁 전에 태어나 책과 역사를 매우 좋아해 서점을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 활동을 꿈꿨던 인물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시기에는 전쟁 협력의 깃발을 휘날렸던 것에 대해 전후 ‘전쟁 책임 자기 조서(戦争責任自己調書)’를 작성하여 자신의 죄상을 기술하는 깊이 자기 자신과 맞선 사람이었다¹².

이 하시모토 요시오라는 인물은 지방에 역사와 관련된 기념비를 세우는 활동 등을 병행하며 195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의 실감을 기록하는 것을 장려했다. 관계자도 늘어났고, 196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책자가 만들어졌다. 이로카와는 이러한 하시모토의 실천을 보고 「현대의 상민: 하시모토 요시오 론(現代の常民: 橋本義夫論)」을 집필하였다¹³.

그 후 1970년,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써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말을 붙인 『어떤 쇼와사: ‘자기 역사’의 시도(ある昭和史: 「自分史」の試み)』를 집필했다. 하시모토의 부름에 응하는 형태로 역사학자인 자신도 역사를 살아온 경험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소하였다. 이 책은 그해 마이니치출판문화상(毎日出版文化賞)을 수상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얻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이로카와 다이키치라는 개성적인 역사학자가 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지도’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대를 마주하는 실천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의 안보 경험과 겹친다.

이로카와의 시작 동기는 쇼와(昭和) 전전기(戦前期)를 경험한 세대로서 전쟁을 수행한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되짚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오키나와(沖縄)와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자기 역사(自分史) 모임이

11 色川大吉의 『自分史: その理念と試み』(講談社, 1992) 수록의 「六月には重い霖雨が降る」를 참조.

12 橋本義夫(橋本綱二 편), 『暴風雨の中で』(私家版), 1996.

13 色川大吉의 『ある昭和史-自分史の試み』(中央公論社, 1975)에 수록됨.

퍼져나갔고, 자기 역사(自分史)를 대상으로 한 자비 출판이 지역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보급되었다. 이로카와 자신도 각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기 역사(自分史)에 대해 논의했다.

그 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기 역사(自分史)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형 신문사에서 자기 역사(自分史)를 작성하기 위한 연표를 판매하거나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자기 역사(自分史)를 쓰는 등의 사업에 뛰어들었다¹⁴. 또한 취업 활동이나 학교 교육에서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4. 자기 역사(自分史)와 지역사(地域史)

나는 ‘자기 역사(自分史)’를 쓴다는 실천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지역이나 또 다른 타자와의 연결이 밝혀지는 탐구이며, 그렇게 개인과 지역, 국가의 역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학과 교차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서 여기서는 필자 자신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나가노현(長野県) 남부 시모이나(下伊那) 지방의 역사에 주목하고 싶다. 특히 1970년대부터 자기 역사(自分史)의 문제 제기를 지역사(地域史) 탐구와 자각적으로 연결시켜 파악한 민속학자 고토 소이치로(後藤宗一郎, 1933-2003)의 실천을 시작으로 만주 이민의 역사를 밝혀온 시민 활동과 연결시켜 본다.

고토 소이치로는 메이지 대학(明治大学)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후 안보투쟁 후에는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875-1962)의 연구를 통해 지역과 마주하는 학문으로서 민속학을 재조명하고자 했었다. 고토는 자신의 고향인 나가노현(長野県) 남부 토야마(遠山) 지역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 편찬을 이끌었다. 고토는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유대를 살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 편찬을 추진했다. 그것은 마을의 자기 역사(自分史)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토와 지역 주민과의 연계는 역사서 발간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된 마을의 역사를 주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고 마을지(村誌)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토야마 쇼민 대학(遠山常民大学)이 결성되었다¹⁵. 고토가 제창한 쇼민 대학 운동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이후 전국에 여러 연대가 생겨났고, 고토는 각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쇼민 대학의 실천은 인접한 시정촌(市町村)으로 확산돼 이다역사 대학(飯田歴史大学)이라는 학습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고토는 그곳에서 열린 강좌에서 지역의 역사와 자신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서 지향하는 자기 이해로서의 지역사는 부(負)의 역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역사를 밝히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다역사 대학의 강좌에서는 전전(戰前)에 개척단으로서 중국으로 건너간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의 증언이 이루

14 小林多寿子の『物語られる「人生」-自分史を書くということ』(学陽書房, 1997), 釋七月子의 『「自分史」は語る-戦争の記憶、自分史における虚構、台湾日本語世代の自分史-』(晃洋書房, 2020)를 참조.

15 地域文化研究会編, 『地域に根ざす民衆文化の創造』, 藤原書店, 2016.

어졌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보내진 수많은 만주 이민의 역사의 규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만주 이민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을 기반으로 2000년대부터 전쟁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다시 역사 연구소(飯田市歴史研究所)라는 지자체 단위의 역사 연구 전문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과 연동해갔다¹⁶. 인구 10만 명의 이다시(飯田市)는 지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연구자를 임기제 연구원으로 채용해 지역 역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역사 연구소와 시민에 의한 이 구술 조사 활동은 함께 걸음을 내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 왔다. 시민들이 결성한 만주 개척을 구전하는 모임 중에는 집단 자결에서 살아남아 귀국한 당사자들도 있었다. 상처 입은 역사를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씩 시간을 들여 신뢰가 쌓이고 지역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전후 일중우호운동(日中友好運動)도 활발했다. 또한 중국 잔류 일본인의 아버지로서 또 후원자로서 전국에 문제를 호소해 온 승려가 있는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 의한 방대한 축적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2010년대에는 만몽개척평화기념관(滿蒙開拓平和記念館)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¹⁷. 일중재불전(日中再不戰) 비(碑)가 있는 기념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역의 역사가 쓰일 때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시모이나(下伊那) 지방의 사례는 주민 스스로의 학습과 조사 및 연구가 가진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치며

필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다시 역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자기 역사(自分史)를 쓸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¹⁸.

여기에서 쓰여진, 중국에 뿌리를 둔 한 여성의 자기 역사(自分史)를 다루고자 한다¹⁹. 자기 역사(自分史)를 쓰기 위해 세미나에 모인 아이자와 리이(相沢莉依) 씨는 어머니가 중국 잔류 부인이었다. 전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자와 씨는 그곳에서 자랐고, 대학 직원으로 일하다가 1990년대에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면서 일본어도 익혔다.

16 飯田市歴史研究所에 대해서는 이다시 역사 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ity.iida.lg.jp/soshiki/39/>

17 만몽개척평화기념관(阿智村)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manmoukinenkan.com/>

18 세미나의 기록은 安岡健一の「『個』の歴史から地域を見る:『自分史』が問い直すもの」(『飯田市歴史研究所年報』16号, 2019)를 참조.

19 安岡健一, 「ある自分史にみる満洲の記憶と地域史研究の可能性」, 佐藤量, 菅野智博, 湯川真樹江編, 『戦後日本の満洲記憶』, 東方書店, 2020.

그녀가 집필한 『운-행운 행복으로 축복받은 평범한 인생 (幸-幸運幸福に恵まれた平凡な人生)』(2016)이라는 자기 역사(自分史)는 자신의 반평생을 돌아본 것으로,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며 살아온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경험을 담은 기록이다. 이 지역의 역사 연구가 아무리 활발해도 그녀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절반은 중국 역사, 절반은 일본 역사로 구성된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두 나라 역사에 모두 정통하지 않으면 그 경험의 전모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독특한 경로를 포괄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당사자인 아이자와 씨 자신이었다. 이 책이 2021년 ‘여성문화상(女性文化賞)’을 수상한 것은 상징적이며, 지역의 역사 문화가 다양한 뿌리를 가진 당사자에 의해 그려질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²⁰.

세미나의 장을 공유한 사람들도 중국 귀국자인 아이자와 씨를 얼굴이 보이는 존재로 만나게 된 것이다. 아이자와 씨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역사를 짚어온 주체로서 이야기하는 장이 공적으로 구성될 때 비로소 실제 다수의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화 된 현재의 시민에 걸맞은 역사 의식이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흘러들어 녹아들어 있다. ‘나’의 역사가 쓰이고 공유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히스토리의 문제 제기는 국민국가의 틀을 고정시키고 그 안을 균질화하는 상상력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²¹. 구체적인 단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역사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과거 자체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역사학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나 심판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 왔던 것에 더하여, 사람들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도 새롭게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 역할을 해나감으로써 가능해지는 다른 전문가 혹은 많은 비전문가와의 연계, 그리고 다음 시대의 보다 확장된 역사 연구의 주역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역사학자와 더불어 가족사를 포함한 자신 역사(自分史)를 함께 쓰는 워크숍 등 ‘현장’의 형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역사를 서술할 권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역사학의 시기 구분에서 말하자면 특히 지금 현재와 접점을 갖는 현대사가 담당하는 직능의 하나로서 더해진다면, 국경을 초월한 대화도 촉진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역사학의 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각자 살고 있는 사회의 ‘지금, 여기’에서의 역사 의식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20 「女性文化賞に飯田の中国残留日本人2世相沢さん 平和への思い 日本語で紡ぐ」, 『信濃毎日新聞』, 2021년 10월 19일.

21 콘라트, 제바스티안(小田原琳訳),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批判的歴史叙述のために』, 岩波書店, 2021.

제 4 세션
연구

발표 8 (한국)



‘발전’ 너머,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

양 지혜

동북아역사재단

1. 2011. 3. 11.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글’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글(문어)이 아닌 말(구어)로 발표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라는 묵직한 주제 앞에서, 2011. 3. 11.이라는 7개의 숫자를 먼저 꺼내보고 싶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이 있던 날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이 날이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자에게 어떤 세대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스스로를 2011년 3월 11일 이후의 세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지진 이후 10여년의 시간동안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여러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 비극 앞에서 어떤 고민을 나누었는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2. 3.11과 인류세, 그리고 한국근대 경제사 연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2021년은 어떤 해였을지 궁금합니다. 3.11이 10주기가 되던 2021년, 한국의 지식장(知識場)에서 이 사건은 거의 완전히 잊혔습니다. 한국 최대의 연구 검색시스템인 Riss.kr에 따르면, 그해 한국에서 발표된 동일본대지진 관련 연구는 5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생태환경(ecological environment)에 대한 관심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전지구적 팬데믹의 유행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부상한 이 개념은 언론, 출판, 학술 등 지식장 전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근대경제사 연구는 ‘경제’와 ‘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이러한 망각과 부상의 출렁임에 다소 거리를 둔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흐름을 거칠게 몇 가지 기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 이전까지 전개된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대립입니다¹. 해방 이후 식민사학으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우며 제기된 ‘수탈론’은 초기에는 일본제국주의가 강제력을 이용해 토지와 미곡을 빼앗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조건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원시적 수탈론’은 이후 연구가 심화되며 ‘구조적 수탈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본주의화를 통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그 개발의 목적은 토지, 쌀, 지하자원, 노동력 등을 수탈하는데 있었다는 논의입니다. 이와 동시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하 경제성장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불리는 논의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해 경제개발을 촉진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역시 성장을 도모했으며, 이후 그 시설과 맨 파워(man power)가 식민지 유산으로 해방 후의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이항대립구도는 2000년대 이후 ‘식민지 근대성론’이 제기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근대성론은 기존의 논의가 ‘근대’를 곧 ‘선(善)’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근대주의’의 단선적 발전주의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담론을 벗어나, 실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². 이 과정 속에서 특히, 경제사 연구에서는 ‘저항’과 ‘협력’사이의 양자택일형의 대립적 시각을 넘어, 수도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서 민족을 가로지르는 협력의 사례 등이 주목되었습니다³.

3. 발전 너머에서: 생태-경제사의 접근법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분기점 이후의 ‘각성’을 기억하려는 움직임들, 이를 토대로 ‘발전’과 ‘성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다양한 시도들 역시 이러한 틈새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연구는 한쪽에서는 ‘수탈론’의 재등장이라는 비판을, 다른 한쪽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파편화’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 연구의 구체적 양상이 제대로 정리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해사(公害史)나 환경사(環境史) 연구가 높은 수준에 오른 중국이나 일본 학계와 비교해(서구의 Asian studies를 포함), 한국에서는 환경사

1 해방 이후 한국근대 경제사연구에 대한 사학사 정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007.;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박찬승, 『21세기 한국사학의 진로』, 한양대출판부, 2019.; 특히, 식민지 지배하에서 전개된 중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기획이었던 ‘조선공업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는 류상운, 「한국 근현대 경제사 연구에서 제시된 역사상」, 『경제사학』 55, 2013.; 배석만, 「일제강점기 공업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역사와세계』 48, 2015.; 배성준, 『한국 근대 공업사 1876~1945』, 푸른역사, 2022를 참고.

2 식민지근대성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대담) 식민지근대성론의 역사와 현재」, 『역사비평』 136, 2021.를 참고.

3 윤해동 역음,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3에 수록된 연구들을 참고.

적 시각이나 접근 역시 아직 학문적 발언권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근 발표되는 여러 연구 중 발전과 성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생태-경제를 연결하는 역사연구(ecology-economy history)의 특징들과,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슬라이드 1).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근대화 이론’의 성립을 계기로 전지구적인 경제성장 논의로 그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며 경제와 환경의 충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의 전지구적인 에너지·기후·환경·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를 성찰하는 생태-경제학의 방법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여러 역사 연구 역시,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개발’을 인간 누구나 본질적으로 추구한다는 기존 경제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개발’을 역사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발전욕망 외에도 협동·상호성과 같은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개념은 제국주의하의 식민지 지배와 냉전기의 체제경쟁 속에서 통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 속에서 기존에는 엘리트층 중심으로 해왔던 분석의 대상을, 지역주민이나 노동자와 같은 ‘개발’의 이해당사자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 역시, 기존 경제사에서는 이해관계를 켜는 고립된 개인으로 정의했다면, 대안적 흐름에서는 세계, 국가, 지역, 마을, 가족과 같은 다중 스케일의 촘촘한 관계망 속에 놓인 관계적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방법 역시 기존에는 GDP·GNP와 같은 화폐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양적 분석을 중시했다면, 대안적 시각에서는 화폐적 지표로 환산할 수 없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지표나 지표중심 접근에서 탈피한 질적 접근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시각에서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의 모델을

구분	기존 경제사	생태-경제사
개발의 정의	경제적 욕망에 의한 자연발생적 개념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개념
분석의 대상	전문가(관료·기업·지식인) 중심	이해당사자(지역주민·노동자 등) 포함
인간의 개념	고립된 개인	다중 스케일의 관계망 속 개인
연구 방향	하향식	상향식
연구 방법	화폐적 지표·양적분석	물리적·생물학적 지표, 탈지표·질적분석
	경제학중심	다학제
추구	효율과 최적의 성장·배분·후생	지속가능성과 필요충족
평가	비용편익 분석	다차원적 가치 측정
이념	성장주의, 공리주의, 기능주의	지속가능주의, 생태환경주의
논점	경제성장의 경로	경제성장의 다면성

※ 출처: Arturo Escobar, *Encountering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Potter et al., *Geographies of Development*, Prentice Hall, 1999.;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2013.; 김병권,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2023.

슬라이드 1 기존 경제사와 생태-경제사의 비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대안적 시각에서는 각 개발 현장의 고유한 정치·역사·문화·사회·공간·생태적 특성의 종합 속에서 그 고유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특정 공간·계층·환경에 전가해 왔던 불평등과 피해를 밝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에 대한 접근을 성찰하며 이를 대신할 대안적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4. 식민지 조선의 생태-경제사: 몇 가지 사례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개발을 생태-경제사적으로 접근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개발과 ‘무지 (無知)’의 비극

아래 사진(슬라이드 2)은 2023년 발표된 강정원의 연구에 수록된 것으로,⁴ 왕자제지(王子製紙) 공장의 폐수를 온천과 같은 ‘약수(藥水)’로 오인한 민중들이 폐수가 나오는 하수구로 몰려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폐수에는 제지원료인 원목을 녹이기 위해 혼합된 유황과 양재물, 기타 유해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재를 썬 폐수가 펄펄 끓는 ‘온천’ 처럼 방류되자, 그 유해성을 모르는 민중들이 이를 약수로 오인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왕자제지는 이미 일본 본토에서 1911년부터 어민들의 항의를 받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위로금을 지불하거나 소송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이곳이 ‘조선인 까닭’에 “매우 수고스럽고” “성가신” 폐액 처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공해에 대한 식민지민의 무지,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오염수를 제 몸 안팎에 끼얹고 있는 이 비극적 장면은 식민지의 민중들에게 ‘개



<사진1> 조선 공장의 온천풀



<사진2> 하수도에서 병을 치료한다는 군중

※ 출처: <사진1>은 成田潔英(1958), 『王子製紙社史』 3, <사진2>는 『朝鮮日報』 1933.8.29.; 강정원, 「일제시기 펄프제지 산업의 확장과 ‘개발재난’-王子製紙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023에서 재인용.

슬라이드 2

4 강정원, 「일제시기 펄프제지 산업의 확장과 ‘개발재난’ -王子製紙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023.

발’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미 폐수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는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오염물 방류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의 경제구조가 가진 극단적 단면을 보여줍니다.

(2) 개발과 재난

한편, 개발에 대한 낭만적 구상이 불러온 비극을 다룬 사례 역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 조선의 대형 댐 개발과 북부의 산림지대 내 개척촌 조성을 다룬 양지혜의 연구입니다.

먼저, 전력 개발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⁵. 아래 만평(슬라이드 3)의 묘사처럼, 식민지기 일본의 기업들은 조선 북부, 즉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유역변경식 기술’이라는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 대형 댐을 잇달아 건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위 ‘조선공업화’로 불리는 중공업화의 동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력과 중공업화의 전개라는 ‘생산력 증가의 지표’에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댐 건설 이후 급격한 지역 환경에 재편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허술하게 건설한 제방의 붕괴, 봄철의 잦은 기근, 여름철의 빈번한 홍수가 끊임없이 발생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일본 본토에서는 수력전력 개발에 앞서 수리권 이용료를 기업에 강제해 하천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조선에서는 기업에게 이러한 비용을 면제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왕자제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규제 공백’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역설적으로, 개발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 하나의 거대한 재난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슬라이드 3

5 양지혜,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2020.

이어서, 조선총독부와 여러 기업들이 조선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실시한 개척촌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⁶ 총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일본 제국 내 과잉인구, 특히 한반도 내의 화전민·빈농·이재민·개발난민을 조선 북부의 산림에 입식(入植)시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옥토(沃土)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구상했습니다. 기획자들은 홋카이도 등 일본제국 내에서 최선의 고지대 농학 기술과 종자를 도입하는 한편, 상품 유통망을 확장해 개척촌에서 과학·효율·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함경남도 와 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산림에 화전민, 빈농, 이재민 등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고지대의 토양과 극단적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며, 사업은 전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는 기근 속에 굶어죽는 자들이 속출하였고, 총독부는 ‘개척촌’이라는 정착형 농촌이 아닌, 각종 건설 공사장으로의 노동이민 정책으로 빈민 인구 수용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 현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추진된 개발정책이 또 다른 재난으로 끝난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3) 전쟁 속의 폭동

이번에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하(戰時下)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2014년 발표된 가토 게이키의 연구에서는,⁷ 1938년 황해도 봉산군의 아사노(淺野)시멘트공장에 대한 주민운동의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아사노시멘트 공장의 매연과 돌가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공장 측에 수차례 ‘방진 설비’ 등의 공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사노시멘트공장이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 수많은 공장이 있고 (….) 방진기계가 없으면 부근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일본 본토에서 아사노시멘트는 일찍부터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의 전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조선인들 역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당국의 규제와 공장의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분노한 지역주민 200~300여 명이 공장을 습격해 설비를 파괴하는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중공업화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식민지에서의 공업 투자’라는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 글은 급격한 군수공업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민중의 ‘폭력’과 기업·민중 사이의 ‘충돌’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해’가 아닌 ‘폭력’만이 주목을 받아, 공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회사 부근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매연을 마시는 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당시 회사 측 담당자가 남긴 이 발언은 전시하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6 양지혜, 「탁상 위의 유토피아: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조성과 실패」, 『사림』, 81, 2022.

7 加藤圭木, 「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戰時期黃海道鳳山郡を中心に-」, 『史海』 61, 2014.

(4) 공해, 식민지의 유산?

이러한 고민은 해방 후 식민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식민지 유산은 주로 철도, 항만 등의 물적 유산이나 식민 지하에 육성된 기술·노동자 등의 인적 유산을 의미했습니다⁸.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전개된 일본으로부터의 공해수출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속도전 방식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약 등 각종) 공해 유출, 한반도 남동해연안 (일본과 마주보는 해안지역으로, 1970년 야쓰기구상에 기초해 건설) 공업지대로의 산업공해 오염의 전가, 또한 ‘원조’ 또는 ‘투자’ 라는 명목으로 일본제국의 역사에서 시작된 물자·지식·기술 등의 intra-Asia network가 1970년대에 부활했다¹⁰는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정, 식민지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이 글들은 식민지하의 무분별한 개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폐광산들,¹¹ 공해에 노출되어 병을 앓는 몸이야말로 식민지로부터 이어진 ‘느린 폭력’ 이자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유산’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²

5. 발전 너머의 역사학, 한계와 가능성

한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우선주의’가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한편으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¹³ 2019년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본격화된 역사부정론의 강화¹⁴ 등으로 인해, 현실정치와 학문이 대치해야 하는 상황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역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 온 한국근현대사는 ‘진영 논리’의 틀 안으로 쉬이 환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8 관련 논쟁에 대해서는 허수열, 「11장. 공업화유산」,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책세상, 2012;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이숲, 2015를 참고.

9 신재준, 「1970년 전후 공해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역사문제연구』 45, 2021; 고태우, 「1970년대 한국의 공해 상황과 재난 인식」, 『개념과 소통』 28, 2021; 이슬기, 「농약을 중심으로 본 녹색혁명: 1970년대 중산과 공해에 가려진 농약 중독」, 『한국과학사학회지』 43-1, 2021; KANG Yeonsil, “Transnational Hazard: A History of Asbestos in South Korea, 1938-1993”,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3-2, 2021; 양지혜, 「1970년대 한일 간 ‘발전’과 ‘환경’의 뒤얽힌 정치: 중화학공업화 전환과 일본 공해산업수입을 중심으로」(forthcoming).

10 해방후 일본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ODA와 일본의 식민지·점령하 동아시아 ‘경제/환경’ 지배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Aaron Moore, Constructing East Asia: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 Press, 2013; Mizuno, Hiromi, et al., eds. Engineering Asia: Technology, Colonial Development, and the Cold War Order. Bloomsbury Publishing, 2020; David Fedman, Seeds of Control: Japan’s Empire of Forestry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를 참조.

11 양지혜, 「근현대 한국의 광업 개발과 ‘공해(公害)’라는 느린 폭력」, 『역사비평』 134, 2021.

12 양지혜,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내일을 여는 역사』, 79, 2020.

13 극우주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된 문제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가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서술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그 동력이 상실되었으며,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의 외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다.

14 일본군 ‘위안부’, 전시하의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피해를 전면 부정하는 역사관으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 연구소, 한국의 낙성대경제연구소, 미국의 마크 램지어 등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1 년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을 뚫고 새로운 역사상이 나타나는
점에 더 많은 주목을 바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 으로서의 세
계가 아닌, 이웃하며 살아가는 ‘장소’ 로서의 세계를, 만물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 팽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새로
운 역사관 말입니다. 이들 시도에는 많은 가능성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
를 빌려, 이들 연구가 더 의미있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4 세션
연구

발표 9 (중국)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천 홍민

저장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

근대 중일관계에서 일본 군인은 중국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일본 군부라는 개념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현재 중국 역사학계에서 ‘일본 군부’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¹. 이 논문은 개념사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시기(1912~1949년) ‘일본 군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비판을 초보적으로 제시, 분석함으로써, 근대중일관계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군벌”에서 “일본 군벌”로

중국 고전에도 ‘군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군인들의 전투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². 근대적 의미에서의 ‘군벌’ 개념은 19세기 1880년대(다이쇼 초기) 일본에서 탄생했는데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 학자 마츠시타 요시오는 ‘군벌’을 군대 내에서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 집단으로 정의한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그 기본 특징이라는 것이다³. 1916년 위안스카이(袁

1 중국 학술데이터베이스(“中国知网”, cnki.net) 검색 결과에 의하면,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일본군국주의”, “일본제국주의”, “일본침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 군벌”을 언급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데, 주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徐勇《近代中日两国军阀政治现象及其政治文化比较》(《思想理论战线》2022年第3期)、徐勇《日本的军部政治与法西斯主义的确立》(《历史研究》1988年第4期)

·陶海洋《近代日本军阀破坏国内政党政治——基于〈东方杂志〉的述评》(《江苏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7年第4期)

·赵庆云《“日本人民”与“军阀政府”的辨析——济南惨案后中国报刊舆论对日认识的一个侧面》(《五邑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年第3期)

2 谢蔚:《试析“军阀”古义的形成》,《历史教学(高校版)》2009年第1期。

3 徐勇:《近现代军阀现象的政治文化分析——兼考军阀概念输入中国之成因》,《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9年第5期,p.66

世凱)가 사망한 후, 중국에서도 군인 세력들이 파벌 분쟁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군벌’ 개념을 빌려 국내 난국을 비판했다. 학자 쉬융의 연구에 따르면, 군벌이라는 단어는 5.4운동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1920년대에는 유행어로 널리 파급되었다⁴. 중국과 일본의 국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된 ‘군벌’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다. 즉 외교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빌붙고 내부적으로는 규율 문란으로 민중에게 해를 입히는 등 복잡한 속성을 더해갔다.

‘군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 군벌’이라는 단어도 중국 언론에 등장했다. 중국 신문 검색 시스템(‘全国报刊网索引网’)에서 검색해보면, 1919~1949년 사이 ‘일본 군벌’을 언급한 기사는 총 851건이다.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두 기사는 각각 1919년 2월 11일자 ‘민국일보’에 게재된 추창(楚伧)의 ‘일본 군무파에게 묻다’와 1919년 3월 21일자 ‘시보’에 게재된 ‘일본 군벌 폐지 실행’이라는 기사다.

위 도표1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민국 시기 중국 신문 기사 제목에 ‘일본 군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5개의 시기를 보면, 일본의 대중 군사 침략과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19~1920년 사이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일 양국이 산둥 문제를 두고 치열한 분쟁을 벌였던 시기였다. 두 번째는 1928년으로, 일본이 북벌군(北伐軍)을 방해하고 ‘지난 참사(濟南慘案)’를 일으켰던 해다. 세 번째는 1931~1933년 사이로, 일본이 9.18사건을 일으켜 동북을 침략하고 전쟁을 화북 지역으로 확산시킨 시기였다. 네 번째는 1937~1941년 사이로, 일본의 중국 전역에 대한 침략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항일투쟁기였다. 다섯 번째는 1945년으로,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 항복하게 되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했던 해였다. 특히 주목할 현상은, 1937~1941년 사이 5년 동안 매년 평균 80건 이상인 데 비해, 1942년에는 전년도의 65건에서 단 2건으로 급감했고, 1943년에는 15건, 1944년에도 단 2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3년 동안 기사에 언급된 것은 매년 평균 7건도 되지 않았다. 이 두 시기 모두 중국의 전면적인 항전기에 속하는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그 원인을 유추해 본다면, 1941년 말 태평양전쟁 발발로 중국 전선이 연합군과 연결되었고, 일본에 대한 항전 승리가 기본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색채가 농후한 ‘일본 군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본 군대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책 제목 혹은 목차에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이 신문보도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신문보도가 새로운 것과 적시성을 추구하는 데에 비해, 출판물은 출간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단대학 도서관 룡상양(龙向洋)연구원이 주도한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기획프로젝트 ‘중화민국 시기 도서 목록 데이터 베이스(民国时期图书目录资料库, 중국과 해외 주요 도서관 장서 목록)’ 검색 결과에 의하면, 민국시기 ‘일본 군벌’과 관련된 저서는 총 28권으로 집계된다. 그 중 제목

4 徐勇:《近现代军阀现象的政治文化分析——兼考军阀概念输入中国之成因》,《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9年第5期,p.62

중화민국시기 중국 신문기사 제목에 “일본군벌” 이 포함된 기사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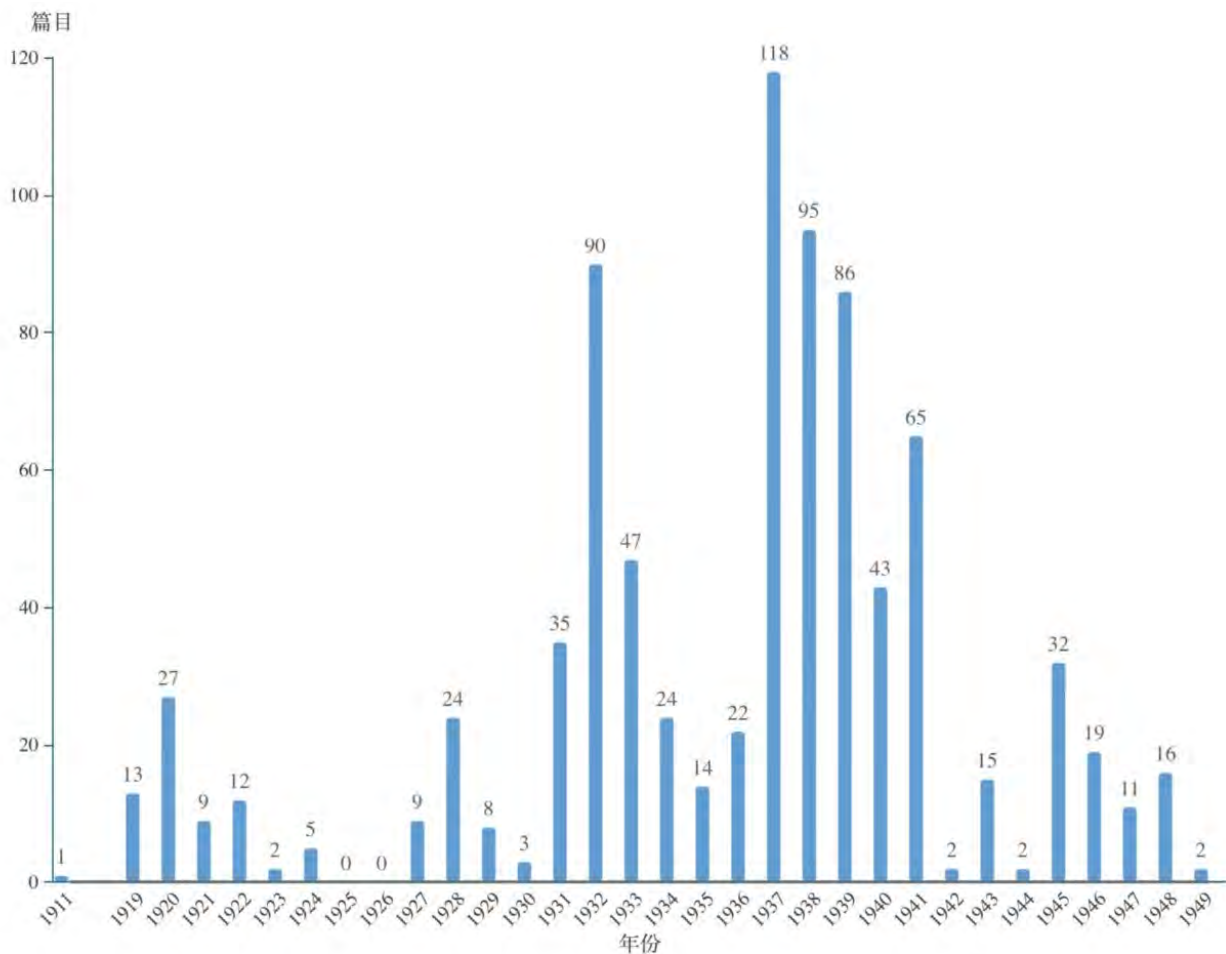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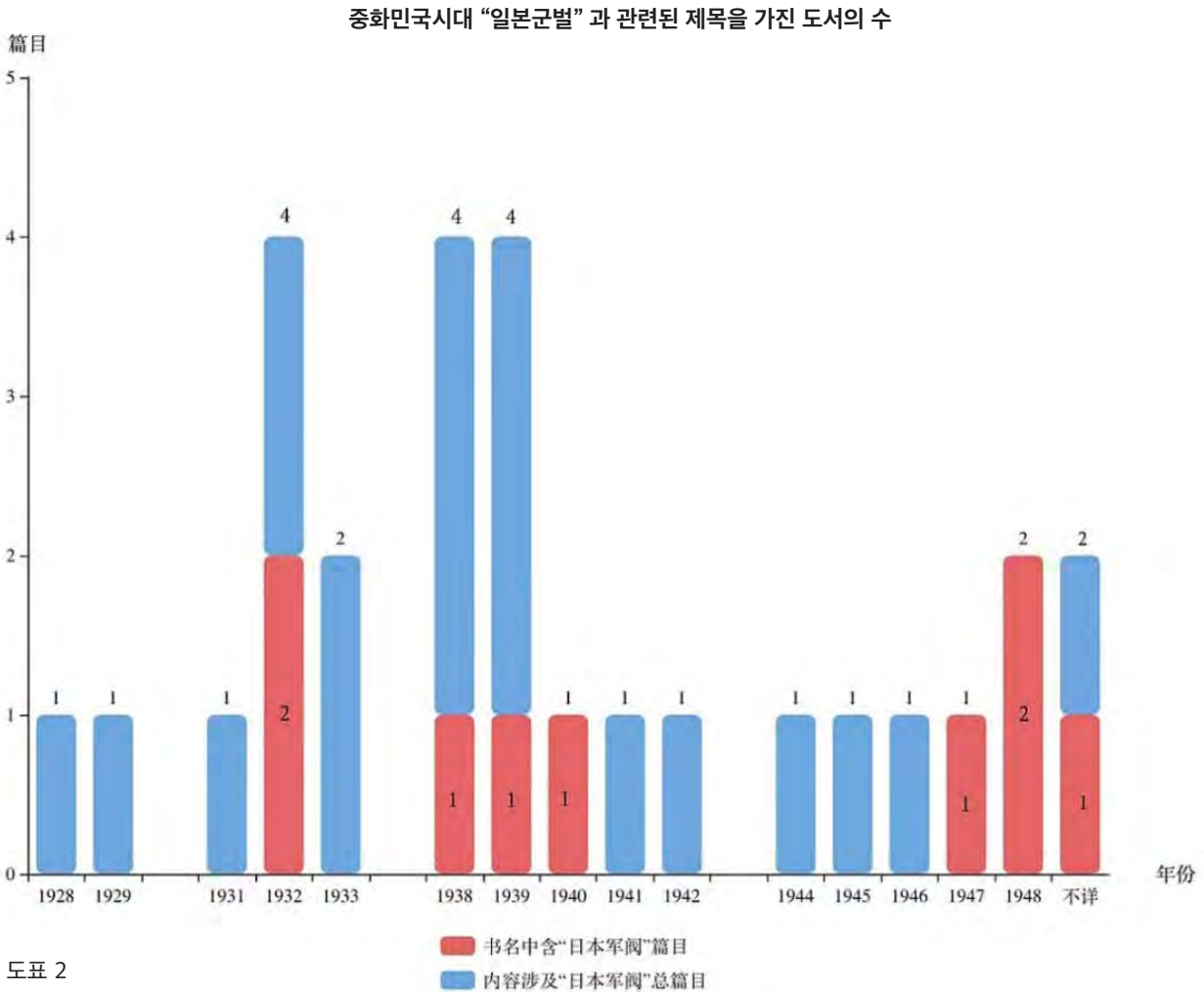
도표 1

자료 출처: 중국 신문 검색 시스템

에서 직접 ‘일본 군벌’ 이 표기된 책은 9권이다.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1932년 5월 북평 취빈각(北平萃斌閣)에서 출판한 차오중산(曹重三)의 『일본 군벌의 대중국 간섭 강경화 및 파시즘 운동』(일본의 최근 정세 변화(《对华硬化之军阀干政与法西斯运动(日本最近政情之演变)》)이다. 그리고 그 해 8월에는 상해의 ‘시사편역사’에서 일본인 사토 기요가츠(佐藤清勝)의 『동북 문제와 일본 군벌의 대륙 정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처럼 1932년에 ‘일본 군벌’이라는 제목을 단 도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유는, 그 전 해 일본이 중국 동북부를 침략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군벌’과 관련된 도서가 1932~1933년에 8권, 1938~1939년에 6권이 출판되는데, 이는 다른 해에 비해 많은 기록이었다. 모두 일본의 대중 침략이 확대된 후에 출판된 것인데, 이 시기에는 신문에서의 노출 빈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 중국인들의 “일본 군벌” 인식과 활용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인들이 사용한 ‘일본 군벌’이라는 말은 상당히 광범위



하게 파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군부, 침중 일본군을 가리키며, 특히 고위 군인을 특정할 때 사용되었다. 가령 1927년 6월 12일 상하이 ‘시사신보(時事新报)’가 실은 ‘일본 군벌 청도에 도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본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대장의 중국행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군벌’ 표현은 주로 일본 침략의 부당성과 침략이 필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학살 행위를 폭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 사회 구조에 대한 학문적 탐구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차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 일본 군벌의 형성사와 현황, 세력과 인물을 연구하여 지피지기 중국인이 되자

1922년, 류푸(刘馥)가 『일본 군벌론』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힐 때, “일본 군벌이 어떻게 전국을 지배하는지, 그 방법은 어떤지, 그 내부의 세력은 어떤지, 지도자 인물은 누구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또한 우리 중국인이 반드시 연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일본 군벌론』은 서론과 네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본 군벌의 기원(문화, 헌법, 관제, 국방 등의 관점에서의 관찰), 일본 군벌의 현황(육해군, 정치, 외교, 원로, 관료, 재벌, 정당 등과의 관계), 일본 군벌의 내용(육군벌, 해군벌, 육해군벌의 내외 정략 등), 일본 군벌의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7년 후의 1929년, 마오펑린(繆凤林)이 같은 제목을 단 또 다른 『일본 군벌론』을 난징 『사학잡지』에 발표한다. 마오펑린의 글은 서론, 결론 및 여덟 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제6장까지는 주로 일본측 자료를 제시하고, 제7장에서 제9장까지는 일본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의견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⁵. 사실, 당시 중국 매체에 발표된 일본 군벌의 역사와 특성을 분석하는 문장들은 대부분 일본인의 연구성과를 참고한 것들이었다.

1935년 주간지 ‘한혈주간(汗血周刊)’에 실린 ‘일본 군벌과 일본 정치’라는 글은 일본 군벌이 일본 정치에서 특수한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내각과 대립하는 이른바 ‘군부’의 헌법적 지위”, “군부대신무관제(軍部大臣武官制)”, “국회가 아닌 천황에 대한 일본 내각의 책임제도”, “내각의원 역임자만이 총리대신으로 선출 가능한 관습 시스템”, “일본 군벌이 지방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1901년 이후 일본에서 결성된 20개의 내각 중 10개의 내각이 군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전쟁만이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공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일본 지배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지주들은 더 이상 정당을 신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군벌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본 군벌은 일본 정치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문장의 귀착점은 일본 군벌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였다. 인용하면 이렇다.

“일본 군벌의 정치력 증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중화민족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암담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을 되살리고 민족적 비극을 해소하려면 강력한 정치 통치 하에서 일본 군벌의 폭력에 맞선 국가 방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⁶

이러한 학술연구와 비교적 소박한 글들은 일반적으로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재를 통해 잡지에 실리게 된다. 그리고 1937년 루거우차오 사변(卢沟桥事变)을 통해 일본이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시기 직전과 직후에 발표된 글들이었다. 당시 중일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이성적인 발언이 가능했다.

5 繆凤林 :《日本军阀论》,《史学杂志》(南京),1929年第1卷第2期,p.2

6 白鸥 :《日本军阀与日本政治》,《汗血周刊》1935年第4卷第11期,pp.168-170

(2) 일본 군벌과 다른 파벌, 민중과의 모순을 드러내어 중국 항일 군민에게 용기를

9.18 사건 직후 일부 중국인들은 일본 군벌과 정부 간의 갈등을 분석했다. 일본 군벌들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대외 전쟁을 발동하고 중국 동북을 침략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벌과 당시 일본 정부 간의 오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중국 동북 침략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게 되었다⁷.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놓고 일본 군벌과 정부 사이에 첨예한 모순이 있음을 중국 언론은 보도하기 시작했다. “9.18 이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군벌의 장악 하에 전개됐다.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소장과 군인(少壮军人)들은 날로 기고만장” 해져 도쿄 정부는 이러한 기정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주장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북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상하이 지역 병력 증가는 모두 일신의 영달을 탐착했던 군인들의 소행이었다. 무고한 선량한 민간인들은 징병당하고, 원성이 거리를 메우고 있으며, 군비 지출로 인해 대규모의 파산 위기가 도처에 깔려 있어 일본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 이미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으며, 원로 중신(元老重臣)들은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⁸

중국 언론은 이렇게 일본 군벌과 정부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일본 군벌-민중’이라는 이분법을 일반화시켜 간다. ‘일본 군벌과 인민을 향한 몇 마디’라는 문장에서 위세중(余协中)은 한편으로 중국이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결심을 표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국민에게 침략군의 학살, 방화, 강탈, 강간 등 잔혹한 행위를 폭로하고, 군벌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일본 국민들은 군벌의 지속적인 침략을 최대한 막고”, 중국 인민과 손잡고 일어나 “신속히 일본 군벌을 전복시킬 것”을 염원했다⁹.

(3) 일본 군벌을 향한 경고: 벼랑 끝에서 멈출 것을 촉구하다

중국 언론은 논리를 통해 일본 군벌이 마음을 고쳐 중국 침략을 중단하기를 촉구했다.

왕원성(王芸生)은 일본의 전면적인 대중 침공 직후, ‘일본 군단에게 경고한다’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 일본 군벌이 침략 노선을 바꾸기를 희망했다. 왕은 첫째로, 일본의 흥망성쇠 역사를 되돌아보며, 메이지시대에 이르러서야 군인들이 “충신 애국”의 미덕을 회복하고 국정을 왕실에 돌려줌으로써 “메이지 혁명의 토대를 다졌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 군벌의 노선은 지난 천년 동안의 옛 군벌들의 죄와 악행의 반복이며, “개인의 죄와 국가의 악행은 옛날 막부의 죄보다 더 클 것”이라

7 岩白:《倭军阀侵略东北之动机》,《日本评论》1931年第1期,p.8

8 《日本军阀专横,日本政府内部发生重大裂痕》,《锡报》1937年8月14日,第3版。

9 余协中:《向日本军阀和国民说几句话》,《经世》,1938年战时特刊13,第9期。

는 것이다¹⁰.

두 번째로, 일본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대중 침략은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렬한 투쟁과 함께 강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 체제를 깨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군비 강화의 길로 나설 것” 이라 지적했다. 이어 일본 군벌은 “반드시 외부에서 경멸을 받게 되며, 내부에서는 붕괴와 같은 재앙이 몰려올 것” 으로 전망한다¹¹.

세 번째로, 국제 정세를 볼 때 일본 군벌이 초래한 위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일본 군부가 계속 침략 노선을 고집한다면, “인류 모두가 일본 군벌의 재앙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일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서 왕은 일본 군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군벌이여! 당신들이 기꺼이 조국의 반역자이자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고 싶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라. 당신의 국가와 인류 세계는 당신을 정의롭게 처벌할 것이다. 이성과 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메이지 신궁의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선조들의 역사, 국가와 국민의 이익,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속죄하라!”¹²

중국 언론은 또 외국 유명인의 말을 빌려 일본 군벌의 중국 침략 부당함을 폭로하기도 했다. 1938년 잡지 ‘문적(文摘)’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일본 군벌을 비난하다’ 라는 제목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일본 중국 침략에 대한 견해를 실었다. 타고르는 과거 일본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은 완전히 변했다며 “무방비 상태의 동양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이며, 특히 경제 확장이나 영토 야망보다 더 나쁜 것은 매일 벌어지는 학살과 이 잔인성을 뻔뻔하게 은폐하는 것” 이라고 비판한다¹³.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발언의 맥락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과정에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대중 침략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타고르의 발언 맥락과는 별개로 ‘일본 군벌 규탄’ 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해 침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중국 신문과 출판물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 벅(Pearl S. Buck)이 미국에서 출판한 『일본 군벌의 심리학』에서 무방비 상태의 중국 도시와 민간인을 폭격한 것을 비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펄 벅의 책을 번역 출판했다. 펄은 일본 군벌의 심리를 경멸하고 그들의 행동에 반대하며, “오늘날 일본이 중국에서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입장을 표했다¹⁴.

10 王芸生：《诚日本军阀》，《救亡文辑》第38页，1937年。

11 王芸生：《诚日本军阀》，《救亡文辑》第40页，1937年。

12 王芸生：《诚日本军阀》，《救亡文辑》第40页，1937年。

13 《泰戈尔痛斥日本军阀》，《文摘》1938年第12期，p.299

14 赛珍珠著、蒋学楷译：《日本军阀的心理》，《新文摘旬刊》，1938年第1卷第4期，p.112

(4) 중국 내 일본의 잔학 행위 폭로

중국인들이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주된 목적은 바로 일본이 저지른 다양한 잔학 행위를 폭로하기 위함이었다. 1928년 7월, ‘신보(申報)’는 ‘일본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가 중국 통일을 간섭하고 동북에서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대중 군사력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¹⁵.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 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 선전포고문은 “일본 군벌이 오래 전부터 아시아를 정복하고,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일본 군벌’을 침략 전쟁의 근원으로 보았다¹⁶.

『일본 군벌의 중국에서의 죄악 기록』 또한 일본의 대중 침략을 폭로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글에서는 “파시즘을 떠벌리고 다니는 일본 적병들이 중국에 남긴 피 묻은 낙인은 그들 자신의 피로도 씻어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이 글은 일본군 지배하 중국 경제 파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은 모두 일본에 점령당했다. 이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계는 물론, 농촌 경제에도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나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반식민지에서 완전한 식민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일본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대규모의 살육과 강탈, 미신 조장과 아편 흡입에 대한 장려, 토지 몰수와 곡물, 노동력 징용, 과도한 세금과 노동력 파괴와 같은 정책이 곧바로 그 원흉이었다.”¹⁷ 이러한 침략과 강탈 앞에서 중국인은 일본 침략자에 대한 저항을 굳혀갈 수밖에 없었다.

3. 장제스(蔣介石)의 “일본 군벌” 개념 운용¹⁸

장제스는 ‘군벌’ 개념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의 군벌 담론에서 ‘일본 군벌’은 특별하고 핵심적인 존재였다. 필자가 국민당 출판사가 수집한 장제스 발언집 『선 총통 장공 사상 언론 총집(先总统蒋公思想言论总集, 총 40권)』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보관소에 소장된 『장제스 일기』를 검색해본 결과, ‘군벌’이라는 용어의 출현 빈도는 전면적인 대일 항전기(1937~1945년) 정점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군벌’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일본’과 함께 언급된다. 또 저자가 참고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장제스가 처음으로 ‘일본 군벌’ 개념을 언급한 것은 1928년 5월 “5. 3 참변 기간으로, 그가 처음으로 ‘군벌’ 개념을 사용한 것보다 9년이 지난 후였다¹⁹. 당시 일본군은 국민당의 북벌(北伐)을 방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장제스는 이로 인해 큰 좌절감을 안고 있었다. 그는 “중일 간 원한은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일본 군벌의 해악이 중국 군벌보다

15 《国民政府对日宣战原文》,《党员知识》,1941年第1卷,p.2

16 《国民政府对日宣战原文》,《党员知识》,1941年第1卷,p.2

17 陶泽译:《日本军阀在中国的罪恶记录》,《读者》1945年(无具体日期与期号)

18 笔者曾研究蒋介石对“军阀”概念的认知,成果发表于《军事历史研究》2022年第4期。

19 장이 ‘군벌’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19년 2월, 손중산에게 보낸 “废督裁兵议”이라는 제안서에서였다.

장제스일기 (1928-1945) 에서 ‘군벌’ 과 “일본군벌” 출현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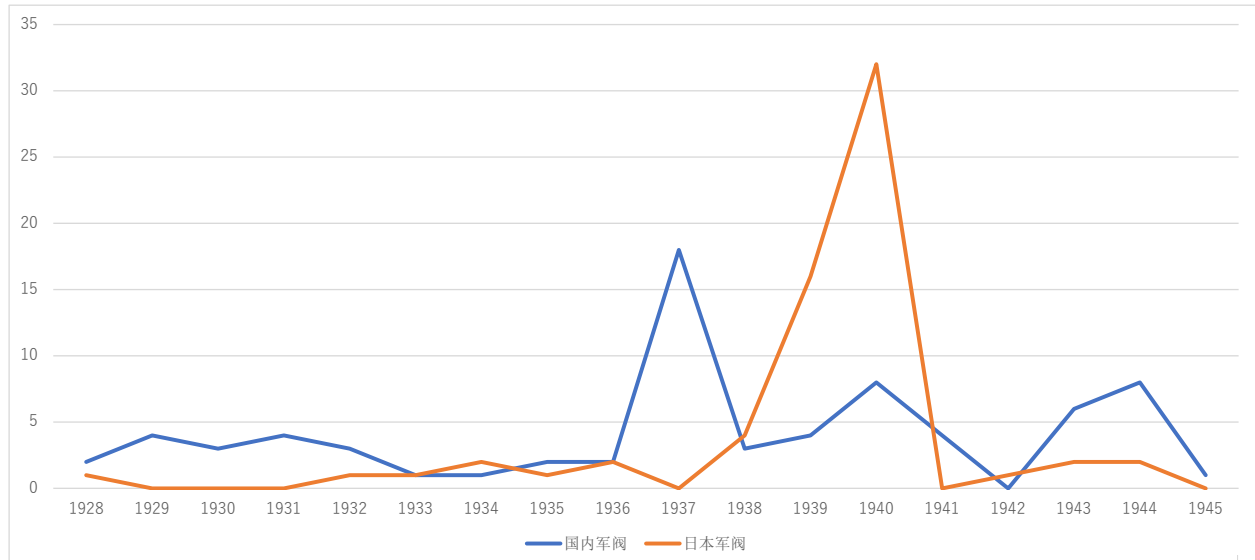


표 3

주: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의 빈도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일벌’(日閥), ‘적벌’(敵閥), ‘왜벌’(倭閥)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더 심각하다”고 탄식했다²⁰.

젊은 시절 장제스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본에서 군사를 공부했고, 일본 군인의 지위와 군사 훈련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침략은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자신의 통치 체제를 위협했다. 이에 장제스는 일본 군부가 내정을 간섭하고 대외 침략을 감행했다는 현실과 ‘군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의미를 살려, 일본 군부 세력과 일본 침략군을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서 ‘일본 군벌’을 사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제스가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를 가장 자주 사용한 1938~1940년은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독립적으로 싸웠던 시기였다. 이 시절 국민당 정부는 가장 풍요로운 동부 지역을 잃고 서남부로 후퇴하는 등 힘든 항전기를 겪고 있었다. 장제스는 적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항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으로 자신의 일기에서는 일본군에 대한 저주와 욕설을 적으며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하며 중국 언론이 ‘일본 군벌’을 사용했던 상황과 일치함을 보인다.

장제스는 군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본 군벌을 비난하는 선전을 강화하며 전쟁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켰다. 9. 18 사변 이후, 장은 연설에서 “일본의 동북 3성 점령은 동아시아 평화를 침해했고, 일본 군벌은 스스로를 세계와 단절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²¹. 또 “중국 군대와 인민은 일본 군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동아 공동 번영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시아를 합병하고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실천하는 일본 군벌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근절해야 할 공공

20 《蒋介石日记》(手稿本), 1928年5月12日。

21 蒋介石:《拥护公理抗御强权》(1931年10月12日),《思想言论总集》卷10, p.472

의 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²². 이렇듯 군벌은 당시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였고 필패의 이미지와 연동되어 있었다. 장제스는 ‘일본 군벌’을 활용한 선전을 확충해감으로써 ‘국내 군벌’ (역자 주: 국민당 계열 군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본 침략자에 돌리게 한 것이다.

‘일본 군벌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은 장제스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기본 논리였다. 장제스가 보기에 일본 군벌과 민중의 관계는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였으며, 침략을 옹호하는 군벌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일본 민중에 의해 타도될 존재라 여겨졌다. 장제스는 “(일본의) 일반 국민의 군벌 혐오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²³. 또 일본 침략군 대부분이 군벌들에게 억압당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일반 일본 포로들에 대한 진심 어린 교화 교육을 통해 조국의 군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⁴. 장은 일본 국민과 군벌 사이의 대립 관계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일본 정치 무대에 ‘문무대립(文武対立)’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설파하며 문관(文官)도 군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본 내 문무 양파(文武兩派) 사이의 승패는 누가 군벌을 통제하고 고립시켜 폭주를 제지시키는 여부에 달린 것이다.”²⁵ 장제스는 또 일본 군벌 내부에도 파벌간 투쟁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요나이 미츠마사(米内光政)가 내각을 구성한 후 장제스는 “육군과 해군은 반드시 암투를 벌일 것이며, 신규 세력이 점점 충돌하여 제국 내부에서 붕괴를 자초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군벌이 민중의 반대와 내외부의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을 견지하고 일본 군벌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필수적인 선택이었다²⁶.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은 장제스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의 목표는 일본 국민들이 일어나 군벌을 전복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었다. 1938년, 장제스는 항일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은 일본 군벌에만 반격한다”는 제목으로 “일본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 문장에서 처음으로 중일 양국이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일본 군벌은 중국침략전쟁을 일으켜 학살과 강간을 일삼는 가운데 중국 국민들에게 큰 재앙을 끼치고, 일본 국민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거대한 군비 지출에 더해, 젊은 병사들은 전장의 귀신이 되고, 젊은 아내들은 과부가 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일본 군벌의 광란에 있으며, 중국의 저항 전쟁은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일본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또 장제스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중국의 저항 전쟁은 자기 방어와 생존을 위한 것이자, 중일 양국 국민들의 미래와 영구한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일본의 폭력 군부는 중국의 적이자,

22 蒋介石：《对于国民参政员的期望》（1942年10月31日），《思想言论总集》卷19，p.354

23 《蒋介石日记》（手稿本），1933年3月17日。

24 蒋介石：《今日教育与体育应注重之要点》（1940年10月13日），《思想言论总集》卷17，p.48

25 《蒋介石日记》（手稿本），1934年11月27日。

26 蒋介石：《抗战建国三周年纪念告美国民众书》（1940年7月8日），《思想言论总集》卷31，p.188

일본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다. 중국은 저항 전쟁 이래로 일본의 군벌만을 적으로 여겼으며, 일본 국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중략) 제군들은 양국의 안위를 깊이 이해하고 단결하며, 폭력 군부의 일체 행위를 반대하기를 바란다. 일본 국민들이 정의로운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이 침략 정책에서 철수하고 평화 질서를 회복하며, 중일 양국의 친목을 실현해감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를 이룩하기를 바란다.”²⁷

1년 후, 장제스는 또 1만 6000자 분량의 ‘항전 및 건국 2주년 기념 일본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발표한다. 이 편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군벌의 기만적인 선전을 폭로한다”, “동아시아 민족을 노예화한 일본 군벌의 죄악을 선포한다”, “중국 항전이 반드시 승리하고 건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한다”, “결론” 등 구성을 통해 일본 군벌의 여러 가지 악행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장은 글의 마지막에서 전년에 언급했던 기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민중들이 깨어나 단결하고, 또 정의의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일본 군부의 만행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⁸

그리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외 원조를 요청하는 국제 선전에서, 장제스는 ‘일본 군벌’ 개념을 활용하여 일본 침략에 대한 혐오와 중국 저항전에 대한 동정 및 지원 열망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여기서 장은 침략적 야심을 품은 일본 군벌은 곧 각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군벌의 중국 침략은 세계 침략의 첫 발걸음이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손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세계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침략을 하루라도 빨리 저지 못한다면 극동과 세계 평화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²⁹

중일 양국 국민들은 대체로 ‘군벌’ 개념의 부정적 의미, 즉 나라와 민중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임을 받아들였다. 장제스는 ‘군벌’이라는 용어를 통해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부를 정의했다. 또한 대일 선전 과정에서도 ‘군벌’에 반대하는 기치를 내세우며 국내와 같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군부 세력은 장제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게 붕괴되지 않았고, 일본 국민들은 장제스의 선전에 호응하여 ‘군벌’에 반대하는 혁명을 자발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 단 ‘일본 군벌’ 개념을 국내외 선전에 활용하려 했던 장제스의 전략과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다.

4. 손중산, 마오쩌둥의 ‘일본 군벌’ 개념 운용

일본은 손중산의 혁명 생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이끈 중국 동맹회는 일본에서 설립되어 활동하며 많은 일본인 동지와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송경령과의 결혼식도 일본에서 올렸다. 손중산 통치 시절 중일 관계는 긴장

27 蒋介石：《中国只向日本军阀打击——抗战建国纪念日告日本国民书》（1938年7月7日），《时事月报》1938年第19卷第1期，p.11

28 蒋介石：《抗战建国二周年纪念告日本民众书》（1939年7月7日），《思想言论总集》卷31，pp.77-101

29 蒋介石：《蒋委员长告世界友邦书》，《申报》1938年7月7日，제2면.

측면은 있었지만 결코 단절되지는 않았다.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낼 때마다, 손중산은 중일 우애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군인들의 침략 욕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우연히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다.

손중산의 생일을 기념하여 푸윈(佛云)이 1940년 11월에 발표한 ‘총리가 일본 군벌을 논함’이라는 글은, 손중산의 기존 글에서 ‘일본 군벌’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손중산이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당의 우환은 일본의 군벌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쓴 부분이다. 또 하나는 손중산의 ‘실업 계획(实业计划)’이다. 이 문장에서 “일본은 매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터운 보상을 얻어왔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각성하고 있고,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정책을 드러내려면 중국인들도 반드시 저항에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 군벌을 언급하고 있다³⁰.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도 “일본 군벌을 물리치는 것이 총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다. 또한 문장을 빌어 혁명 정신을 고취하고 일본 군벌을 물리치는 것이 손중산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중공 지도자 마오쩌둥도 적게나마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인민출판사에서 1991년에 출간된 『마오쩌둥선집』(총 4권)을 검색해 보면, 1949년 10월 이전에 발표된 총 5편의 글에서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9회 언급한다. 1938년 5월에 발표한 ‘항일유격전의 전략문제(抗日游击战争的战略问题)’에서 두 번, 같은 달에 발표한 ‘지구전을 논함(论持久战)’에서 두 번, 1939년 9월의 ‘소련이익과 인류이익의 일치(苏联利益和人类利益的一致)’에서 한 번, 1944년 4월 ‘학습과 시국(学习和时局)’에서 세 번 사용했으며, 마지막으로 항일전쟁이 끝난 후 1946년 8월 발표한 ‘미국기자 애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대화(和美国记者安娜·路易斯·特朗的谈话)’에서 한 번 사용한다. 그 외에도 1949년 1월 ‘국민당반동정부가 일본침략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와 국민당 전범을 재체포 하는 데 관한 중공 대변인의 명령 및 담화(中共发言人关于命令国民党反动政府重新逮捕前日本侵华军总司令冈村宁次和逮捕国民党内战罪犯的谈话)’에서도 “일본 파시스트 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일본 군벌”을 사용했던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주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주로 병력 부족 그리고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일본 군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지휘 측면에서 많은 실수도 발생했다. 가령, 점진적인 병력 확충, 전략적 협력 부족, 특정 시기의 주공 방향(主攻方向) 부재 등이다. 그리고 일부 작전에서 타이밍을 놓쳐 포위 상황에서도 상대 병력을 전멸시키지 못했던 것이 세 번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군벌은 병력 부족(小国寡民, 자원 부족 및 봉건적 제국주의 특성

30 佛云：《总理论日本军阀》，《胜利》1940年第31期（第104号），1940年11月9日。문장에서는 白浪滔天로 되어있는데, 정확히는 宮崎滔天(미야자키 도텐)이다.

등), 타국에서의 작전(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야만성 등), 지휘의 서투름으로 인해 공격전과 외선작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주도권을 상실해 갔다.”³¹

마오쩌둥은 자신의 문장에서 대중 침략을 감행한 일본 기관, 군대 및 장교를 지칭할 때, ‘일본 군벌’ 외에도 다양한 단어를 사용했다. 가령, 일본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자, 일본파시스트, 일본침략군, 일본침략자와 같은 단어들이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침략자’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언급된다. 또 주목할 점은 시기에 따라 마오쩌둥의 단어 선택도 달랐다는 것이다. 1935년 12월에 발표한 ‘반일본제국주의 전략을 논함’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23회, ‘일본제국주의자’를 6회 사용했다. 그러나 10년 후, 1945년 항일전쟁 승리 직전에 발표한 ‘연합정부론’에서는 ‘일본침략자’를 75회 언급한 반면, ‘일본제국주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이 중국 인민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국 인민들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경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온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1945년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무장을 해체한 후에도 중국 인민들은 여전히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위에서 언급한 표 1 통계를 보면, 중국 언론에서 발표된 기사 중 제목에 ‘일본 군벌’이란 단어를 포함함 기사가 1946년에는 19건, 1947년 11건, 1948년 16건, 1949년 2건으로 검색된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로, 일본 군벌의 침략 책임을 추궁하고 그 죄행을 폭로하는 것. 가령, ‘일본 군벌이 저지른 죄악’ (‘신문보(新闻报)’, 1945년 12월 19일)과 ‘중국을 노예화 한 일본 군벌’ (중경 ‘익세보(益世报)’, 중경판, 1946년 8월 21일) 등과 같은 기사다. 둘째로, 일본 군벌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 예를 들어, ‘일본 군벌의 종말: 또 한 무리의 일본 전범들이 투옥’ (‘강소민보(江苏民报)’, 1945년 12월 4일)와 ‘무력 남용 일본 군벌 청산 기소장 어제 정식 제출’ (‘전선일보(前线日报)’, 1946년 4월 30일) 등이다. 셋째는 일본 군벌 부활을 막는 것. 가령 ‘일본 군벌 부활 예방’ (중경 ‘중양일보’, 1945년 9월 3일)과 ‘구 일본 군벌 재기 시도’ (‘중양일보’, 1947년 10월 23일)와 같은 기사들이다.

31 《毛泽东选集》(第二卷), pp.410-411, 北京:人民出版社1991年版。

【토론·질의응답】 제4세션

패널리스트 토론 및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사회: 송 지용 (난카이대)

발언: 천 홍민 (저장대)
 (발언순) 탕 샤오빙 (화둥사범대)
 야스오카 겐이치 (오사카대)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김 호 (서울대)
 양 지혜 (동북아역사재단)

논점정리: 류 지에 (와세다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언(일본어), 홍용일(중국어)]



송 지용 이제 토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리언민 교수님이 이미 몇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므로, 저는 그 규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같은 규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천홍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천 홍민 두 젊은 학자분 발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도 두 분의 논문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양지혜 선생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양지혜 선생님 논문은 매우 참신합니다. 특히 식민지 역사 연구와 환경을 결합한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연구할 때, 경제적 유산, 문화적 유산, 또는 교육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양 선생님은 환경 유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을 파괴했으며, 본국에서 반대한 산업을 식민지로 옮겨와 환경을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문은 여러 예시를 들어 매우 적절하게 논리적이고, 식민주의에 대한 깊은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 선생님이 환경 문제가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점에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초기 문제가 아

나라 발전 중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논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단계적인 발전, 혹은 국가 내 지역별 단계적 발전,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이전 문제, 산업 지역 분업 등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본은 본래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지 환경을 파괴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겹칩니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들은 보통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환영받았고, 발전한 후에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식민지 국가에서는 보통 식민지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을 식민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이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산업과 결합됩니다.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지를 점령한 것은 산업의 분업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후 ‘산업 일본, 농업 대만’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식민지 지배자가 산업 분업을 실현한 것은 내부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곧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식민지가 없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오염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지 정부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민주의와 외국 자본의 강력한 개입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자본가나 관리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 산업을 강력히 발전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는 식민주의 문제가 아닌, 해당 국가의 자본가들이 스스로 취한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식민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환경 문제를 식민지나 식민지 지배자의 결과로만 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 분업이나 자본의 이익 추구로 인한 결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문에서 매우 일관되게 논의되었지만, 더 넓은 영역에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 안일 뿐 질문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송 지용 천 선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탕 샤오빙 저는 야스오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개인사(중국에서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으로 불림)라는 역사 기술 형식의 추진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스오카 교수님이 언급한 것은 역사의 대중화와 소비화 문제인데, 저는 일본에서의 역사 대중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역사 기술이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혹은 기술 대상으로 더 집중하는지, 또 역사학자가 쓴 작품이 어떻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역사학의 대중화와 상품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역사학 저작이 반드시 진정한 전문 역사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은 아니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역사 기술로 유명한 젊은 소설가 마보용과 같은 작가도 있습니다. 마보용은 중국 고대사에 관한 많은 역사 작품을 썼는데, 예를 들어 『장안십이시(长安十二时辰)』와 같은 작품은 매우 인기가 있고 역사 드라마로도 각색되었습니다. 마보용은 또 당나라 역사와 명청사 전문가의 저작을 매우 진지하게 흡수합니다. 많은 전문 역사학 저작을 읽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통속적인 역사 기술로 풀어냅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작가 그룹이 있는지, 즉 대학에서 가르치는 역사학자의 전문 작품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통속적인 역사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동시에 일정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대중 역사학의 작품을 제공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야스오카 교수님이 언급한 ‘나의 역사’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 인식에서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도 중국 대륙에서 매우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많은 서민의 역사, 정치가나 경제 엘리트, 지식인의 역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이상주의적 통로가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나’와 ‘그들’의 역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내에서조차 과거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조정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역사’에서 ‘우리의 역사’로 나아갈 때 서로 겹치는 공통점을 찾고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공공 역사학과 대중 역사학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이것이 야스오카 교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또 저장대학 천홍민 교수님께서 ‘일본 군벌’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천 교수님은 장제스 연구의 중요한 전문가이시며, ‘일본 군벌’ 문제에 대한 접근이 특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천 교수님은 일본 내에서 군벌과 일반 국민 사이를 구분하려는 시도, 또 군벌과 소장파 군관에 대한 이러한 구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정 부족, 그리고 많은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제 관심사는 중화민국기에도 ‘일본통’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따이지타오(戴季陶), 장바이리(蔣百里), 왕이썩(王芸生), 장지란(張季鸞), 장제스 본인은 물론이고, 왕징웨이(汪精衛)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일본 사회와 문화 정신을 포함하여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고, 오늘날 중국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당시 국민정부 고위 관리였음에도 왜 장제스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송 지용 탕 선생님 감사합니다. 탕 선생님의 질문이 다소 많은 관계로 먼저 야스오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오카 겐이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뒷분 질문부터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대답하는 개인의 역사 기억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역사 전문가, 장기적이고

구조적 파악에 힘써온 역사학자라면 조정할 수 있고, 개입해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일지라도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기록화해, 그것을 사료로 훗날 역사가에게 이어가는 것도 지금 역사학자들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학자가 사료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규칙이 바뀌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료가 어떻게 남을지,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단지 남은 사료를 수동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 자체에 공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 그것을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누군가를 대변해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 기록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우선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문학작품과의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역사 소설이 탄생했고,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등에서도 일중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모티브로 다뤄지지만, 역사문학에서 다뤄지지 않는 역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학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속에 어떻게 과거가 있는지도 포함해, 넓은 의미의 역사를 둘러싸고 역사학자가 여러 분야의 표현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역사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다른 분께 돌려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시바 료타로에 대해 쓰신 후쿠마 선생님께서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송 지용 그러면 후쿠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후쿠마 요시아키 먼저 일본의 경우 시바 료타로라는 작가의 일러전쟁이나 에도시대 말기 유신을 그린 작품 등이 널리 읽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연령적으로는 전쟁 세대(戰中世代)로 전쟁 체험이 있고 많은 사료를 보는 사람이긴 했지만, 역사학 절차에서 보면 다른 점이 있기도 해 역사학으로부터의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딱히 시바 자신이 반드시 가해 책임 문제를 간과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식민지 문제에 대한 기술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 받았 습니다.

다만 왜 시바가 읽혔는지를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양주의적인 것 가운데 하나의 변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이 가장 많이 읽힌 건 문고화된 197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이 시기부터 더 많은 독자를 획득해 갔습니다. 중년 샐러리맨들에게 많이 읽혔지만, 조금 변질된 교양주의라는 것은, 젊은 시절 교양주의를 접했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서 새롭게 역사적인 것들을 접하려는 측면과 함께, 노동의식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한 회사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영업이나 경리, 공장 같이 여러 일을 하면서 한 회사 안에서 직책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경로 모델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를 배우면서 인격을 연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리 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보다 여러 일을 섭렵하면서 리더로서의

인격을 고양해 가는 교양주의 아종 같은 흐름과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 지용 후쿠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야스오카 교수님께서 한 질문을 후쿠마 교수님께 넘기셨기에, 제 특권을 이용해 야스오카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서 한 질문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야스오카 교수님께서 이로카와 다이키치를 대표 인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로카와 다이키치 선생님은 재작년 별세하셨고, 이 소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본사 학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중국의 일본사 학계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로카와 선생님이 1960~70년대 대중사와 개인사를 주장하셨을 때,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인사와 대중사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어떤 관계에 있었나요? 대중사 연구가 1960~70년대에 고조된 후, 1980~90년대 잠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사와 개인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 사람들의 대중사와 개인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또한 대중사와 개인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야스오카 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야스오카 겐이치 물론 1960년대 이래 이른바 민중사, 민중사상사라고도 불리는 이로카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창한 연구학문이 학문의 본질을 바꾸어 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대마다 변천이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조금 전 양 선생님 말씀에서 1945년 이전의 운동사 연구가 활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사회 운동사 연구 등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나뉘어집니다. 어느 시기에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다가 한동안 연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격차 사회라는 것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연구자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문 역사의 변화로 다시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학문의 역사 자체가 아니라 학문 외부에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이로카와는 그 점점이랄까, 학문과 사람들 사이 경계 같은 장소를 오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관한 학문 연구는 이른바 ‘에고 도큐먼트(ego document)’ 연구와 같은 형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지만, 역시 아마추어가 쓴 역사, 보통 시민이 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논의가 적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은 이로카와 자신도 자세히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제기를 새롭게 했고, 역사가 개인의 손으로 쓰여지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개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김 호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지만 야스오카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역사학자 줄리어스 스콧(Julius Sherrod Scott III)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카리브 노예들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더 커먼 윈드(The Common Wind)’ 인데, 카리브해에 있던 수많은 노예들의 이야기를, 스콧이라는 역사학자는 수많은 신문과 고문서를 찾아서 그들을 그냥 ‘슬레이브(slave)’ 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복원시켜주는, 그래서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제공한 역사학자로 굉장히 이름을 높입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사후 굉장히 훌륭한 역사가의 전범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역사가가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또 역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쓸 것인가, 헤겔이 말한 것처럼 국가가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국민국가의 상상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제되었지만 오늘날 특히 역사를 쓰고 싶어 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역사, ‘지분시(自分史)’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반대로 그 밑바닥에는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담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역시 줄리어스 스콧과 같은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거쳐서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많은 민중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쓰도록 할 것인가. 여기서 또 인도의 역사학자 구하(Ranajit Guha)가 제기한,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서발턴에게 어떻게 역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본의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서로 갖고 다름을 견주어보면서 새로운 역사학의 동향을 만들어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야스오카 선생님은 야심찬 젊은 학자로 그런 부분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기획이나 생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야스오카 겐이치

감사합니다. 분명히 역사 없는 사람들, people without history, 이런 분들은 항상 역사학자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계속 생각해 온 논의에 영향을 받아 저 스스로도 실증 연구라 할지, 어떻게 하면 자료 속에서 그러한 존재를 밝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형태로 연구 외부에 주목하려고 생각한 것은, 제 자신의 경험도 영향을 줬습니다. 처음 전쟁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러 가면 “5년만 더 빨랐으면”, “10년만 더 빨랐으면”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모두 이미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겨줬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는 것, 스스로가 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금 사회의 저희들에게 그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는 시대에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요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창조되는 자기자신의 스토리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술사를 거둬해 가는 가운데, 듣는 측의 한계라고 해야 할지, 듣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묻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묻는 사람의 희망과 말하고 싶은 사람의 희망이 맞물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쓰고 싶은 것, 자신이 진정 남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쓸 때 돕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선생님이 꼽아 주신 ‘이야기되지 않는 노예의 역사’ 나, 그 중요성이 나중에 발견되어 간 역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록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을 떠받치는 것이 하나의 인문학,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영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대학에서 몇 명의 신입생을 상대로 자신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 일본 학생,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사이, 자신이 짊어지고 온 다양한 역사의 공통점, 차이를 말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도 역사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준 학생도 몇 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중요성이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사교육의 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 지혜 제가 잠깐 앞서서 천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중 3 제 질문에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가 ‘식민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돼야 되는가’ 인데, 쓰신 환경 관련보다 마지막 14번 각주를 보면 “‘반일 종족주의’ 출간 이후 본격화된 역사 부정론의 강화 등으로 인해 현실 정치와 학문이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고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등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오데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 거기서도 2021년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 위안부가 적절한 용어로 채택되고, 강제 노동이 아닌 징용으로 표기를 하게 됐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2022년 ‘역사종합’ 은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어쩔든 인식을 해서 바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 학교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똑같이 서술돼 있다면 오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양지혜 선생님은 일본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국이 주장하는 것과 국내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송 지용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세션은 곧 종료되지만, 양 선생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면, 우리는 내일 토론할 때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양 선생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 지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식민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를 모두 식민성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관련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폐광 지역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운동이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개발을 앞세우는 모습을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개발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 복잡성을 보여주는 매우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통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또는 유일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민성과 개발의 단계성에 대해서는 분명 매우 예민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지역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자료로 보다 보면, 국가적 스케일에서 바라보는 경제발전 정도라고 하는 ‘개발의 평균율’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시기 특정 지역,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이나 만주 지역에서는 매우 고도의 경제 개발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주 주목할 만한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이때 개발에 따른 고통은 매우 독자적이고 특수한 방식으로 각 지역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국가적인 평균율, 예를 들면 GDP나 GNP와 같은 지표들로 치환해서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 독자적인 고통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내일 토론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식민 지배를 이야기할 때, 환경이나 생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른 어떤 주제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나 역사부정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도 정말 많죠.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고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가장 근간의 생각, 즉 ‘발전’이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학계에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얼마나 다루어졌는가에 대해 조금은 고민이 듭니다. 이제는 ‘발전’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논의가 또 다시 후순위로 미루어진다면, 경제발전을 지상명제로 삼고 있는 역사부정론에 대한 논의 역시, 결국 지금과 같은 수준의 논의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지용 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일 토론 시간에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양 선생님

도 준비를 잘 해서 내일 더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연구’ 세션이 방금 전 ‘교육’ 세션과 ‘미디어’ 세션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 세기의 전쟁 · 식민 통치와 화해의 역사 서술’이라는 주제에 더 많은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세션을 마칩니다. 이제 논점 정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지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논점정리

류 지에

오늘은 발표자 선생님들로부터 매우 귀중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 역할은 논점 정리라 되어 있는데, 모든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내일 논의 전 미타니 선생님께서 논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논의의 총괄로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20세기 전쟁,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인데, 오늘 논의를 생각하면 20세기 전쟁 이야기를 전후에 연구 혹은 논의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세 나라는 역사상(像)의 재구축 과정을 경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역사가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지입니다. 각국 정치나 사회 혹은 역사의 맥락은 다르기 때문에 전후 새롭게 20세기 역사상을 만들 때 각 나라에 다른 역사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해방부터입니다. 그리고 냉전을 거쳐 민주화를 달성하는 사회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탈식민지 과제로부터 시작해 냉전하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역사상이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달점으로서 현재는 ‘동아시아사’라는 사고의 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물론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성장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대사의 역사상을 재구축한다는 한국의 맥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어떻게 전후 역사를 재구축해 오고 있는가인데, 저는 특히 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이른바 ‘주류 역사상에 대한 도전’이라는 형태로 새 역사상을 만들려는 지식계급(이라고 중국에서는 말합니다)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강연을 하신 천홍민 선생님이 이른바 ‘민국사관’을 내세운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혁명사관’이나 ‘근대화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는 가운데, 천 선생님은 ‘민국사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중화민국 역사를 재구축하는 가운데, 전후 중국의 새로운 역사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리드해 온 것이 바로 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개인일기 출판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주류 역사관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도전하는 듯한 움직임으로서, 즉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역

사, 그 사이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국가 중심 역사관으로만 이야기되어 온 근대 역사상을 수정하는 노력은 바로 중국에서의 개인사, 개인의 일기 같은 것의 출판을 통해 탐구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자에 대한 이해’도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명확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이해의 본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일찍이 있을 수 없는 대담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타자에 대한 이해가 타자에 대한 찬동, 승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역사상의 제시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과 망각의 경쟁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해, 이 역사상은 조금 전 시오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통해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는 역시 ‘가해와 피해의 역사관 역전’이라 할까요, 이는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의, 혹은 사회 전체의 역사상의 변화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근린제국(近隣諸国)’ 조항이 80년대에 나오는데, 이 자체도 역시 역사관이나 혹은 가해 피해 이야기와 별개로 근린제국에 대한 배려 속에서 가능한 역사상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이웃 나라들과 여러 번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논쟁 속에서 생긴 새로운 시대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기사나 자서전을 통해 국가의 역사상과 다른 역사상을 모색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나라는 전후 70년에 걸쳐 각자의 역사상을 계속 모색해 온 셈입니다. 그 모색 과정이 물론 종착점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로는 국가 간 역사인식과 새롭게 구축하자는 역사상, 그 사이 거리를 어떻게 좁히면 좋을지가 문제로 등장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역사상을 재구축하는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중국 이야기로 말하면 중국의 장래는, 지금 주류 역사관에 대한 도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온 이 역사상을 그대로 확대해 갈 것인가, 지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되돌아 갈 것인가. 이는 역사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의 재구축’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굳이 ‘신사학(新史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 일본에서는 ‘역사총합’이라는 형태로 아까 몇몇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적한 ‘민주화’라는 개념입니다. 민주화에 의해 달성되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것 역시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거론됐듯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역사’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이를 2~3년 사용한 후 중지되었다 하는데, 이는 바로 ‘역사총합’이나 ‘동아시아사’ 같은 흐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중단해 버렸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새로운 역사학, 신사학을 어떻게 이 지역의 공통된 것으로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혹은 애초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많은 것들은 아마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열

해보면 하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 그리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 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입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역사가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해’ 이야기인데요, 타자에 대한 이해는 바로 ‘동아시아의 화해’ 로 이어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제 만찬회에서 미타니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를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 이 쌍방이 없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역사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가운데, 어떻게 타자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는 역사가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와 역사의 관계’ , 이는 중국 역사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지만, 중국뿐만은 아닙니다. 아마 모든 역사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역사의 문제입니다. 혹은 애초 역사학, 역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에서도 있었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은 역사가 가진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이 역사 대화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애초 중국의 역사가 만약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다르다면, 이 역사대로 대화를 계속하고 거기서 합의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역사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역사가의 일인데 ‘자료의 문제’ 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역사가는 자료를 찾아 읽고 역사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자료를 어느 정도 자기 손으로 만들고 말하게 하고, 쓰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대 역사의 형태, 이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모두 신사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량치차오가 제창한 신사학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신사학 내용은 바뀌고, 그래서 이 신사학을 아시아의 세 나라 역사가들이 어떻게 추구하면 좋을지가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신사학을 함께 추구하면서, 역사 속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 새로운 역사, 화해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문제 의식에 입각해 오늘 논의를 조금 감상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통역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제5세션 지정토론/전체토의

사회: 정 순일 (고려대)

지정토론자 : 김 헌주 (국립한밭대)
(발언순)

위안 칭평 (중국미디어대)

논의를 시작하며 :

요시이 후미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시 보공 (중국미디어대)



정 순일 안녕하세요, 저는 제5 세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쿄대 명예교수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서 ‘논의를 시작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미타니 선생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 논의를 시작하며

미타니 히로시 안녕하세요. 먼저 한 마디 하라고 하셔서, 사족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교육’, ‘미디어’, ‘연구’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극히 창조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당 부분이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퍼블릭과 과거의 세계를 연결시킬 것인가’ 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회의 취지인 ‘국경을 넘는 역사대화 추진’ 에 걸맞은 제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전하는 단서는 사료입니다. ‘현재’ 에 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럼 우리가 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대부분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찾아 그 안에서 정보를 꺼내는 작업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학의 기본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만드는 것은 민중사를 가시적으로 하는 데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것’에서 정보를 꺼내는데, 그 경우 원하는 사료를 입수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은 아카데미즘 사학을 배우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료를 근거로 하지 않는 해석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과학에 가까운 엄격한 ‘팩트 체크’가 부과됩니다. 사료 제시와 그 신빙성의 상세한 검증, 즉 ‘사료비판’이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근본입니다.

어제는 기억의 생성·관리가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기억은 어디까지 신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야구를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졌습니다. 30년 정도 후 팀 동료와 회상록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원고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겼는데 막판에 역전당해서 졌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은 당시 스코어북이 남아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심쩍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지극히 고전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사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즘 원칙을 정말 충실히 따르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있어야 할 사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메이지 유신 연구자인데, 메이지 유신으로 일어난 최대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세습 신분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에도시대를 지배한 사무라이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계급혁명입니다.

그런데 세습 신분제를 부수고 싶었다고 말해주는 사료가 없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르고 차별받고 있다. 이는 정의에 어긋난다. 힘을 합쳐 신분제를 쳐부수자.” 이런 호소를 하는 사료를 우리는 찾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지만, 어쨌든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커다란 변화 배후에, 신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축적되어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와 시부사와 에이이치 같은 사람들이 그런 회상록을 썼지만, 에도 막부 말기 동시대 사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이 없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즘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사가 어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유력한 자료로는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민중사 연구에서는 종종 민사재판 기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송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민중의 모습은 매우 적나라하고, 이해와 입장의 충돌, 그 배후에 있는 사회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근대 민사재판 기록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도시대 민중에 대해서는 자세한 재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민중의 삶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대보다 먼 시대가 더 알기 쉬운 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료가 없어진 것이 연구상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

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해줘야 할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료 없이 제멋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또한 건전한 일이 아닙니다. 문학자나 평론가는 이러한 제멋대로인 역사를, 예를 들면 일본에 관해 많이 쓰고, 또 YouTube 등에서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우리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역사학은 문학이나 평론과 다릅니다. 아카데미즘 사학은 ‘팩트 체크’의 좋은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학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학자이고자 하는 한 근거지인 사료비판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계 영역에 대해 여러분 각각의 전문에 입각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되는 토론은 어제 이상으로 다양한 논점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없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가는 남에게 배우고 지혜를 빌리는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른 분 발언에 귀를 기울여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체토론

정 순일 미타니 선생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5세션 지정토론 및 논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논의에 앞서 제 이야기를 두 가지만 간단히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회의장이 와세다대 건물이다 보니 유학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유학 시절 아침마다 NHK ‘오하요 닛폰’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평하오 선생님과 일찍 만나기로 해 우연히 7시 정도에 일어났더니 NHK에서 ‘오하요 닛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8월 9일이,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부터 78년이라는 얘기가 마침 뉴스에서 흘러나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주제로 하는 국사들의 대화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학 시절 생각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와세다대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아쓰미재단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고 비교적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아르바이트를 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유익했던 아르바이트로 기억되는 것은 통역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자신감에 넘쳐서 한일 통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순차 통역이었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역해 주신 통역사분들이 계실 텐데 하물며 동시 통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토론하실 때 항상 통역을 의식하고 발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국에서는 모두 권위자이고 일인자일지 몰라도, 국제 학술회의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외국어로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이야기를 발신

해 주는 것은 통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렷하고 천천히’ 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선생님들의 연구 내용과 생각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정 토론자분께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당 7분 정도 코멘트를 부탁드렸습니다. 코멘트는 또 하나의 발표가 아니라, 어제 발표가 됐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방식의 소감이나 질문의 형식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 어떤 발표자에게 답변을 원하는가, 어떤 발표자에게 의견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응답에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 선생님이 일곱 분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5 세션에서는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 합니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한말대 김현주 선생님, 시보공 선생님, 요시이 후미 선생님, 그리고 위안칭평 선생님 순서대로, 네 분에게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현주 선생님께 먼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주

한중일 3국 국사 연구자들의 대화라는 기획에 맞게 각국 맥락이 잘 드러난 발표 잘 봤습니다. 저는 한국사 연구자로서 중국사, 일본사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이번 발표문을 보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의 감상과 질문,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논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중일 3국의 20세기 역사가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피해자 서사’ 입니다. 빅티무드 내러티브(victimhood narrative)가 되겠죠. 이 피해자 서사를 각기 다른 맥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서사의 극복이 동아시아 역사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 발표를 통해 전후 일본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 권력에 의해 전쟁이 강요당했다는 관점을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인들의 피해자 의식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중요한 주제인 듯합니다. 후쿠마 요시아키 선생님 글에서도 전후 젊은 세대가 전중파 세대의 피해자 의식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종합하면 전후 일본인들의 피해자 의식 혹은 피해자 서사는 분명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2013년 개봉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인 전투기 설계사의 삶을 조금 낭만적으로 그려냈는데, 한국 내에서는 제국 일본의 역사적 가해에 대한 맥락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친일 영화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떠나, 전쟁의 기억이 일본인들의 전쟁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이번 발표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린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일본인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결국 피해자 서사에 기반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서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등장합니다. 일본의 피해자 서사가 한국의 역사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작용이라면, 한국의 경우도 피해자 서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최근 판결로 나와서, 한국 역시 일본과의 역사적 상황과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가해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의 기억은 아직도 공식 서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안타까운 군인들께서는 스스로를 또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일본인의 피해 서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일본은 식민 지배라는 가해보다는 미국에게 입은 피해를 좀 더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식민 지배 피해를 명백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베트남에 대한 가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강고하게 존재하는 한, 어떤 역사적 경험이 있더라도 피해자 서사는 강고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책임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호주국립대학에 재직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민 지배 책임에서 가해국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식민 지배 책임에 연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현대 일본의 눈부신 성장에는 20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 지배의 몫이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역사적 가해의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과 무게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경험을 굳이 가져온 것은 양국 역사 교육과 미디어 등이 모두 피해자 서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자 서사를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임지현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피해자 서사의 연쇄 속에서 책임과 성찰은 늘 뒤로 밀리지 않는가 합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 서사의 극복이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총합’이라는 방식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발표문의 내용만 보면 이것이 역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에 대해 가와이 미키오(河合幹雄)라는 연구자는, 세계사와 일본사 통합 파트에 대해 세계사 속에 일본사 부분을 넣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예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학자인 서현주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총합’ 위안부 서술 부분을 보면 각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부분에서 강제동원 관련 서술은 ‘역사총합’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위안부 부분은 서술의 내용과 양 측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종합’을 통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발전을 했고, 또 많은 중요한 시도가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해 서사에 대한 극복과, 가해에 대한 연루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종합’이 종합이 아니라 ‘붕합’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역사종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논의들이 ‘역사종합’에 반영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후쿠마 선생님이 1980년대 이전 일본 미디어 문화에서 보이는 가해의 구조적 성찰이라는 질문을 끄집어내신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가해와 현장이라는 이항대립만이 재생산되고 가해 구조에 대한 물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여기서 후쿠마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이전, 즉 1960-70년대의 미디어 문화에서 나름 대안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960-70년대 일본 사회 분위기가 나름 의미 있는 논의들이 나왔으나, 오히려 특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그 시기 일본 전후의 전쟁 책임론의 대두, 또 전공투 같은 투쟁이 제가 보기에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한국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나온 고민들이 현상황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발표문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문하지만 일본 사회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움직임이나 미디어 콘텐츠가 있다면 추가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페이 선생님의 만주에서의 중국인 협력자 발표문을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과 일상 협력의 실체를 들여다 보자는 문제의식에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근대사회운동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기에 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체에 대한 분석 이후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물론 본 발표문에서 언급했던 협력의 사례가 한국 역사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과 의문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협력의 원인을 곤궁이나 일상으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의 논조를 따라갈 경우 일본의 지배, 만주국 지배라는 억압적 구조가 종속 변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협력은 협력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구조에 종속됩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과 지배 계급에게,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 지배 권력에게 협력하게 되겠죠. 한국 식민통치로 예로 들어보면, 192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일본에 대한 협력자들을 양산해내는 정책을 썼던 점을 감안하면, 조선총독부가 협력 문제의 본질은 지배 구조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 통치 방식과 협력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안 쓰신 건 아닌데 조금 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테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역사학계 연구에 의하면 이 사례, 즉 아이히만이 무지한 상태로 학살을 행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반박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아이히만이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살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증적으로 테제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술을 토대로 실상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일상과 평범함이라는 측면에 과도하게 매몰될 경우,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기만적인 진술에 몰입되었듯이, 역사학자들 역시 역사적 개인들의 사료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진술들에 함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말씀하셨던 스밍루의 사례가 민중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만주국 군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통신대대 부대장이라는 장교가 된 인물이라 민중의 범주를 어떤 개념으로 설정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2000년대 초반 한국사학계에서 한양대 윤해동 교수님이 ‘식민지의 회색지대’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식민지의 역사를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지배와 저항 사이에 회색 지대에서 갈등하고 협력하는 주체들을 주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당시에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에 무지하지만, 선생님의 이런 논의가 중국 학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순일 김헌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경청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김헌주 선생님 코멘트를 들어보니 구체적으로 크게 세 분 연구자의 성함과 발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쿠마 요시아키 선생님,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 장페이 선생님께서 대해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 세 분의 선생님께 답변, 코멘트를 부탁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보공 선생님께서 부탁을 드리고자 했는데 조금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위안칭평 선생님께서 먼저 코멘트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안 칭평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최 측에 다시 한번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업적이 뛰어난 역사 연구자이신 만큼, 저는 질문을 준비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꼭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영화사를 연구하는데, 일본과 한국의 학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937년,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같은 해 7월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을 전면 침략했습니다. 한 달 후인 1937년 8월, 일본은 동북 점령 지역인 장춘에 ‘만주영화협회’, 즉 ‘만영’이라는 영화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위만주국(偽滿洲國)이 이미 세워진 상태였죠. 만영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소로, 1937년 8월부터 1945년 8월 일본 항복까지 존재했습니다. 1944년 통계에 따르면, 총 1857명 인력 중 일본인이 1075명으로 57.9%, 중국인이 711명 38.3%, 조선인이 51명 2.7%, 대만인이 20명 1.1%였습니다. 8년 동안 만영은 30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했으며, 그중 극영화는 100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만영의 영화 대부분은 중국 점령 지역에서 상영되었고, 일부는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8년 동안 만영에서 생산한 이 영화들이 중국 영화라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일본 영화라고 해야 타당할까요? 중국 영화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만영의 영화를 단 한 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바에 따르면, 소련이 동북지역을 점령한 후 만영의 모든 자료를 가져갔고, 1990년대 일본이 이 자료들을 구입하여 중국 대륙에 한 세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화자료관은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방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영의 영화를 중국 영화라고 불려도 되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잘 전달되었나요? 여기 선생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 순일 위안칭평 선생님, 코멘트 및 질문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발표자 성함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아주 무게감 있는 묵직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논의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순서로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게시는 요시이 후미 선생님의 코멘트를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요시이 후미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코멘트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미리 사회자 측에 코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자 두 명 중 목소리가 훨씬 좋은 평하오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요시이 후미 (평 하오 대독) 어제는 매우 의미 있는 발표와 논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토론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가정 사정 때문에 오늘 갑자기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코멘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코멘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장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주국 하급관리 중국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저는 카이루안(開瀾) 탄광이라는 허베이성 탕산의 석탄 탄광을 경영하던 영국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션(Nathan)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 카이루안 탄광은 중국 대륙에서 푸순(撫順) 탄광에 이어 두 번째 석탄 산출량을 자랑하던 대탄광으로, 경영 실권은 영국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네이션은 텐진 영국 조계에 살면서 탄광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탕산은 1935년 화북분리공작(화북사변) 후 일본이 만든 지동방공자치정부(冀東防共自治政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카이루안 탄광에 대해 지동정부에 납세하거나 등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카이루안 탄광을 경영하는 영국인은 당초 이를 거부합니다. 지동정부는 ‘사실상의 정부’ 일 뿐 중국을 지배하는 ‘정당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중전쟁이 시작되고 장기화가 분명해지자, 네이션 등 영국인들은 그때까지의 난징국민정부에 대한 납세를 중단하고 지동정부에 대해 납세를 시작하는 등 태도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 “일본 지배세력은 화북에서 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네이션은 말합니다.

그 후 일본이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를 표명하고, 화북에서 무역과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네이션은 현지를 지배하는 일본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일본 점령 하에서 경영을 계속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탄광을 지키기 위해, 영국 정부에게 일본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에 개입할 여유가 없던 영국 외무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화북에서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현지를 지배하는 일본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탄광 경영 영국인은, 상하이나 홍콩 판매분을 일본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 갔습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하려는 일본과 양호한 관계를 맺고, 군수 산업을 지탱하는 석탄을 대량으로 일본에 판매한 네이션을 영국 외무성은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네이션의 대응도 ‘불안에서 수용, 복종으로 변용해 가는 과정’(장페이 논문 1쪽)이며, 일본의 ‘권력 하에서의 생존’(장페이 논문 9쪽)의 본모습의 한 측면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션의 사료는 옥스퍼드대학에 남아 있지만, 저는 이 사료를 읽고 1930년대 카이루안 탄광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을 때,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임시 정부 승인까지 영국 외무성에 요구하는 영국인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이션의 생각은 영국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는 다르지만, 일본 점령 하에 놓인 텐진에서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탄광을 유지하려는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일리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이션이라는 개인의 눈을 통해 역사를 보는 것은 류지에 선생님이 논점 정리하신 ‘국가의 역사인식과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상의 거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인식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제가 네이션을 통해 밝혀낸 작은 사실은, 일중전쟁기 일본의 화북지배에는 현지 영국인 협력이 필수불가결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네이션 등 현지 영국인을 무너뜨리고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구체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실의 해명을 거듭해 감으로써 ‘국가의 역사인식과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상의 거리’를 좁히거나, 왜 거리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시밍루나 네이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을 동시대적으로 일기나 수기에 남김으로써 후세에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자나 지역 사람들의 인도로 자기사(自分史)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야스오카 선생님이 소개하신 중국과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자기사를 쓴 아이자와 리이 씨 예가 아

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을 접하고, 그 개별 사례를 쌓아 나감으로써 역사를 재구축해 나가는 작업은 역사 사료의 다양화와 함께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류지에 선생님이 정리하신 ‘타자에 대한 이해’에 대해 제가 소속된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의 관계로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 2020년 2월 한국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저희와 공동으로 ‘다시마와 미역’이라는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는 주로 민속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수년간의 공동연구를 거쳐 개최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바다를 둘러싼 흔한 일상의 역사와 그 변천에, 유사와 차이라는 관점에서 빛을 비추는 동시에, 선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체적으로 상대의 문화를 수용해 온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취지입니다. 전시는 3부 구성으로, 마지막 ‘바다를 건너다’라는 섹션에서는 근대 어민들의 이동 양상과 그에 따른 문화의 혼교가 전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식민지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개막 직전 한국에서 이른바 징용공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무역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한관계가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 일한문화교류 관련 전시가 개최된 것은, 역사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웠고, 그 이유를 알고자 저는 서울에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전시의 근대 부분에서는 일본인 어민에 의한 새로운 어법 도입과, 동아시아의 광역 경제권으로의 한반도 편입이, 한국 재래어업에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고, 한국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 해녀가 가져온 문화가 지금도 일본에 남아 있다는 점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식민지기 일본인들이 가져온 말린 생선으로 국물을 내는 니보시(煮干) 문화가 현재 한국에 정착되어 있다는 점, 일본 식탁에서 친숙한 명란젓은 전후 규슈 하카타에서 한국의 추억의 맛을 재현한 것이 시초였다는 점 등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전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식민지기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 권력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차원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체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일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문화교류의 흔적이 현재 우리들 생활 속에도 녹아 있다는 점이 전시를 통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민속학 시점에서의 재미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들으시면, 제 견해가 조금 낙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시는 지배와 피지배, 가해와 피해라는 식민지기 구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를 보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한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개막했고,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전시를 관람하신 것 같습니다.

류지에 선생님께서 논점 정리해주신 ‘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이해를 심화시킨 예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 일

평하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요시이 선생님의 코멘트도 결국 가해와 피

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역사인식 혹은 이항대립적 파악 방법에 대한 상대화, 또 그런 상대화를 위한 노력에 상당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장페이 선생님, 야스오카 선생님, 류지에 선생님 성함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세션 마지막 지정 토론자 순서로 시보공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어제 시보공 선생님께서는 자기소개 순서를 못 가지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코멘트를 약 7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 순일 (온라인 시스템 문제)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회자로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시 선생님이 시스템 점검하시는 동안, 코멘트에서 언급됐던 선생님들께 우선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후쿠마 요시아키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려보고, 그 다음 시오데 선생님, 야스오카 선생님, 그리고 장페이 선생님에 대한 코멘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답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후쿠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후쿠마 요시아키 코멘트 감사합니다. 하나는 1960년대 가해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생긴 상황이 특수하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에 가해나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분출한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의 특징적인 일인긴 했지만, 한편으로 어떤 언설이든 그때 사회구조나 사회배경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보편적이고 특수한지는 좀처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1960년대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전쟁세대의 사회적 발언력이 있는 한편, 젊은 세대도 앞으로 발언력을 가지려 하는 시기, 즉 ‘발언력의 세대교체’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추궁하는 가운데, 윗세대를 비판하는 논리로 피해자 의식 비판, 가해 책임이라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한편 윗세대가 가해 문제를 반드시 무시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전쟁 체험, 혹은 그 기억 같은 것을 그때그때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점을 제시해 나간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일본인 중에 일종의 피해자 의식 같은 것이 분명히 퍼져 있기는 했지만, 조금 생각해봐도 좋을 점은 가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되는데, 가해를 논할 때 체험이 없는 세대에게는 역시 ‘말하기 쉽다’는 구도가 어떻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이 같은 조건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도 같은 가해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해 책임을 추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으면 분명히 책임 추궁이 쉽겠지만, 역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유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이 점은 일본의 전쟁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조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지만, 악랄(惡逆)한 폭력이 악랄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행동입니다. 폭력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폭력이 모종의 올바름마저 띠게 되는 행동을 어떻게 파악할까의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1960년대 세대 간 충돌 속에서 생겨난 논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해와 검증의 논의가 1980년대, 90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항 대립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고, 일본 안에서는 최근 10년, 15년 정도, ‘전쟁사회학’이라는 논의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문은 어떻게 보면 기존과 같은 올바름이나 규범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할지, 올바름의 존재의의 자체를 되짚어 보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인식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가 어떤 사회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무엇이 간과되어 왔는가가 비교적 젊은, 중견 신진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인 ‘만영(滿映)’에 대해 저 자신은 그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일본이라면 근대필름센터 연구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 생각하고, 다니가와 다케시(谷川建司) 선생님이나 이타쿠라 후미야키(板倉史明) 선생님 등 1945년 이전 영화사에 정통한 선생님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순일

후쿠마 선생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선생님 코멘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안침평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만주영화협회에 대한 일본 측 사정에 대해서도 보충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오데 선생님 순서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코멘트는 이제 3분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연장되어도 5분을 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오데 히로유키

김현주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역사총합’이라는 과목, 혹은 교과서에 여러 과제가 있는 것은 말씀대로라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사 속에 일본사를 넣었을 뿐 아니냐’는 비판은 실제로 교과서 분량으로 말하면 일본사는 3분의 1 정도로 나머지 3분의 2는 세계사나 그 이외이기 때문에, 세계사 중심 기술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누가 현장에서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세계사 선생님과 일본사 선생님이라는 각각의 체제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담당할지가 과제가 돼 왔습니다. 세계사가 주니까 세계사 선생님이 할지, 분담으로 할지, 일본사 선생님이 할지, 혹은 지금까지 역사를 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할지 등,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것은 아니고, 양쪽에 걸친 것과 같은 기술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교과서도 있어서 반드시 덧셈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별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근대예찬’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매우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민당 정권 측 압력 같은 것이 학습지도 요령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 교과서를 배운 일본 아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좋아할 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어제 발표에서도 소개했지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배워서 자신의 나라를 좋아하게 되고 싶었다는 학생의 코멘트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정적인 면만 배우고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어서, 반대로 일본은 과거 모든 면에서 옳았다는 것이 건전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역시 그 균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 문제로 지금의 ‘역사총합’ 교과서 전체에 어제 양지혜 선생님 말씀과도 겹치는데, ‘근대화론’이라는 톤이 강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이 근대 예찬, 일본의 근대를 예찬한다기보다 ‘근대화 예찬’이라는 색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이번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위안부·강제동원에 관한 기재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린국에서 주목받는 한편으로, 국내 우익들에게도 매우 주목받고 있고, 양측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해, 집필자, 교과서 회사 모두 신경 쓰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제가 관여한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본문에 썼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 순일 시오데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오데 선생님께서 집필한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분명하게 집필돼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측이랑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보공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보공 선생님 자기소개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시 보공 이번 회의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영화와 드라마가 민족 화해에 기여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국가 간 불화는 역사를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빨리 ‘화해’에 도달해야만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해’에 도달하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실제 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며, 현실 상황에 대한 교류와 이해도 높여야 합니다. 이 사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도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일한 삼국은 관련된 많은 영화를 제작해왔습니다. 이 중 일부 작품은 역사관과 가치관이 훌륭하며 역사적 양극을 해소하고 서로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가령, 일본의 ‘24개의 눈동자’, 중국의 ‘장군과 고아’와 같은 우수한 작품들입니다. 물론 일부 작품은 심각한 편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일한 삼국 모두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항일 신극(抗日神劇)’의 허술한 서사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항일 신극’이란 ‘손으로 일본군을 찢고’, ‘돌로 비행기를 쳐내며’, ‘총알이 휘면서 발사되고’, ‘마지 안에 폭탄을 숨기는’ 등 군사 상식과 생활 논리에 어긋나는 황당한 장면들로 항일의 역사를 표현하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뒤완 추격(追击阿多丸)’, ‘항일 기사(抗日奇俠)’, ‘다 함께 일본

놈을 쳐부수자(一起打鬼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번호(永不磨灭的番号)'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러한 작품은 21 세기에 들어서 약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논리와 창작 철학에 대해서는 제 논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항일 신극'의 파생 논리, 전파 효과 및 창작에 대한 성찰', 『항일전쟁 연구』 2020년 03호 참조). 오늘은 주로 그런 작품의 전파 효과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느낀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일 신극은 중국 관객에게 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잔혹한 전쟁과 진지한 역사를 희화화하며, 서사부터 연기에 이르기까지 경박하고 거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적 증오를 조장하며, 경박한 욕망을 표출하는 문화적 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문화계, 학계, 주류 미디어는 항일 신극에 대해 엄격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현재 거의 사라졌지만, 10여 년 동안 존재했던 영화 현상으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항일 신극은 중화민족의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될 당시, 외국인들은 중국인의 가치관이 왜곡되었다고 오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항일 신극은 중국 영화사에서 잠깐 존재했던 역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만을 놓고 보면, 지난 80년 이상 중국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여러 명작을 제작했습니다. '옥색 나비(玉色蝴蝶, 1980)', '채 두지 못한 바둑(一盘没有下完的棋, 1982)', '장군과 고아(将军与孤女, 1984)', '청량사 종소리(清凉寺钟声, 1991)' 등과 같은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중일 양국 국민이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깊은 정을 그리고 있으며, 전쟁이 양국에 끼친 거대한 재난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또 전쟁의 악을 회피하지 않았고, 역사의 양극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인종을 넘어선 '인간애'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그렸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세계에 역사적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또 관객들에게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으며, 나아가 중일 양국의 화해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영화와 드라마 작품은 민족 간 화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데 유리한 반면, 저열한 작품은 민족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할 뿐입니다. 고품질과 저품질의 작품이 공존할 때일수록,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 서로에 대한 정확하고 전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만, 편견으로 인한 끝없는 원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쓰미재단과 와세다대학의 노력은 특히 중요한 시대적 의의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의 충돌은 여전히 격렬하고 동아시아의 정세도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복잡하겠지만, 서로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민족 화해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쓰

미재단과 와세다대학이 전개하는 이런 학술 활동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중일한 삼국이 역사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과거의 앙금을 벗어던지고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더욱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주최측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에 ‘중일한 민간 교류사 연구’에 관한 세션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로는 1) 청말민초기 중국 유학생의 일본 경험 연구, 2) 중일 양국 간 재난 구호사 연구, 3) 중일한 초국적 결혼 연구 등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 순일 지금 중국까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보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항일 관련 드라마 말씀을 해 주시는가 했더니, 또 역사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전쟁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나빠요’, ‘우리 이런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라는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쟁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어져야 하며, 또 평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아까 답변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야스오카 겐이치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요시이 선생님 코멘트에서 잠깐 언급된 지분시, 자기 역사에 대한 코멘트에 보충을 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스오카 겐이치 몇 가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요시이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먼저 위안 선생님 코멘트를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안 선생님 코멘트에서 만주의 영화, 만영 작품은 중국 영화인지, 일본 영화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근대 여러 국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이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나 미국에 가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본의 역사일까? 혹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재일 코리안들이 일본에서 만든 커뮤니티, 거기에서 이뤄진 교육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과연 일본의 역사라고 분류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떤 일본을 전망할 것인가, 혹은 어떤 중국을 전망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를 생각하는 것과 역사 서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대나 지역이 배타적으로, 즉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사회를 상상할 것인지, 혹은 양쪽이 유동하고 교차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네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위치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개인으로부터 역사를 본다는 요시이 선생님이 주신 코멘트를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는 도중에 논의된 가해와 피해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침략과 지배가 가해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된 회색지대에 속하는 일들은 바로 부정의, 정의가 아닌 것들이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그 복잡한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 자체가 부정의라는 것과, 그 안에

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혀 나가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기록 같은 것에서 배우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틀이, 때로 피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다루는 것에 대해 저는 우려합니다. ‘희생자의식 내셔널리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희생 본질 자체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처음 인사말씀에서 미타니 선생님이 사료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대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밝힐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일본인 위안부 증언은 거의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에 징용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그 실태에 비해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희생자의식, 혹은 피해와 가해라는 것을 논할 때 마치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면 어떻게 기록하고 생각해야 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야스오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폭넓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주제에 다 걸쳐 있는 좋은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장페이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장 페이 그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제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제 논문 자체가 잘 쓰인 문장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피점령지 민중들의 생활과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는, 여타 일반적인 전시상황 속 강권 통치하에서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김 선생님, 위안 선생님, 요시이 선생님 등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점령 하에 있는 민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의 역사적 판단 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민족국가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중의 입장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어제 강연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중국에는 엘리트와 하층민이 있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지식인이나 정치 엘리트들의 서술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민중의 민족주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민중은 “누가 왕이 되든, 왕이 된 자에게 조세를 바친다”는 언어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 통치자인가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의 민족국가에 대한 입장과 오늘날 우리의 이해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이 화북을 침공했을 때, 화북에는 ‘연장회(聯庄會)’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있었습니다. 마을 연합회라는 의미를 지닌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싸우지 않고, 일본에 항복하지 않으며, 고향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즉 일본군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나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공격한다면 반격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향을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주의 의식과는 결이 다른 가족주의와 지역주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전쟁을 논의할 때, 왜 민족국가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민족국가의 거대한 거시적 시야 속에서 강권통치 하에 있는 수억 명의 민중이 실제로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반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일본과 만주국 괴뢰정부는 협력자에게 혜택을 주어 협력자가 이익을 얻고 순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자가 지배자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주족이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중국인에게 변발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변발은 만주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 군대는 ‘머리(목숨)를 남기려면 이마 모발을 남기지 말고, 이마 모발을 남기면 머리가 날아간다’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즉 이마 머리를 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68년 후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땅은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자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머리 형태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 상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반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오늘날 상상한 민족 공동체의 개념을 그들에게 요구하면 많은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북의 어떤 현에서는 십 몇 명 규모의 일본군 한 분대가 전체 현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괴뢰정권을 통해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어떤 교수님이 추가로 “스밍루는 만주군 군관인데, 그를 일반 민중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낮은 계급, 즉 통신대의 부대장으로 약 10~20명을 지휘했던 군관이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군사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는 기층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그를 고위 관료와 동일시하지 않고, 일반 민중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법정 진술을 인정한 것을 언급 하셨습니다. 이에 어떤 연구서는 그녀의 책이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렌트가 제기한 ‘아이히만 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을 변호합니다. 즉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직무상 범죄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렌트는 이를 ‘평범함의 악’으로 귀결시키는데,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점령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일본군이 중국인에게 가한 피해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포들이 자신의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동포에게 가한 다양한 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며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구술 자료나 일기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기에 특별히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과거에 일기를 쓴 것은 단지 습관, 혹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일기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읽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일반인들의 일기와는 달리, 저는 ‘장제스의 일기’를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민중이 자신의 일상 생활을 기록한 것이 훨씬 더 진실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1980~90년대에 출간된 많은 회고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기억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영국인 네이션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요시이 선생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요시이 선생님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안 교수님이 언급한 만주국 시기 제작된 영화를 어디에 귀속시킬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일본 점령 시기 생산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영화에 대해 연구한 푸바오스(傅葆石)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주국 시기 대학이나 신문, 역사 이 모두를 잘 계승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국치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역사의 일부입니다. 만주국 대학의 학생들을 우리가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역사적 식별은 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국인이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 순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청중석에서 코멘트를 해도 괜찮은지 리퀘스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이 우선 신청해주셨는데요. 2분 정도 드리겠고요. 가와사키 선생님도 2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선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히로시 김헌주 선생님으로부터 ‘역사종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시오데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바탕이 된 플랜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써 교실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은 대체로 이 3단계로 이뤄집니다. ‘역사종합’이라는 과목에 관해 실은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만들기 전, 일본학술회의라는 조직이 “‘역사 기초’라는 수업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계획한 사람은 4, 5명이었는데,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이 ‘역사기초’ 제안은 세계사와 일본사를 융합하는 것이 중심축이었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화라는 현상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근린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구성 원칙의 중심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참조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역사종합’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지도요령을 만들었을 때 글로벌화와 근린관계 중시라는 두 축을 잘라버렸습니다. 들은 바로는 이 학습지도요령 뼈대를 만들 때, 역사학자는 한 명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니다. 문부과학성 안에는 역사 전문가도 있지만 그들도 배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관과 잘 모르는 누군가, 교육학자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는 배제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정이 있는 셈입니다. 당시 내각은 일본 전후사에서 매우 특수한 내각이었습니다. 현내각이 그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튼린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도요령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매우 뛰어난 역사가와 교육자가 기초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쓸 만한 지도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과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교실에서는 더욱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엉망인 기초 구조였지만, 실제 교육은 이러한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새로운 지도요령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나은 것을 만들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순일 미타니 선생님이 ‘역사종합’의 탄생과 관련된 비화랄까요,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 세션 마지막 순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가와사키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와사키 다케시 와세다대 사회과학부 영어학위프로그램에서 일본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몇 년 전까지 아사히신문 기자였습니다. 역사 전문가에 대한 존경을 항상 잊지 않는 저널리스트이고자 합니다.

10년 정도 전, 젊은 시절부터 교류가 있던 국립대 선생님이 퇴임할 때, 그 무렵 아사히신문 여러 기사에 대해 “젊은 기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쓴소리 섞인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 원폭 기념, 8월 15일 등 8월 역사 기사를 담당하는 많은 이들이 젊은 기자입니다. 신문사나 방송국 사회부, 지방 각 현에 있는 지방총국에서는 평화담당이나 전쟁 기록담당 등으로 분담해, 이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취재를 하여 신문 기사로 만들거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쟁 관련이나 전쟁에 이르는 역사 검증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8월 저널리즘’이나 ‘여름 금붕어팔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기술(記述)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스크 때문에 수정하지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아사히신문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에 들어온 젊은이들은 적어도 그 시기 ‘베스트 앤 브라이티스트(best and brightest)’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몇 달 전까지 대학에 있었고, 교실에서 역사학 선생님들과도 교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키울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신문 등 미디어만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기사를 계속 게재할 수 있을까요? 젊은 기자를 비판하기 전에 호흡을 좀 천천히 생각해달라는 서투른 반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매년 여름, 전쟁 회고 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20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만, 소년기 아직도 전쟁의 기억은 사회에 남아 있었고, 말해 주는 피폭자나 전직 병사

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되고 나서 재한피폭자의 긴 증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기자는 그러한 기억이 없는 채로 전쟁기획 기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의 젊은 기자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피폭자 단체나 대학 현대사 선생님들을 만나, 사료나 책을 읽고 전쟁 희생자 본인이나 가족, 유족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지금이라면 침략의 기억이나 전승을 말해주는 조선이나 중국 사람,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 관계자 등에게 접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여름 금붕어팔이’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전쟁에 얽힌 에피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 좋은 것은 역사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름 전쟁 기사를 담당함으로써 기자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역사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역사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후 기자 활동에서 그 경험을 살려 갑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신문뿐만 아니라 TV의 젊은 기자들도 다수 도전하는 주제입니다. 역사적인 주제에 도전하려는 젊은 기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NHK 여름 특집 프로그램은 특히 평가가 높고, 몇 년 전 일본군 버마 임팔작전의 상세한 기록을 통해 당시 일본군 상층부가 얼마나 무모·무계획·무능력했는지 밝혀냈습니다. 기자들이 증언을 듣거나 취재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를 기사나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문 기사·방송 프로그램 형태로 독자·시청자에게 도달합니다. 이 일련의 번거로운 작업이 미디어 기자의 역사인식 만들기에 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미디어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논픽션은 아카데미즘과는 다른 형태로 일본인에게 역사를 계속 검증하려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이후 올해는 100년째입니다. 많은 리포트나 프로그램이 앞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도쿄도지사가 조선인 학살 피해를 기록하는 집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8월 저널리즘’ 이라고 해도, 보도 미디어가 비록 8월뿐일지라도 근현대사 검증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에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역사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정 순일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선생님께서 미디어 관계자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조금 오버했습니다만, 평하오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시간을 조절했는데, 혹시 제5세션에서 언급된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는 제가 기회를 못 드리고 한 분 정도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라야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우선 어제 제4세션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보충 설명을 해 두겠습니다. 전문 역사연구자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느냐는 질문이 탕 선생님께서로부터 나왔는데, 그에 대한 야스오카, 후쿠마 선생님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TV 사극 드라마

의 ‘시대고증’입니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국(특히 NHK)이 방송하는 시대극 드라마는, 물론 사실(史實)과 다른 픽션이나 연출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무대가 되는 시대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 연구자에게 ‘시대고증’을 의뢰하는 일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대고증을 담당한 젊은 연구자가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과 교류한 경험에 대해 자세히 학회지에 썼는데(木下竜馬「時代考証の領分 大河ドラマ『鎌倉殿の13人』との日々」『歴史評論』870号、2022年10月), 각본가나 제작 책임자들이 상당히 꼼꼼히 사료와 연구를 숙독하고, 드라마 리얼리티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TV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NHK 시대극은 많은 젊은 팬들이 보기도 해서, 세대를 넘어 드라마의 영향력은 현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전문 연구자의 견해를 중시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 코멘트입니다.

정 순일 히라야마 선생님, 대단히 중요한 보충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사회자의 능력 부족으로 많은 논의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제6세션에 사회 평하오 선생님께 큰 숙제를 남기고 저는 떠나게 되는데, 그런 만큼 큰 기대가 되는 게 마지막 제6 세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세션 지정토론 / 전체토의

사회: 평 하오 (오사카공립대)

지정토론자: 장 샤오강 (장춘사범대)

(발언순) 김 호 (서울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언 (일본어), 홍용일 (중국어)]



평 하오 이제 여섯 번째 종합 토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 걱정되니, 발언 템포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지정된 세 명의 토론자가 먼저 발언할 예정입니다.

발언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샤오강 교수님, 그 다음은 김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히라야마 교수님 순으로 관촬을까요? 그럼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장샤오강 교수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장 샤오강 존경하는 학계 동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류지에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자 선생님들, 회의 조직위의 선생님들, 그리고 동시통역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달 초 코로나에 걸려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회의, 특히 오늘 오전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한국의 학자들과 모두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미 한국의 이기훈 선생님과 교류를 가졌습니다.

난카이대의 장페이 교수님은 오전 세션에서 이미 여러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주로 일기, 서한, 구술사, 회고록 등 역사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의 답변이 매우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장제스 일기’의 예시를 들어 저자(장제스)가, 일기가 언젠가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내용 기술에서 선택적이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는 장 교수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들, 특히 중일전쟁 기간 중국 내 반일 세력의 취약함과 많은 친일파의 존재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다면 장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주로 일본의 식민주의와 식민 침략 관행에 대해 일본 학자들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오데 선생님과 야스오카 선생님이 각자의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주로 교육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일본의 식민 역사를 탐구했기 때문에, 식민 이론에 대한 탐구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초보자에 가깝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식민주의 이론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호쿠다이학파(北大学派)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쿠다이학파는 홋카이도대학에서 파생한 학파를 의미하며, 초기에는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인물, 특히 사토 쇼스케(佐藤昌介)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학교에서 식민학을 가르치며, 교육과 이론적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무사도(武士道)』를 쓴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와 같은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도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공부한 후 홋카이도대학에서 가르치며 많은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토고 미노루(東郷美)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는 식민학을 연구하고 대만 등 식민지에서 직접 관리 및 실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홋카이도에서 배운 식민지 이론 및 실천 지식을 식민지 관리 작업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도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식민 관리자들을 대만, 조선반도 등지로 파견하여 지도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물론 관동주로 파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동주는 중국의 다롄과 뤼순 지역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동북지역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갑오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했고, 이후 삼국간섭을 통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조계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후, 일본은 관동주를 재점령하게 됩니다. 관동주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대만, 조선반도, 그 후의 동북지역, 즉 만주국 식민 지배 체제와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지도 10여 장을 수집했습니다. 당시 일본 지도에서는 관동주(요동반도), 조선반도, 대만, 일본 본토 및 카라후토 남부를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지역들이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였고, 당시 일본인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적해야 할 점은, 요동반도(관동주)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계지에 불과했으며, 대만과는 지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주국은 또 다

른 경우였고, 일본 관동군이 지지하는 괴뢰 정부였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오랫동안 중국 동북지역, 즉 위만주국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저도 학술회의에 참여할 때 일본 학자들과 교류하며, 일본이 동북지역에서 실시한 이주민 및 개척단 문제,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시오데 선생님과 야스오카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한 분은 교과서의 관점에서 중일전쟁 기간 일본의 교육 및 식민지 통치 문제를 탐구했고, 다른 한 분은 개인사 연구를 통해 식민지 통치와 20세기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선생님 모두 식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탐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에서 제시한 생각과 제안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는 중국 학자들이 배우고 참조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야스오카 선생님은 역사 기술 권리를 가진 개인을 제시하고, 전쟁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에서 화해의 단서를 찾는 것을 통해 동아시아 인민들의 화해 문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할 것을 제창했습니다. 이는 분명 높이 평가해야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 기술자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학자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학자나 역사 연구자 개인의 독립적인 견해와 깊은 연구, 탄탄한 사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페이 선생님이 일기와 구술사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야스오카 선생님은 개인의 기록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는 일본이 에도 시대 말기 개항했을 때, 미국의 흑선이 일본에 접근했을 때의 공식 외교 문서뿐만 아니라, 민간 일기, 가족 서신의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상인, 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쓴 가족 서신은 역사적 사실을 진실되게 반영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장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록자들은 그들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일본 학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오데 선생님께, 일본 교과서 연구에서 식민지, 식민 통치와 같은 주제에 대해 통계 보고서나 사회조사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 학계에서 ‘식민주의’는 초기에는 중립적인 용어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식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스오카 선생님께는, 20세기의 전쟁, 식민 통치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이주사를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이주는 일본이 파견한 개척단 문제에만 한정되나요? 동북 이주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점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까요? 더 궁금한 점이 많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장 선생님께서 식민지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최신 동향을 추가로 설명해 주셨고, 또 몇몇 선생님들께 구체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서 더 이상의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

로, 김호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언 시간은 7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호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맛있는 맥주와 요리를 먹지 못하고 준비한 토론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 읽고 싶습니다. 토론에 앞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서 타인의 목소리를 잘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께서는 3명만 모여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만 30명 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 제가 배울 내용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임을 구성해 주신 아쓰미재단 관계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모임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 미래를 위한 역사학의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미래의 역사학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위한 실천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훌륭한 역사가라면 미래에 관해 생각하든 말든 미래를 뚫속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역사가는 ‘왜’ 라는 질문에 더해 ‘어디로’ 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역사학자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를 지녔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은 항상 이러한 압박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자체를 깊이 탐구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역사학자를 훨씬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실천에 역사학이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도 역사학자들에게 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고, 제가 사실 참여를 주저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든,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든, 세계의 평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든, 그것은 일종의 책임 방기,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Richard McKay Rorty)는 “과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미래에 대한 공통의 희망만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고, 로티가 매우 격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지금의 역사가들이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지혜 선생님께서는 생태사를 발전 너머의 대안으로, 선생님 글 말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이웃하며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세계를, 만물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팽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생태환경의 강조는 개인이나 국가 단위 공동체를 넘어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만, 생태를 논의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의 역사 상상력을 넘어서는 평화의 역사관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천홍민 선생님은 중화민국기 중국인들의 일본 군벌에 대한 이해를 세밀하게 정리해 주셔서 매우 즐겁게 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군벌을 일본 제국주의 침

략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논점은, 일본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군부와는 분리하여,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군부의 폭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역사의 인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역사의 책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에서 어떤 실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군부를 분리하는 듯한 이러한 논의는 과연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해야 하는지라는 숙제를 계속 남겨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동체로의 귀속과 공통의 역사적 기억의 공유라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차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역사 쓰기가 가능할까요?

야스오카 겐이치 선생님 발표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역사의 취지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스오카 선생님은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역사를’이라는 취지로, 일본 내 역사학계의 지분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그동안 역사학이 심판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모든 개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들을 둘러싸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한 기준, 즉 정의의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변호를 허용하는 것이 가진 자유와 권리에 대해, 그만큼의 의무와 거기서 발생하는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E. H. 카의 논의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카는 자신의 책에서 “역사가는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처럼 문서나 비문 등에 있는 사실들을 골라낼 수 있다”, “역사가는 그것들을 모은 다음,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요리하여 내놓는다” 고 말했습니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는 챕터를 통해 카는, 역사가의 작업이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레시피의 구도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왜’를 넘어서 ‘어디로’라는 문제의식과 철학이야말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입니다. 사실 마켓에 가면 생선 이외에 버섯 등 각종 채소와 돼지 및 소고기 등 육류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살이 찌더라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어디로’를 향한 의지는, 야채 위주의 샐러드로 식단을 구성하려는 의지와는 상당히 다른 요리를 식탁에 올릴 것입니다. 그동안 정해진 식단표대로 식사를 해왔던 학교 급식과 달리, 나 자신의 요리를 구상하고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좋은 나쁘든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주는 대로 먹던 편리한 상황에서 괜히 복잡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할지도 모르지만, 원하지 않던 급식을 먹지 않고 남겨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단이나, 심지어 뷔페의 다양한 음식을 넘어서 자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육은 이처럼 정해진 급식에서 자유로운 요리로의 전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의 글에서 ‘역사종합’ 과 관련된 일본 역사 교육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필수 과목인 ‘역사종합’ 은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이며,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역사교육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술돼 있듯이 ‘역사종합’ 의 목표는 젊은 세대에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부여한다는 것 이외에, 근대 일본과 인근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이 거의 무지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역사종합’ 의 또 다른 특징이 자료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물음을 제시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강의와 암기로 구성된 역사 교육으로부터, ‘왜’, ‘어째서’ 라는 물음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노력함으로써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역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의 권위주의적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어째서’ 만이 아니라 ‘어디로’ 라는 방향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 서술과 ‘어디로’ 라는 방향은 역사와 미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 라기보다 ‘미래와 과거의 대화’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탕샤오빙 선생님 발표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도달할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목표를 어디에 뒀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카의 ‘어디로’ 의 문제 제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왕밍커의 논의를 빌어서 “역사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해석권을 둘러싼 싸움이며, 또 인정과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민이 이성을 가리고 있다거나 이성적인 반성이 역사적 구조와 행동 속에서 희생한 개인을 묻어버리고 있다는 비판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우리가 특정한 역사 페이지를 되짚어보고 기록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중은 역사 연구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중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탕샤오빙 선생님은 글의 첫머리에 백영서 선생의 “망각의 반대는 기억이 아니고 정의다” 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신중함의 밑바닥에 확실히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발표문에 보이는 양넨쑤(楊念群) 선생의 ‘총알받이의 역사학’ 이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과연 모욕하지 않는 정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의를 위해 모욕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저는 정의라는 단어 아래에 주춧돌을 하나 더 밀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밑에 인간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넣어야 합니다. 역사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사회의 형성은 상대를 모욕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1차적으로 서로를 모욕하지 않는 감각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와 모욕 등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어들을 피해서 교육의 문제를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훈련하는 역사 교육을 통해

성찰적인 역사 내러티브의 구상을 경험했다면, 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뇌 근육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수 년 동안 교사들과 함께 작은 역사 쓰기, ‘스몰 히스토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은 역사는 대문자 히스토리가 아니라 소문자 역사입니다. ‘스몰’은 나 자신의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체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역사가의 경험을 하도록 하려면 우선 교사들과 함께 글쓰기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하므로, 수업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재료를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되면, 교사들의 상상력은 해당 주제와 관련되어 제공된 재료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레시피가 너무 복잡하면 요리를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역사 수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역사 교육을 위한 재료는 품질이 좋고 신선하며 다양하게 골라서 준비해야 하고, 레시피는 너무 단순해서도, 반대로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요리 과정의 즐거움을 가지고 역사 쓰기에 도전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야 역사 쓰기에 신중하게 임하고 요리의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요리를 누구와 함께 먹는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요리사는 함께 먹을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요리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손님을 위해 정성과 존중의 마음을 담는데, 하물며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요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서로 간에 두터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정성이 들어가고 타인에 대한 걱정이 요리에 첨가됩니다. 역사를 요리에 비유한 이유는, 미래의 역사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호 간 모욕을 중지하고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일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라는 제도가 구성원을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국가 자체가 부질없다며 무정부주의를 외쳐서도 안 됩니다. 죽림의 은둔자처럼 어떤 제도든 나와 상관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국가의 폭력이나 군벌의 폭주를 비판하는 만큼, 악의 평범성을 역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는 인간 존중을 토대로 정의의 기억을 구상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18세기 한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탐구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살인죄를 벌금형에 처하는 당시의 관행,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관행에 대해 발꿈치를 자르거나 목을 치는 신체형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적합하다는 주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산은 조선의 신체형이 가지고 있는 불인(不仁)함을 비판하고, 생명 존중의 법 문화를 만들어온 400년 역사를 한 번에 뒤집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폭력 그 자체의 야만성, 저는 그걸 불인이라고 하는데요, 천착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위에서만 비로소 정의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모욕하지 않는 방법은 인간으로서 차마 알 수 없는 선을 신중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모였으므로 공통적

으로 사용해 온 단어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인(仁) 그리고 의(義)는 익숙하지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는 인이 무엇이나, 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신 불인(不仁)과 불의(不義)에 더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인과 의 보다는 불인과 불의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옳지 않다는 감각, 불의의 감각, 무언가 모욕당하는 듯한 느낌, 불인의 감각, 바로 역사학은 이 불인과 불의에 대한 감각을 단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올바름과 정의를 강하게 부르짖다가 생명을 빼앗거나 인간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인의 감각으로 정의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국가 등의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언가 불의하다는 감각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시비비의 감각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인의 감각으로 적절하게 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불의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감각으로 적절하게 인을 제어해야 됩니다. 불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불인과 불의의 감각으로 과도한 의와 편협한 인을 제어하고 만들어내는 인의의 벡터 공간에서 미래의 역사가 새롭게 모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평 하오 김 선생님, 준비하신 내용과 발표 내용 모두 매우 풍부했습니다. 특히 역사학과 역사학 이론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지향적인 역사학 실천과 타인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두 더 깊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또한 어제의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는 앞으로의 종합 토론에 좋은 논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자인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이번 회의에서 저는 ‘국사’와 지역적 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해, 나아가 역사의 이미지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차 세 가지로 나누어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가의 역사와 지방의 역사의 관계입니다. 제2세션 김태웅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습시다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한국 분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전후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 일본사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부산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나요? 일본과의 관계사가 거의 없는 ‘국사’라는 것은 일본과의 교류나 대립 최전선에 위치한 역사를 가진 부산 사람들에게는 무척 부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사’, ‘한일관계사’의 틀이 중시되게 된 것은 역사교과서에서 부산 관련 기술도 증가시키지 않았을까요?

‘국사’가 국가의 중앙세력에 의해 조작될 때 필연적으로 자국 역사의 지역

적 다양성을 경시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이는 제3세션 이기훈 선생님 발표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로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표현한 영화가 거론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은 어느 나라 ‘국사’ 에나 해당됩니다. 만약 일본의 ‘국사’ 가 조선과의 관계사를 경시한다면, 쓰시마 역시 경시하는 것입니다. 요시이 선생님 코멘트에 있던 ‘하카타 멘타이코’ ,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하카타 멘타이코’ 의 뿌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중국의 ‘국사’ 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보충하자면, 저는 나가사키현 출신이고 제 조상 히라야마 가문은 조선과 일본의 교섭을 담당했던 쓰시마의 종가 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나가사키 시내 소학교 역사교육은 에도시대 데지마 네덜란드 · 중국과의 교류사와 1945년 원자폭탄 피해만을 강조하고, 쓰시마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에서 사용되던 소학교 교과서에 맞춰 나가사키현 역사가 잘려 나가고 쓰시마가 빠진 역사 이미지를 소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참여하신 중국, 한국의 어느 선생님이라도 괜찮으니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과 관련된 것인데, 지방에서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육성될 수 있는 연구 ·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사키현이 표준적인 ‘국사’ 에 순종적인 역사교육을 해 온 것은 나가사키현 내 대학 문학부의 역사학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지역 역사가 학술연구 없이 ‘관광’ 에 종속되기 쉬운 구조가 있던 것이 한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관광’ 이라는 것은 단순화된 역사의 스토리를 이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본 다른 지역에서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데지마와 원폭’ 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더욱 고정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산에서는 어땠을까요? 부산의 대학에 역사학과가 존재해 중앙이 만들어낸 역사상을 상대화하는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중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어쨌든 국가의 중앙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전문 역사학자를 육성해 ‘국사’ 와 ‘관광’ 의 정치적 역학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학문 기반이 지방에서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이번에 참여하고 계신 중국, 한국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이라기보다 여러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점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학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역사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 회의에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시오데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가족 반응에도 주목했습니다. 모두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또 하나 시야에 넣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 입니다.

일본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들이 며칠에 걸쳐 함께 단체여행을 실시하는 ‘수학 여행’ 이 소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모두에서 이뤄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는 사실 세계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수학여행은 ‘교육+관광’ 을 동시에 경험하는 단체행동입니다. 전쟁 전 일본에서는 황

실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신궁으로의 수학여행이 이뤄졌고, 전후에는 평화 교육을 위해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키나와에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험에 대해 물어보면, 교과서 내용은 시험이 끝나버리면 잊어버리지만, 수학여행은 ‘일생에 한 번’의 경험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이 어떤 역사상을 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2세션에서 시오데 선생님은 일본인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일본 역사 교육의 경향을 지적하셨는데, 이는 수학여행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나 오키나와 지상전에서의 희생자 중에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있었던 것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 가해의 면에 대해 수학여행에서 배우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평화교육과는 별도로, 교토와 나라 등 오래된 신사와 사찰을 방문해 일본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유형의 수학여행이 전쟁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은 어떨까요?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수학여행 경험이 사람들의 역사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당일치기로 역사를 배우러 현지를 방문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사겸사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학여행은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있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끼리만 행동하고, 현지인들과 잘 교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이 수학여행으로 해외에 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는 곳의 고등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최신 상황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 어제 물어봤지만, 역시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현재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1세션에서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사학자나 대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역사 전문가가 아닌 보통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대화할 기회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이 방문한 곳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 대화하는 것처럼,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해외 수학여행을 국경을 넘어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역사 대화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상으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 하오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사와 지방의 역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각각의 발표자들이 앞선 몇몇 선생님들의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했으나, 시간 관계상 조정을 하여, 각자 답변해야 할 질문을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히라야마 선생님의 코멘트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어제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참석자들이 일본의 역사종합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이치카와 선생님께서도 일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치카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치카와 토모오

어제부터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제 개회 시점에 류지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조금 느낀 것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20세기 동아시아 역사 큰 틀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연구자에 의한 이해가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어디까지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2010년 전후 상하이 한 대학에서 일본 근대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찾는 과정에서 송 선생님 저작 등도 훑어보았는데, 결국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직접 중국어로 번역해 강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일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만으로는, 중국인 학생의 사고 회로와 다른 차원의 정보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중국어 능력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많은 중국 학생들의 인식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결과, 경제 발전에 성공한 반면, 중국은 근대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10년 전 일이므로 현재는 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제 의문은 중국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견해를 왜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역사 연구자의 정보 발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의 결과인지, 혹은 뭔가 전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여쭙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이치카와 선생님. 다음으로 우리는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와세다대 아사노 선생님이 국민성, 국민국가와 교육사회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신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아사노 선생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사노 도요미

와세다대에서 일본정치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호 선생님께서 “미래를 구상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이 훗날 90세가 되는 2090년은 일본이 개국한 1858년부터 약 230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즉 소위 ‘해국의 시대’는 포르투갈 내항이 멈춘 1630년부터 헤아리면 230년 미만 정도 계속된 것인데, 그에 필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국사들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몽골 세계제국과 분로쿠·게이초의 역(역주: 임진왜란)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근대 이전 전통적 사회를 기반으로 근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전은 왕이나 신분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이러한 과거를 상정하면서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과정에는 식민지 지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학생들이 훗날 노인이 되어 갈 때, 일본 개국으로부터 230년 정도 지난 시대를 지금 젊은이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라야마 선생님이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지방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국민국가를 넘어선 동아시아 지역도 미래의 이미지 속에서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이나 ‘의’라는 개념으로 상징되어 지금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유산을 새로운 맥락에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세션 주제가 ‘교육’, 제3세션이 ‘미디어’, 제4세션이 ‘연구’였습니다. 교육의 포인트는 신분이 어떻게 소멸되고 국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주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3세션 미디어에서 나온 것과 같은 협력자의 문제나 국민의 역사에는 들어맞지 않는 존재, 이민도 그렇고, 대일협력자도 그렇고, 하나의 현을 단 10여 명 일본군이 지배했던 이야기나, 요컨대 국민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시대의 일본군 점령이었는데, 미래를 구상할 때 국민의 역사에 들어맞지 않는 존재가 오히려 큰 의미를 갖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총합’ 과목의 방향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연결하면서 지금 시대를 생각하는 시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먼 과거가 중요하고, 특히 신분과 왕이 있던 시대와 없는 시대를 의식해야 국민이라는 존재 위에 세워진 현대를 하나의 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미래 세계 동아시아라는 지역과, 그리고 부산이나 하카타나 (저는 후쿠시마 출신입니다만) 로컬 지역이 국민이라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큰 지역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미래 시대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지금까지 해온 몽골이나 게이초 · 분로쿠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정말 오늘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된 점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평 하오 아사노 선생님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는데, 교육에 대해 따로 질문이 더 있나요?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1분 내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중 4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사범대 교원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가해와 피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해는 과거 완료 시제 형태지만, 피해는 상처, 구전 및 각종 가정 내 서사를 통해 전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해와 피해 사이 통합을 다시 바라볼 때, 가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과거 완료 시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간적 문제 외에도 우리는 종종 공간적 문제에 주목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전쟁 현장 조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 갔을 때, 공습을 경험했던 이 두 도시는 공습에 대해,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원폭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던 마이즈루는 당시 귀환자들이 정착했던 항구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시베리아의 기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는 피해의 기억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적 관점에서,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가해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 관계로 교육에 관한 논의도 곧 마무리짓겠습니다. 방금 이치카와 선생님이 류 선생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류 선생님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류 지에 이치카와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 의도는 이 글 전체를 통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일본과 중국, 한국의 역사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애초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라는 매우 큰 틀에 대해 어딘가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년 정도 대화 중에서 ‘피해와 가해’, ‘식민지 지배’ 나 ‘침략’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논란을 일으킨다든가 의견이 대립하는 일을 별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밖에 제가 쓴 문장의 그 다음 단락에서, 각각의 나라 안 정치, 사회적 환경이나 자국사 문맥이 다른 가운데 여러 차이나 오해 혹은 몰이해가 있다는 폐쇄적 역사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 정보에 대한 지식 격차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격차로 인해 생기는 역사 인식 차이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 교육 수준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로 썼습니다.

평 하오 류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고등학교 교사이신 카와시마 선생님과 타마키 선생님도 발언하셨는데, 방금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언급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추가로 보태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가와시마 케이이치 ‘역사종합’은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커다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답변을 세 가지 시점, 역사교육의 ‘목적론’, ‘내용론’, ‘방법론’으로 간결하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론’에 대해 ‘역사종합’에서는 무엇을 위해 역사를 학습하는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을 고등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계속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의 권위주의를 보다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역사를 탐구해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역사종합’을 배우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등학생이 탐구할 수 있기에 더욱 역사학습이 고등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왜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는 어려운지’를 탐구하는 것도 ‘역사종합’에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용론’ 부터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종합’은 ‘역사를 배우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역사비판을 하는지, 사실 입각성이란 무엇인지, 논리 정합성이란 무엇인지, 반증가능성이란 무엇인지 등도 가르쳐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고등학생과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물음과 사료 학습을 보다 많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부과학성도 다면적·다각적이라는 말을 지도요령에 썼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점을 가지고, 하나의 시점에서의 사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해나 피해의 중층성을 사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점에 치우치지 않는, 내셔널 히스토리에 치우치지 않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쓰는(=서술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학습권 선언’에 있는 ‘고등학생이 스스로 역사를 쓸 권리’, 조금 전에 나온 ‘스몰 히스토리즈’를 고등학생이 스스로 쓸 권리,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등학생의 ‘역사종합’ 탐구의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점의 틀이 설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자유와 제한’, ‘평등과 격차’, ‘대립과 협조’, ‘통합과 분화’, ‘개발과 보전’의 다섯 가지입니다. 어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다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을 잘 다루도록 하는 분석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적인 여러 과제를 다루는 시점, 지금 고등학생을 둘러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다루고, 거기에 학습에 필요한 과거를 탐구하는 학습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틀이 국가로부터 규정되는 것에는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고등학생의 탐구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교사가 계속 역사 사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실상 규정됐습니다. 대화를 통한 배움,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교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배우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린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심화된 배움’이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사고방식도 괜찮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괜찮다’는 더 이상 안 되고, 수정주의 언설이나, 혐오 사상, 차별이 있는 해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상대주의는 안되고, 또박또박 미래를 향해 우리가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학습이 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를 ‘역사종합’에서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방금 카와시마 선생님께서 매우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타마키 선생님께서 추가로 보태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1분 이내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타마키 케이 저는 ‘역사종합’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 보고 가지게 된 문제의식과 현장

선생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건을, 두 가지 점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료비판의 교재화’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역사 해석이나 논리적 서술, 반증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생이 주제를 정해 보고서를 쓰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질문을 갖도록 하는 활동 속에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비판은 학생에게 주체적으로 체험시키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과 함께 체험적으로 배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사료 비판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해설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주목하는지는 사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료의 유형, 여러 패턴에 대해, ‘이런 데에 착안점이 있다’는 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료의 교재화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모든 과제들을 고민하기 위한 역사 과목이라는 시점이 중시되기 시작했기에 시사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디어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신문 기사를 수업 중에 도입하거나 시사문제를 사용하는 실천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지금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문을 읽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그것을 습관화해, 거기서 역사와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앞으로 현장 교원들이 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방금 몇몇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미타니 선생님이 언급하신 구술 자료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구술사, 개인사, 대중사와 관련한 주제에서 구술 자료 활용이 언급되었지만, 구술 자료를 활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도 많았고, 중국과 한국에서 환영받았던 ‘고노 담화’ 같은 발언은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시된 많은 자료들, 특히 위안부를 조사한 구술 자료에 대해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이러한 구술 자료가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구술사와 역사 대중화에 관한 토론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오쿠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지난 이틀간 매우 흥미롭게 논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정치사상사가 전문이고 법학부 정치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편으로 정치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야스오카 선생님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분들께서 구술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부정의, 나아가 그 기저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구조적 폭력을 그려냄으로써 국가를 넘어 다양한 지역을

있는 글로벌한 역사상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오늘 아사노 선생님 지적과도 겹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국가중심적 틀을 극복하고, 각 지역을 글로벌하게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역사 연구의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 자신 정치학과 소속이므로, 현대 한국정치나 중국정치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현대에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위안부 문제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공 문제) 등은 국가배상이 하나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내셔널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한 연대와 세계상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국가 간 존재하는 분쟁이나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연구하는 시대나 역사의 시좌에서 다시 파악하는 것 또한 역사학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요? 이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한 연구와 현재의 국가 사이의 과제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야스오카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오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논점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육이나 방금 언급된 구술사 연구 방법,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천 선생님부터 시작해주시겠습니까?

천 홍민 방금 김호 교수님께서 제 논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즉 중국의 미디어와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 군부와 일반 국민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그러한 시도들과 관련해 사실 존재적 기반이 미약했고 결과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연구를 개념사 방법론으로 진행했습니다. 개념사의 기본 원칙은 우선, 당시에 어떤 개념이 등장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장제스와 중국 미디어가 ‘일본 군부’라는 용어나 이분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감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부’라는 단어나 이분법을 사용하여 국민을 동원하고, 저항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쟁 선전과 동원의 측면에서 매우 명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첫째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개념이며, 둘째로 당시 현실적으로 전쟁 동원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탕샤오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제스 주변에는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장제스를 설득하지 않았고, 다양한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저는 국민정부 내 가장 일

본통은 바로 장제스 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부의 다른 지일파들은 그저 격화소양(隔靴搔痒)에 불과했습니다. 장제스는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고, 일본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김호 교수님께 답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당시 중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과연 실패주의적 태도를 설파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승산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대신 현실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방법을 찾아 전쟁 선전과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제스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할 때, 일기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장패이 교수님은 그가 사용한 일기는 일반 사람이 쓴 것이며, 작자 또한 누군가 자신의 일기를 읽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기의 신뢰적 가치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장제스의 일기는 다른 사람이 볼 것을 고려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장제스의 일기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지금까지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 온 학자 중 어느 누구도, 장제스 일기에서 허구로 밝혀진 사실을 지적한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제스 일기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실제이며, 장제스 본인도 50년 넘게 일기를 썼는데 매일 일기가 공개될 것을 고민해야 했다면 그 자체로 고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쓸 때 ‘이 일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란 생각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 장제스가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시점에는 본인도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장제스 일기의 진실성, 적어도 사실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실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그의 동기나 생각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일기를 쓸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가 볼까 걱정하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인이 볼까 걱정합니다. 사실상 일기를 쓰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장제스도 예외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결코 사실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료와 함께 교차적으로 사용할 때, 그의 일기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큼니다.

일기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국 영화 ‘히든맨(邪不压正, 역자 주: 장원(姜文) 감독의 ‘민국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에도 일기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상인이 누가 일기를 써?”라고 놀리는 장면이 있는데 많은 관객들은 이 부분에서 웃음이 났 터집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기를 쓴다는 것은, 큰 인물이든 작은 인물이든, 정상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평 하오 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좌석 순서대로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지혜 김호 선생님, 의미있는 코멘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생태사 연구가 국가 단위의 역사 쓰기라는 한계 속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연구는 물론 조금 더 탈국경의, 전지구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연구 수준과 목표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는 탈민족주의, 그러니까 해방 이후 줄곧 이어져 왔던 강한 국가주의적 역사서사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의 해결 도구로 생태사 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매우 초기적인 연구 단계였고, 해결할 목표는 한국의 국가주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전근대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2011년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거친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생태사를 둘러싼 고민과 목표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근현대사 연구에서 볼 때, 생태사 연구의 수준은 여전히 매우 초보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여전히 발전지상주의적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조준해야 하는 목표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고민은 탈국가나 탈국경이라기보다, 오히려 소비와 욕망, 그리고 발전의 지상이라고 하는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방향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가 각각의 상황에 기초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 자체를 ‘국가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각국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매우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일례로 한국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교과 과정에 생태 기반 학습이라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공통으로 가르치도록 국가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의 많은 교사분들을 만났을 때, 한국역사와 관련해서는 가르칠 콘텐츠 자체가 없어서 매우 난감하다는 불만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조금 더 현재 상황과 조건에 기반해서, 국경 또는 탈국경의 고민 속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관련 논의를 하나씩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야스오카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야스오카 겐이치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인간의 존중’과 ‘이야기의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중에서, “피해가 오래 이어진다”, “희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룬 만주 이민의 기억에 관해서입니다. 1945년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아픔, 상처의 경험이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데는 전후 40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역사회 안에서 이민을 보내는 쪽과 보내지는 쪽이 있었고, 보내는 쪽은 전후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유력자로 남아 있던 측면이 있어, 좀처럼 사

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없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자는 사람들, 이야기를 존중하자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야기되기 시작한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침략, 만주 지배라는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멘트에 있던 “무엇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사람이 말하는 그 배경을 보다 깊게 파고드는 것이, 전후 사회의 이해에도 깊게 관계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근본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중요성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뢰성 문제입니다. 구술 문제를 다루면 항상 신뢰성이 거론돼 왔지만,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기억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럼 왜 그런 오류가 일어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기억의 차이, 생각해 내는 과정의 오류가 일어나는지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 역사학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의 의미, 해석이 바뀐다는 것을 조금 더 창조적인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저는 중학생 때 한신아와지대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매일 하는 일, 물을 뜨거나 배급줄을 서는 것과 고등학교 입시로 바뀐기 때문인데, 그 일의 의미는 몇 년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아이가 컸을 때, 점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배운 후 불탄 흔적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 등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석은 변화합니다.

역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시간, 날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신뢰성은 역시 전문가 쪽에서 확보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는 사람 쪽에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발견해 가면서,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도중에 신문기자와 학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로 학술 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기자 분과 교류하거나 학술적인 성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와의 소통을 도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장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직능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와 함께,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모임, 세대를 넘어선 모임이 본질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코멘트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 하오 야스오카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기훈 선생님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훈 지방과 중앙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냉전민족주의가 한국을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만들었고, 이걸 사투리를 포함한 로컬, 지역,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억압을 초래합니다. 이는 권력이나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는데,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단니까 서울 친구들이 “시골 가냐?” 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300만명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이 이 정도면 진짜 시골에 대한 감각이 어땠을지 명확합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라는 건, 이 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투리와 로컬, 민중의 발견 과정이자 재구성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1990년대나 2000년대 이후 지방대학에서 역사학과들이 발전해가는 것이 곧 지방사가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은 부산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향은 부산이지만 목포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목포대, 군산대 같은 대학들이 지방사 연구에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사, 도서해양사가 강합니다.

여기까지가 계몽적 가치로서 로컬이 발견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학이 직면한 문제는 이 계몽적 가치가 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 붕괴는 지방대학의 붕괴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많은 지방대학들이 육성해 왔던 지방사 연구의 전통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가 가치를 추구하는데, 현실의 압박에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진실과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와 현실의 괴리라는 측면도 사실은 또 다른 역사학의 실천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주 영화’의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북한과 한국, 즉 남한이 다르게 처리합니다. 북한에서는 흔히 ‘친일영화’라는 영화들을 영화사, 소셜에서 뺏니다. 남한에서는 친일영화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룹니다. 이상입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다음으로 후쿠마 선생님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후쿠마 요시아키 아까 가해와 피해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주로 일본, 오키나와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주제로 삼았는데, 말씀처럼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 방식이나 가해, 피해라는 논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때그때 사회 상황 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가해와 피해의 문제가, 옳고 그름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덧붙여 오키나와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오키나와전쟁 체험은 다양하게 이야기되어 왔지만, 1960년대 복귀 운동 때부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일본으로의 반환 운동 때입니다. 이 때 사실 구 일본군의 가해를 둘러싼 논의가 억제된 경향이 있었고, 이는 역시 일본에 복귀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얽혀 있었습니다. 막상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될 상황이 되자, 그에 따라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구 일본군의 오키나와에 대한 가해 문제도 초점화됩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 안에서의 가해 문제, 즉 오키나와의 학교 교사가 오키나와 학생에 대해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오키나와 출신자가 조선인 군속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주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대해 말하면, 질문해 주신 선생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피폭 체험을 둘러싼 논의에서 히로시마가 이끌어가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1970~80년대에 나가사키에서 오히려 증언 기록 운동이 활발했고, 히로시마가 나가사키에 뒤처져 있다는 논의가 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인 차이와 동시에 어떤 논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예를 들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각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 전쟁의 임팩트’라는 점에서 각각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반환은 베트남 전쟁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나 오키나와에서 체험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세보항(港) 엔터프라이즈호 기항 그 자체가 베트남 전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변천도 다루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차이로서 물론 각각의 지역차가 있다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 많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사회적 배경도 있습니다. 이를 보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때에 어떤 논의가 이야기되고, 거기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무엇이 간과되었는지 하는 것을 세세하게 풀어 가는 가운데, 지금 저희들의 논의의 본질을 되묻고, 과거로부터 현재 혹은 미래를 되묻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평 하오 후쿠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장페이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역사 교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방금 히라야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각 지역이나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난카이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2학년 때 외부 답사를 갔고, 요즘도 우리 대학 4학년생은 졸업 실습으로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답사합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는 소위 ‘여름방학 실습’이 있어, 학교에서 받은 일부 지원금에 어느 정도 개인 비용을 더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수학여행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여름방학 실습은 그저 한 번 외출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요즘 중국 대학생들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방금 전 이시카와 선생님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시카와 선생님은 중국 학생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본 부상의 핵심적인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중국의 양무운동은 여러 요인으로 실패했고, 이는 결국 청일전쟁에서 양국 간 국력 차이를 만든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시카와 선생님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학생들은 결코 이런 시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실질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 하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시오데 히로유키 모처럼의 기회이니 간결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 쪽 연구에서는 최근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실패했다는 견해가 있을 텐데, 왜 실패했는가 생각할 때, 중국이 근대화하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역시 청나라의 시스템, 구조가 매우 완성된 것이었다. 즉 송대 이후 중국은 매우 강인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쉽게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고, 어떤 의미에서 그로써 서양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좀처럼 인식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 개국한 충격으로 한 방에 나라가 조각 나서,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린 매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근대화할 수 있었던 일본’, ‘할 수 없었던 중국’ 이라는 견해는 현재 일본 측 연구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에서 이야기되는 논의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화할 수 있었던 일본, 할 수 없었던 중국과 같은 설명 방식을 취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역사종합’ 교과서를 집필하는 중에도 고교 선생님들과 협력해 작업했는데 당시 느낄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어째서’ 뿐만 아니라, ‘어디로’ 라는 질문도 역사 교육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즉 의견을 구하게 될 경우 역사와 관계없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왜, 어째서’ 라는 물음이 실은 암묵적으로 ‘어디로’ 라는 물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어째서’ 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그 ‘왜, 어째서’ 가 나오는지 물을 때 역시 암묵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을 묻고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어떤 ‘왜, 어째서’ 를 설정하면 좋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직접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만 역사 속에서 보편적 물음이 발견되는 국면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데, 왜 이걸 당시에 선택했을까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보편성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 예를 하나 들자면, 1920년대부터 30년대 일본이 왜 중국을 침략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세계전쟁으로 치달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왜 국제협조를 버렸는가, 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침략해야 했는가 하는 물음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예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일본의 중국 침략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포함해 지극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물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 하오 시오데 선생님 간결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탕 선생님께 발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탕 샤오빙 평하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여러 흥미로운 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히라야마 교수님이 언급한 지역사회와 역사학의 연결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화동사범대학 역사학과에서는 ‘지역 문헌 및 민간기억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문헌 연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인 이 워크숍은 각 지역, 현, 시의 문헌 작업자들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지방지 편찬 사무소, 지역 박물관 등에서 옵니다. 저희는 화남학과를 비롯해 홍콩 중문대학 데이비드 교수, 중산대학 류즈웨이 교수, 샤먼대학 정전만 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 교수진을 통해 학문적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화동사범대학 역사학과 평샤오차이, 리스중 선생님 등이 교육자로 참여하여 학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주로 연구 방법, 지역사 연구, 구술사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몇몇 지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그리고 학부생들을 데리고 지역사회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윈저우시와의 협력을 통해, 윈저우에 대한 통사를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 화동사범대학 역사학과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며, 지역사회 연구를 위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올해 여름방학에도 화동사범대학 역사학과는 학생들을 강남(역자 주: 양쯔강 이남 지역)과 서북 지역 등으로 보내 역사적 현장 탐방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베이징-항저우 대운하 주변을 탐방했는데,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지도 하에 조사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주로 우수학생반에서 선발된 1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1차적인 조사 탐방이 끝난 후, 시안을 방문하여 산시성의 여러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이 아까 질문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학교에서도 유사한 역사연구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호 교수님의 말씀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역사학, 역사 기술 및 역사 교육의 의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 즉 역사가의 공공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 하셨는데, 저 또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이 언급한 역사 기술이 모욕이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키우는 부분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 매우 공감합니다. 진정한 역사학은 인문주의적 역사학이어야 하며, 또 문화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과 내면적인 공감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 기술은 엘리트나 지식인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존엄성까지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접근한 역사 기술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이 『구체제와 대혁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비추지 않을 때, 인간의 정신은 방향하게 된다”는 이념으로 이어집니다. 과거가 가려지거나 의도적으로 억눌릴 때, 미래를 이해하고 정신적인 평안을 얻는 길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김호 교수님께 드리는 간단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주 교수님이 언급하신 피해자 서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특히 장 교수님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아렌트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정치사상가입니다. 그는 나치 장교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재판을 바탕으로 ‘평범한 악’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 개념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악’이 주로 김 교수님이 언급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회색 지대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아렌트는 ‘책임과 판단’이라는 문집에서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종과 지지의 구분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히만이나 괴뢰만주국군 장교처럼, 직업적 지위 때문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복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복종의 주장은 자기 변호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었고, 나와 내 가족이 높은 정치적 긴장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복종과 지지 사이의 구분을 제시합니다. 만약 복종을 지지(support)로 이해한다면, 이는 더 많은 주체성을 가진 개념으로 변합니다. 즉 개인의 책임감이 더욱 강해지며 실제로는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어떤 의미에서 특정 정치적 폭력과 강권주의 통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전환은 개인의 사고, 판단,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시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전후 독일에서 유행했던 ‘우리 모두가 유죄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우리가 집단으로 사과하거나 유죄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각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특히 책임, 죄과, 잘못, 범죄 사이의 구분을 중요시했습니다. 개인이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개인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렌트에게 있어 잘못과 도덕적 감각은 각기 다른 개념이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구분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전에 저는 독일 전후 세대에 대해 다룬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역자 주: Milton Mayer. 1955. They Thought They were Free : the Germans 1933-45)』라는 책에서는 전후 독일인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데, 수많은 전후 평범한 독일인들

은 나치의 역사에 대해 직면하려 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치의 복종자일 수도 있고, 또 지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알라이드 아스만의 책 『기억의 공간』은 기억과 반성의 핵심에 대해 다룹니다. 1960년대 이후, 독일의 젊은 세대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유럽의 좌파 저항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묻습니다. “나치 독일 하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요?” 이러한 세대 간 대화는 기성 세대의 책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의 자료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연히 자료의 검토와 분석은 역사학의 기본이자 핵심이며,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타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건들이 자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역사학이란 결국 자료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나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떤 역사학적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상식,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일정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역사를 발견해 갑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사학적 능력이며, 이러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의 신뢰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쿤터 그라스의 자서전 『양과 껌질을 벗기며』를 읽었는데, 저자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1944년경 나치의 외곽 조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는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억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진실함과 고백은 중국인의 개인사적 기억을 다룬 작품에서는 드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대륙에서 출간된 20세기 중국에 관련된 많은 회고록과 구술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떤 군간부의 구술사를 읽어보면 지나치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기억 속의 한 페이지를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에서 언급한 왕딩쥘 선생님의 회고록은 예외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공간을 열어 준 이 자리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다소 감성적인 논평과 코멘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탕 선생님. 사회자로서 제가 드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 일본,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은 지난 2020년 1월 필리핀 대회 이후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20세기 전쟁, 식민지 지배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교육과 미디어, 연구, 이 분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전세계를 정지시킨 감염병 시대에도 ‘국사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여러 주제들을 담고 대화를 쌓았기에, 우리는 20세기 전쟁, 식민지 지배와 그 화해라는 큰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당연히 그 역사를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논쟁과 풀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근현대, 특히 20세기 전쟁과 식민지 역사에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회 대화는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전적인 논점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역사가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 역사인식이 가장 명확히 반영되는 결과물인 교육과 미디어에서 그 인식의 연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주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는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메타 히스토리(meta-history)에 대한 관심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측면 이외에도, 일상사(l'histoire quotidienne), 구술사(oral history) 등 20세기 후반기 역사학계에서 확립된 방법이 역사 교육의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구사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 나라의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 경험을 잘 드러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연구자분들은 일본이 역사를 교육, 미디어,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충실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역사가의 기본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와 전달자로서의 역사가 내지 역사 교육자 사이의 딜레마, 현대 역사학에서 되돌아봐야 할 개인 역사의 가치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들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열전(熱戰)의 경험을,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역사 연구자들은 한국 역사를 식민지적 상황에서 어떻게 구출하려 했는지, 식민지 시기 경제에 대한 한국 학계의 논쟁점은 무엇 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다른 부면인 미디어에서는 이를

어떻게 기억하려 했는지, 생생한 역사 영상 자료와 함께 흥미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비슷한 시기, 격렬한 역사의 변동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만주국의 협력자이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애국자’ 일 수도 있었던 양면을 가진 인물이 살았던 삶, 중화민국기 중국인의 일본 군벌 인식의 다양한 측면, 1945년에서 49년 사이 중국 역사의 큰 전환을 보는 상반된 시각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동료들의 발표를 통해 역사 연구의 거대한 변화가 중국 대륙에서 움터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사 대화’ 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공식사(公式史)인 각각의 국사를 보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이번 모임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이웃 나라들과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 역사 발전에 틀림없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분야를 주제로 삼아 다양한 시각을 소개해 주신 각국의 연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국사 대화’ 의 정수는 일방성을 가진 발표가 아닌 상호 간의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상호 공동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래만에 비교적 충분한 토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자분을 비롯해 많은 참여자들이 시간 부족을 다 같이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 토론이면 국제 학술대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들은 주제 발표 다음날, 충분히 숙성된 고민을 토대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2년 후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학계에 현대사를 연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중일 세 나라도 각각 한국과 북한은 광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승전이고, 일본은 종전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 그리고 그 기념하는 날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각자 역사 평가를 아마 2년 후에는 또다시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될 때, 이번 중심 주제로 정한 ‘20세기 전쟁,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라는 주제는 매우 탁월한 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 주제는 제도 교육, 즉 학교 교육의 현장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사회 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와 역사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 관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발표된 주제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중일 3국의 현대사에 제2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데에도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며 미래에 전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사들의 대화’ 를 8회까지 지원해주신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이마니시 준코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니시 선생님은 탁월한 기

확자이자, 또 아주 능숙한 운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조직해주신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류지에 선생님, 이번 모임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진행요원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사들의 대화는 지금까지 쌓아온 의미 있는 대화에 이어 세 나라가 각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생하는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결과물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고, 그 가능성을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더욱 짚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사 대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 인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원문은 일본어 . 번역 : 윤재언 (릿쿄대)]

여러분, 하루 반 동안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사 대화 프로젝트는 2015년 7월, 여기 와세다대에서 개최한 제49회 SGRA 포럼이 시작입니다.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 공간’ 혹은 ‘지식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논의했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2016년 9월 기타큐슈 아시아미래회의에서 개최된 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습니다. 제2회는 2017년 8월, 역시 기타큐슈에서 ‘몽고 내습과 13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 제3회는 2018년 8월 서울 아시아미래회의에서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제4회는 2020년 1월 필리핀 아시아미래회의에서 “동아시아의 탄생-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는 20세기를 주제로 도쿄 와세다대에서의 개최가 정해져 있었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3시간 정도의 짧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감염병’, ‘사람의 이동’, ‘역사의 대중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면과 온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형식 첫 개최였지만, 이 형식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쓰미재단은, 원래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집필중인 외국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장학 재단으로부터 출발해, 전(前) 장학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학술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류지에 선생님이 제창한 ‘지(知)의 플랫폼’과 만나게 되면서, 국사 대화 프로젝트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일중한 3국 선생님들이 국경을 넘어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반에 걸친 충실한 논의를 해도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고, 다소 갑갑함을 느끼면서도, 이번 대화 경험을 살려, 새로운 대화에 따른 신뢰 관계의 형성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국사대화의 성과는 이번에 전시한 것처럼 SGRA 보고서로 3개 언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PDF 버전은 일중한영 4개 언어로 운영되는 SGR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성과를 더 활용하기 위해 교재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학교 1~2 학년을 상정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암기의 역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역사로 이끌어가는 동영상 교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일정에 맞추지 못했지만, 다음 번 국사 대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가 만들어지면, 부디 선생님들 수업에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사대화는 아쓰미재단이 2년에 한번 개최하는 아시아미래회의라는 500명 규모의 국제연구교류의 장을 활용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번에는 내년 8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13, 17, 19, 20세기를 주제로 이어온 지금 형태의 국사대화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부주제에 대해서 일중한 3명의 선생님들이 9편 논문을 쓰는 방식은 이번으로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대화에서 감염병과 역사 대중화를 주제로 한 것처럼 하나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정토론을 언어별로 1~2명 정하고, 자유토론을 더 많이 하는 형태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유토론에는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국사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미래회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학생들도 함께 패널 참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사대화에 등단하신 분들은 등록비 면제 등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학금과 우수 논문상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사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번 폭염 속에 와세다대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계속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콕에서 다시 만납니다.

강연자 약력
(발표순)

■ 김 태웅 (金泰雄) / KIM, Taewoong

198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1990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 1997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현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전문분야는 한국근대사, 한국사회경제사.

주요 저작: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근대편—”, 솔, 2003.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대한제국과 3·1운동”, 휴머니스트, 2022.

■ 탕 샤오빙 (唐小兵) / TANG, Xiaobing

화동사범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역사학 박사,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하버드 앤칭 방문학자. 연구 분야는 주로 청나라 말기 신문사, 20세기 중국 지식인사와 사상문화사, 좌익문화와 중국혁명, 회고록, 구술사 등 20세기 중국의 역사기억에 집중되어 있다. 선후로 “현대 중국의 공공여론 - <대공보> '주간 논문'과 <신고> '자유담'을 중심으로”, “사거리의 지식인”, “민국과의 만남”, “서재 위의 근대 중국—어느 누군가의 독서사”, “북미학종 (北米学踪): 댜우베이에서 보스턴까지” 등 저서를 출판했다. 주요 성과는 “China Information”, “뉴스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사림 (史林)”, “중공당사연구”, “21세기” (홍콩), “사상” (타이베이) 등 중국 국내외 저널에 발표했다. 화동사범대학 제1회 청년교사 육인 (育人) 공로상, 2014년 '동양역사평론'지가 선정한 중국 우수 청년역사학자 명예칭호 (전국 15위)를 수상했다.

주요 저서: ‘전쟁, 고난 및 뉴스 - 항일전쟁기 민간 신문의 여론 동원’, “뉴스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2015년 제8호. ‘민국시기 지식 청년들의 결사 및 좌익화 - 1920-30년대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공당사연구”, 2017년 제11호. ‘포스트 5·4시대의 가족혁명 및 사회개조 사조 - “중국청년”, “생활주간”, “신보”를 중심으로’, ‘톈진사회과학’, 2022년 2호.

■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

SHIODE, Hiroyuki

1997년 도쿄대 교양학부 학사. 1999년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 전공 석사. 2004년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 전공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술). 류큐대 법문학부 준교수, 동 교수,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를 거쳐, 현직은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전문분야는 일본근현대사, 일본정치사, 동아시아국제관계사. 주요저작: 『岡倉天心と大川周明 「アジア」を考えた知識人たち』 (오카쿠라 텐신과 오카와 슈메이: ‘아시아’를 생각한 지식인들) (山川出版社, 2011년).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 (월경자의 정치사: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일본인 이민과 식민) (名古屋大学出版会, 2015년). 『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공론과 교제의 동아시아 근대) (東京大学出版会, 2016년)

■ 장 페이 (江沛) / JIANG, Pei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교수, 난카이대학 중의문명교차과학연구센터 집행 주임. 중국 역사 학회 이사, 중국 현대사 학회 부회장, 톈진 역사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 “중국 근대 교통사회사 총서”를 편저하고 일본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타이완 정치대학 석좌교수를 역임. 주로 민국사와 중국 근대 사회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국가사회과학기금 수석 전무가로 항일전쟁 연구 특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 저서: “전국정책파 (战国策派) 사조연구”, 천진인민출판사, 2001년. “국민당 구조사론” (하권), 중화서국, 2011년. “도시화 과정 연구” (중화민국 역사 총서 9), 난징대학 출판부, 2015년.

■ 후쿠마 요시아키 (福間 良明) /

FUKUMA, Yoshiaki

1969년, 구마모토시 출생. 1992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신문학 전공 졸업. 출판사 근무를 거쳐, 2003년 교토대 대학원 인간 환경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박사(인간 환경학). 카가와대학 경제학부 준교수를 거쳐,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교수. 전문은 역사사회학 및 미디어사. 주요저작: 『『戦争体験』の戦後史——世代・教養・イデオロギー』(『전쟁체험』의 전후사: 세대·교양·이데올로기)中公新書, 2009년. 『戦後日本、記憶の力学——「継承という断絶」と無難さの政治学』(『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 ‘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作品社, 2020년. 『司馬遼太郎の時代——歴史と大衆教養主義』(시바 료타로의 시대: 역사와 대중교양주의)中公新書, 2022년.

■ 이 기훈 (李基勳) / LEE, Kihoon

1991년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1993년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2005년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계간 <<역사비평>> 편집주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전공분야는 근대 사회사 및 문화사.

대표저작: <언니의 곡절 - 한국 근대 가족과 여자 어린이 노동>, <<역사비평>> 141, 2022.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1960-1970년대 학교와 학생>> 서해문집, 2018.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청년사, 2014.

■ 야스오카 겐이치 (安岡 健一) /

YASUOKA, Kenichi

2004년 교토대 농학부 생물자원경제학과 졸업. 2006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09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과정 지도인정 수료. 교토대 박사(농학). 현직은 오사카대 대학원 인문학연구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 구술사.

주요저작: 『『他者』たちの農業史』(『타자』들의 농업사)京都大学学術出版, 2014년. 『共に生きる「仲間」を目指して』(함께 사는 ‘동료’를 지향하며) 高谷幸編『多文化

共生の実験室：大阪から考える』(다문화 공생의 실험실: 오사카로부터 생각하다) 青弓社, 2022년. 『聞き取り / オーラルヒストリー』(청취 조사 / 구술사) 岩城卓二ほか編『論点・日本史学』(논점·일본사학) ミネルヴァ書房, 2022년8월.

■ 양 지혜 (梁知恵) / YANG, Jihye

2021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졸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근현대 사회경제사, 생태환경사 전공. 주요저작: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日本窒素の水力発電所建設と「開発難民」問題, 日韓相互認識 9, 2019. A Locked City: The Japanese Company Nitchitsu's Building of Hŭngnam,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8, 2022. Competing Memories of Mega-Dam Development in Colonial Korea: From Science to Disaster, Acta Koreana, 25-2, 2022.

■ 천 홍민 (陳紅民) / CHEN, Hongmin

산둥 성 타위위안시 출신. 역사학 박사(난징대 중국근현대사 전공). 저장대 구시특빙교수. 장제스와 근대 중국 연구센터 주임. 박사 과정 지도 교원. 저장성 역사학회 부회장. 1985년부터 2006년까지는 난징대학 역사학부에서 근무하였고(조교, 강사, 부교수, 교수), 난징대 중화민국사연구센터 부주임을 지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장대 역사학부(역사연구과) 근무. 역사학부 주임, 중국 근현대사연구소 소장 역임.

전문분야: 전공은 중화민국사, 장제스와 근대 중국. 『美国哈佛大学哈佛燕京圖書館藏蔣廷黻資料』등 학술저서 30여점 출간. 학술논문 150여 편 게재.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등 국가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에서 학술 교류를 실시했다.

주요저작: 『台湾時期蒋介石与陳誠關係探微(1949~1965)』、『近代史研究』, 2013年第2号. 『政治判断与扶植: 蒋介石与毛沢東在抗戰勝利前後』、『澳門理工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5年第4号. 『『向導』週報与中共早期国民党左派、右派概念的建構』(胡馨儀と共著)、『學術界』, 2022年第4号.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전남대

8월 8일 약간 흐린 날씨 속에 제8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미디어·연구」가 대면과 온라인으로 시작되었다.

와세다대학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일반 참가자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첫째 날은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무라 가즈아키 선생(도쿄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류지에 선생(와세다대)의 개회사와 미타니 히로시 선생(도쿄대 명예교수)의 취지설명, 발표 토론 및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다. 류지에 선생은 20세기 전쟁과 식민지배, 화해가 각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온 “국사들의 대화”를 기반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대의 역사인식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를 요청했다.

미타니 선생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키워드를 먼저 꺼냈다. 국사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번 주제를 꼭 시도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 이어서 국사들의 대화라는 큰 학술적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주었다.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역사에 관해 대화를 쌓아가던 중, 각국 정부가 대결정책을 펼치며 역풍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역사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세션은 각각 교육, 미디어, 연구를 주제로 한 세 발표와 발표자 상호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번째 “교육” 세션은 남기정 선생(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는 김태웅 선생(서울대)의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탈식민 담론과 역사서사 구성의 변화”였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이 해방(1945년 8월 15일 독립) 이후 역사 교과서를 쓰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내외 정치와 역사 교과서 내용 사이의 관계를 긴밀히 추적했다.

탕샤오빙 선생(화둥사범대)은 “역사 기억 전쟁과 역사 글쓰기 윤리—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전쟁”에서 장춘 포위전에 대한 상반된 기억 및 평가를 소개하면서, 역사와 계몽 사이의 긴장 관계라는 문제를 제시해주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교토대)은 “일본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다”에서 일본이 전쟁 이후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변화와 변화의 계기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부분, 현재 진행형인 고민(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양면 등)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일본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새로운 역사총합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역사교육에서 사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한계(입시 등으로 인한) 등이 거론되었다. 한국과 중국도 유사한 경험 및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기억이 계몽, 위로를 위해 (엄밀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기록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자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고민은 이번 “대화”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세 번째 세션은 “미디어”가 주제였다. 리언민 선생(오비린대)이 사회를 담당하였다. 장페이 선생(난카이대)은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僞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에서,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당시 중국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했는지에 대해, 한 인물의 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중요했으며, 여러 가지 얼굴(반국과 애국)을 지닌 이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역사학자는 약자인 민중에 눈을 돌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후쿠마 요시아키 선생(리쓰메이칸대)은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에서 영화를 중심으로 미디어가 전쟁을 말하는 방식의 흐름과 그 시대적 배경을 함께 설명해주었다. 피해와 가해, 모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오랜 기간들의 고민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도리어 이러한 고민이 무뎠던 현재,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민사회 사이에서 역사연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기훈 선생(연세대)은 “현대 한국 미디어의 식민지, 전쟁 경험 형상화와 그 영향 -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쟁 영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식민지와 전쟁은 다른 경험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그 속에서 선과 악이 이항 대립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모습, 그리고 21 세기에 가까워지며 변화가 발생하는 모습을 영화 장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연구”였다. 송지용 선생(난카이대)의 사회로 이날의 마지막 세션이 진행되었다. 야스오카 겐이치 선생(오사카대)은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에서 전통적인 역사 인식의 “외부”에 있는 일반 시민의 역사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학의 인식을 주제로 삼았다. 나의 역사를 쓰는 것을 통해 스테레오타입의 역사에 휩쓸리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역사학이 시민사회에 공헌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양지혜 선생(동북아역사재단)은 “‘발전’ 너머,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한국의 식민 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에서 먼저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몇 가지 방향(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식민지근대성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21 세기에 접어들며, 기존 연구 경향의 속도가 줄어듦과,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선 강렬한 정치적 공격이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환경과 생태와 같은 비판적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

는 연구였다.

천홍민 선생(저장대)은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에서 용어에 부여되는 역사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에 주목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용어의 의미와 당시의 의미는 다를 수도 있으며, 시대, 발언 주체, 진영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빅데이터의 활용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학계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한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세션의 토론 시간에는 주로 (역사학자가 아닌) 개인의 역사 글쓰기에 대한 문제(역사와 개인사의 충돌 가능성), 개인의 역사 쓰기에 대한 역사학자의 개입 방식 등을 둘러싼 세 나라 연구자들의 고민과 논의가 오고 갔다.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역사, 자기 역사 서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은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류지에 선생이 첫째 날의 논점을 정리해주었다. 요컨대 세 나라가 현대에 경험한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에, 각국에서 전쟁 이후의 역사상을 만들 때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 서로 다른 맥락에 근거한 여러 모색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역사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교육에서 이른바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들(일본의 역사종합, 한국의 동아시아사, 중국 상하이에서의 시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번 발표에서는 정치와 역사, 역사와 도덕, 사료의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역사 화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8월 9일은 종합토론의 날이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타니 선생의 코멘트가 있었다. 퍼블릭을 어떻게 역사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개인적인 연구 경험에 비추어 친절히 들려주었다. 즉,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사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료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는가라는 딜레마에 주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토론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다섯 번째 세션은 정순일 선생(고려대)이 사회를 맡아주었다. 이 세션에서는 “세 나라의 각기 다른 맥락의 피해자 서사에 대해” “일본의 50~70년대 미디어 문화는 현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만주의 ‘협력자’에 대한 해석의 평면성” (김현주 선생(국립한밭대)), “만주국에서 만든 영화는 어느 나라의 영화로 보아야 할 것인가” (위안칭핑 선생(중국미디어대)), “개인의 눈으로 본 역사에 대한 사례(영국 광산 경영자 네이선)와 전쟁과 식민지배의 다원적 이해의 가능성”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 개최된 한일 공동 전시에서 보인 가능성” (요시이 후미 선생(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항일 드라마의 생성 로직과 전파 방식,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 (시보공 선생(중국미디어대)) 등 지정 토론자의 질의가 있었다.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역사종합의 경우 누가 가

르칠 것인지 등 현장에서 부딪힐 여러 과제가 남아 있고,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전의 문제를 뛰어넘으면서도 학생들이 일본 역사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었다. 미타니 선생은 세계사와 일본사를 융합하고, 글로벌화와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두 요소가 커트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제대로 된 지도 요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해주었다.

플로어에서도 의미있는 코멘트가 있었다. 가와사키 다케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와세다대)는 역사 기사가 젊은 기자에 의해 작성되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것은 사실이나 주요 언론의 기자야말로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므로 교육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젊은 기자들은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었으므로 한계가 없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관동대지진 100주년 등 여러 기사가 나올 것이므로, 학계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부탁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대화의 주요 논점과도 부합하는 코멘트였다. 역사연구자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 소양을 지키되,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집단”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세션은 평하오 선생(오사카공립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스밍루 일기의 진실성에 대해” (장샤오강 선생(장춘사범대)), “생태사가 국민국가 단위의 역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 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성찰과 남겨진 숙제” “역사 교육은 ‘왜’, ‘어떻게 해서’ 를 넘어 ‘어디로’ 라는 방향도 제시해야 할 것” “역사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담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 (김호 선생(서울대)), “국가의 역사와 지방(지역)의 역사의 관계” “지방에서 프로페셔널한 역사학자를 육성할 기반에 대한 문제” “수학여행을 예로 든 지방의 역사(교육)과 관광의 딜레마” (히라야마 노보루 선생(가나가와대)) 등의 지정 토론 외에도, “중국 학생들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문제의 원인” (이치카와 토모오 선생(오키나와국제대))와 사료비판을 교재화할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사분들의 건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광 선생(고려대 명예교수)의 폐회사와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재단 상무 이사의 회고가 있었다. 조광 선생은 오랜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에서 비교적 충분한 토론 시간이 마련된 만큼, 근래 가장 만족스러운 회의가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202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세 나라에서 각각 광복(光復), 승전(勝戰), 종전(終戰)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각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국사들의 대화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마니시 상무이사는 지금까지의 “국사 대화”를 회고하면서, 내년 태국에서의 만남을 약속하였다.

제8회 국사들의 대화에서 세 나라 연구자들은 각국이 처한 현상과 그러한 배경에 따른 각국의 고민을 들려주었다. 세 나라는 20세기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동아시아라는 같은 지역에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각국의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지 고민했고, 그 역시 역사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 자국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

고, “해결” 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번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 중에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도 있었다. 자국사에서의 논의와 고민을 공유하는 것에서, 세 나라 사이의 역사 대화를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필자는 전남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이곳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길러내는 곳이다. 이번 대화는 필자 본인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살려 학생, 교사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화에는 일본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분들 역시 한국의 교사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교사와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더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대화에서 가장 거론이 많이 된 이슈는 개인의 역사와 역사 교육 현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다가올 미래에 역사학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었다. 반지성주의의 만연, AI의 발전, 출생률의 저하 등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역사연구자들은 이미 역사학의 역할은 끝났다며 한탄하기도 한다. 역사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학은 원래의 연구 방식도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김호 선생의 제언이 기억에 남는다. “미래의 역사학은 상호간의 모욕을 중지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을 담아야 한다” “인의(仁義)가 가진 배타성을 경계하고, 불인(不仁)과 불의(不義)에 대한 감각을 단련하여 과도한 의와 편협한 인을 제어하자”. 나는 최근에 본 영화와 책이 떠올랐다. 근래 가장 유명한 영화 중 한편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는 서로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을 얻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Why Fish Don’t Exist)” 라는 책에서 룰루 밀러(Miller, Lulu)는 ‘가치 없는 생명은 없다. 우리의 삶은 모두 중요하다’ 며 소리치고 있다. 시대가 바라는 것은 혹시 이것이 아닐까. 그리고 역사학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사학이 오랜 시간 만들어온 학문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 방법론에 문호를 연다면, 대결해서 누군가를(그것이 역사적 대상이든 현재의 이웃이든) 이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털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학문의 친절함을 퍼트린다면, 역사학은 새로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대화를 통해 이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김경태 「제8회 국사들의 대화 보고문」 에서 전재)

■ 김 경 태 KIM Kyongtae

대한민국 포항시 출신. 한국사 전공.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2010 년 ~2011 년 도쿄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 연구생 자격으로 유학. 2014 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쟁의 파괴적인 본성과, 전쟁이 초래한 황무지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평화 사이에 존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 허세와 타협 -임진왜란을 둘러싼 삼국의 협상- (동북아역사재단, 2019).



제 8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 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 교육 · 미디어 · 연구 ' 참가자 목록

	성명 (알파벳)	성명 (일본어)	성명 (한국어)	성명 (중국어)	소속 (한국어)
발표자					
1	KIM Taewoong	金 泰雄	김태웅	金 泰雄	서울대
2	TANG Xiaobing	唐 小兵	탕샤오빙	唐 小兵	화동사범대
3	JIANG Pei	江 沛	장페이	江 沛	난카이대
4	FUKUMA Yoshiaki	福間 良明	후쿠마 요시아키	福間 良明	리쓰메이칸대
5	LEE Kihoon	李 基勳	이기훈	李 基勳	연세대
6	YASUOKA Kenichi	安岡 健一	야스오카 겐이치	安岡 健一	오사카대
7	YANG Jihye	梁 知恵	양지혜	梁 知恵	동북아역사재단
8	CHEN Hongmin	陳 紅民	천홍민	陈 红民	저장대
발표자 / 실행위원					
9	SHIODE Hiroyuki	塩出 浩之	시오데 히로유키	盐出 浩之	교토대
지정토론자					
10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升	가나가와대
11	KIM Ho	金 滸	김호	金 滸	서울대
12	KIM Hunjoo	金 憲柱	김헌주	金 宪柱	국립한밭대
13	SHI Bogong	史 博公	시보공	史 博公	중국미디어대
14	YOSHII Fumi	吉井 文美	요시이 후미	吉井 文美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5	YUAN Qingfeng	袁 慶豊	위안칭펑	袁 庆丰	중국미디어대
16	ZHANG Xiaogang	張 曉剛	장샤오강	张 晓刚	장춘사범대
자유토론 / 패널리스트					
17	ASANO Toyomi	浅野 豊美	아사노 도요미	浅野 丰美	와세다대
18	DUAN Ruicong	段 瑞聡	뎬루이쑹	段 瑞聡	게이오기주쿠대
19	ICHIKAWA Tomoo	市川 智生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 智生	오키나와국제대
20	Justin Kyle Aukema	ジャスティン カエル アウケマ	저스틴 카일 아우케마	Justin Kyle Aukema	오사카공립대
21	KAWASAKI Takeshi	川崎 剛	가와사키 다케시	川崎 剛	와세다대
22	KAWASHIMA Keiichi	川島 啓一	가와시마 케이이치	川島 啓一	도시샤 종교대학교
23	KIM Hyunsun	金 賢善	김현선	金 贤善	동국대
24	MURAI Ryota	村井 良太	무라이 료타	村井 良太	고마자와대
25	OKUBO Takeharu	大久保 健晴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 健晴	게이오기주쿠대
26	TAMAKI Kei	田巻 慶	다마키 케이	田巻 庆	시바우라공대 가시와고교
실행위원					
27	Chen Lu	陳 璐	첸루	陈 璐	와세다대
28	Cho Kwang	趙 琬	조광	赵 琬	고려대 명예교수
29	Chong Soonil	鄭 淳一	정순일	郑 淳一	고려대
30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김경태	金 基泰	전남대
31	Li Enmin	李 恩民	리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32	Liu Jie	劉 傑	류지에	刘 杰	와세다대
33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34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35	Nam Kijeong	南 基正	남기정	南 基正	서울대
36	Peng Hao	彭 浩	펑하오	彭 浩	오사카공립대
37	Song Zhiyong	宋 志勇	송지용	宋 志勇	난카이대
동시통역					
38	Ding Li	丁 莉	딩리	丁 莉	베이징대
39	Song Gang	宋 剛	송강	宋 剛	베이징외대
40	Lee Hyeri	李 ヘリ	이혜리	李 惠利	한국외대
41	Ahn Younghee	安 ヨンヒ	안영희	安 暎姫	한국외대
42	Jin Danshi	金 丹実	김단실	金 丹実	통번역자
43	Piao Xian	朴 賢	박현	朴 贤	교토대
번역					
44	Hong Yongil	洪 龍日	홍용일	洪 龙日	도쿄대
45	Yu Ning	于 寧	유닝	于 宁	도쿄대
46	Yun Jae-un	尹 在彦	윤재언	尹 在彦	릿쿄대
사무국					
47	Imanishi Junko	今西 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아쓰미재단
48	Tsunoda Eiichi	角田 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 英一	아쓰미재단
49	Nagai Ayumi	長井 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 亜弓	아쓰미재단
50	Miyake Aya	三宅 綾	미야케 아야	三宅 綾	아쓰미재단

SGRA 보고서 지난호 안내

- SGRA レポート 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歩」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パ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 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 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 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ブ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 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 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 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 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 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ヅ、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SGRA レポート 32	第2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ー留学生ー」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バプ・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SGRA レポート 33	第2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SGRA レポート 34	第2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ヤー、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SGRA レポート 35	第2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SGRA レポート 36	第2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SGRA レポート 37	第1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SGRA レポート 38	第6 回韓国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SGRA レポート 39	第2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SGRA レポート 40	第2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ヤ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SGRA レポート 41	第2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SGRA レポート 42	第2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 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SGRA レポート 44	第29 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SGRA レポート 45	第3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SGRA レポート 46	第3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SGRA レポート 47	第3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論、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SGRA レポート 48	第3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ー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 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SGRA レポート 49	第3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SGRA レポート 50	第8 回韓国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日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SGRA レポート 51	第3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SGRA レポート 52	第3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 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プ・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SGRA レポート 53	第4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 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SGRA レポート 54	第3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SGRA レポート 55	第3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 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剣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SGRA レポート 56	第5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 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 回フォーラム講演録「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 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 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
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 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 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 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 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 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ー」崔 勝媛、島蘭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3 第14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
物流を中心に」李 鎮奎、金 雄熙、榊原英資、安 秉民、ド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4 第49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 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5 第50 回SGRA 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齊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6 第9 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 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77 第15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
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8 第51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ー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
るー」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9 第52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80 第16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ー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ー」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1 第56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ー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 回ー」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2 第57 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2 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ー蒙
古襲来と13 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
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桃、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83 第5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 『一帯一路』の地政学」朱建榮、李彦銘、朴榮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4 第11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85 第17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 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孫赫相、朱建榮、文昊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86 第5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琰、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7 第6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 88 第12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89 第62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 ——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90 第63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東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1 第13回 SGRA-V 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2 第13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古市雅子、陳 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3 第14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4 第65回 SGRA-V 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1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SGRA レポート 95 第19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岐路に立つ日韓関係: 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小此木 政夫、李 元徳、沈 揆先、伊集院 敦、金 志英、小針 進、朴 榮濬、西野 純也 2021. 11.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96 第6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6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人の移動と境界・権力・民族」塩出浩之、趙 阮、張 佳、榎本 渉、韓 成敏、秦 方、大久保健晴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7 第6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誰一人取り残さない』如何にパンデミックを乗り越えSDGs実現に向かうか—世界各地からの現状報告—」佐渡友 哲、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杜 世鑫、ダルウィッシュ ホサム、李 鋼哲、モハメド・オマル・アブディン 2022. 2.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98 第15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はいかに作られ、モダンはいかなる変化を生んだのか? —空間アジアの形成と生活世界の近代・現代—」山室信一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9 第6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夢・希望・嘘—メディア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の関係性を探る—」ハンブルトン・アレクサンドラ、バラニャク平田ズザンナ、于寧、洪ユン伸 2022.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100 第20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進撃のKカルチャー——新韓流現象とその影響力」小針 進、韓 準、チュ・スワン・ザオ 2022.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101 第6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7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歴史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韓 成敏 2023. 3.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102 第16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モダンの衝撃とアジアの百年—異中同あり、通底・反転す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山室信一 2023. 6. 14 発行
- SGRA レポート 103 第70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木造建築文化財の修復・保存について考える」竹口泰生、姜 璿慧、永 昕群、アレハンドロ・マルティネス、塩原フローニ・フリデリケ 2023.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104 第21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新たな脅威 (エマージングリスク)・新たな安全保障 (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 —これからの政策への挑戦—」金 湘培、鈴木一人 2023.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105 第7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20世紀前半、北東アジアに現れた『緑のウクライナ』という特別な空間」オリガ・ホメンコ、塚瀬 進、ナヒヤ、グロリア・ヤンユー、マغدレナ・コウオジェイ 2023. 10. 30 発行

SGRA 레포트 No. 0106

제 72 회 SGRA 포럼

제 8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 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 · 미디어 · 연구

편집 · 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 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4 년 7 월 31 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윤 재언 (尹 在彦)
인쇄 (株) 平河工業社

SGRA REPORT

SGRA보고서 한국어판

NO. 106

제 72 회 SGRA 회
제 8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 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 · 미디어 · 연구

